

#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IV

| 159 ~ 164 |

2019

## 〈일 러 두 기〉

1. 유구도면의 방위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서로 22.5°범위 내에 해당되면 남-북향, 22.6~67.5°는 북동-남서/북서-남동향, 67.6~90°는 동-서향으로 기준을 적용하였다.
2. GPS 좌표값은 측지기준계 :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 GRS80, 투영법 : TM, 투영원점은 경도를 기준으로 124~126°는 서부원점, 126~128°는 중부원점, 128~130°는 동부원점, 130~132°는 동해원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도면의 축소비율은 유구는 크기 및 성격에 따라 1/20~1/180을 적용하였으며, 유물은 토기 및 자기 1/3, 기와 1/4~1/6, 철기·석기·목기 1/2~1/3, 장신구 1/1~1/2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도면 하단에 축척을 함께 표기하였다.
4. 유구의 입·단면도에 표기한 수치는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5. 유물은 같은 기종이 4점 이상인 경우 표로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토기류 중 호는 기고 및 동최대경이 45cm 이상일 경우 대호로 분류하였다.
6. 유물의 기고는 중심선을 계측하였으며, 片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7. 유물 기술 중 태토에 함유된 모래 입자의 굵기에 따라 0.1cm 미만을 세사립, 0.1~0.2cm는 사립, 0.3~0.4cm는 세석립, 0.5cm 이상은 석립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8. 토기(기와)는 소성된 상태에 따라 도질(경질), 연질로 구분하였다. 800℃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회청색, 회색, 흑회색을 띠며, 경도가 강하여 흡수성이 거의 없고 대체로 자연유로 인해 기면에 유리질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도질(경질)로, 산화염에서 구운 토기로 적갈색계통의 색조를 띠는 것을 연질로 구분하였다.
9. 인화문토기의 문양 중 중장연속문의 시문은 “宮川禎一”(1988, 『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叢, 歴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事業會)의 문양 시문수법을 참고하여 종방향으로 한번 찍었거나 겹쳐서 찍은 문양은 ‘A’시문수법, ‘^’자 또는 ‘V’자 형태로 꼭지점의 반대쪽을 벌어지게 찍은 문양은 ‘B’시문수법, 종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찍은 문양은 ‘C’시문수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0. 기와는 정치한 상태에서 4등분하여 좌측 상·하부, 우측 상·하부로 구분하고 잔존 및 결실 부위를 기술하였다.
11. 본문 표의 규격 중 ( ) 안의 수치는 잔존치를 의미한다.
12. 유구의 토층과 유물의 색조는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감수·재단법인 일본색채연구소 색표 감수, 『신판 표준토색첩』, 2007” 및 Albert H.Munsell, 『MUNSELL SOIL COLOR CHART』, 1994, revised edition을 참고하였다.
13. 본 보고서의 일러두기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에만 해당되며, 기타 기관의 일러두기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14. 본 보고서는 172개 유적을 조사완료일 순으로 편집하여 상반기(6월 27일)에 96개 유적을 14권으로, 하반기(12월 23일)에 76개 유적을 11권으로 각각 묶어 인쇄한다. 각 권별 유적 수록 목록은 II 권부터 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에 게재하였다.
15.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 목 차

159. 울산 중산동 684-2번지 유적(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159-1
160. 제주 함덕리 3363번지 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160-1
161. 경주 화곡리 22번지 유적(한국문화재단).....	161-1
162. 정선 덕천리 29-3번지 유적(강원고고문화연구원) .....	162-1
163. 춘천 신매리 67-8번지 유적(한국문화재단) .....	163-1
164. 제주 화순리 695-4번지 유적(제주고고학연구소) .....	164-1



## 159. 울산 중산동 684-2번지 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원색도판 1. 조사지역 위성사진



원색도판 2. 조사지역 원경



원색도판 3. 조사지역 전경

### 〈일 러 두 기〉

1. 본 보고서는 울산 중산동(684-2번지의 1필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이다.
2. 도면의 축소비는 아래와 같다.
  - 유구 : 1/20, 1/30, 1/40, 1/200(유구배치도).
  - 유물 : 토기류 1/3, 1/4, 1/5, 1/6.
3. 유구의 단면도에 표시된 수치는 해발고도이며, 단위는 m이다.
4. 기형 추정이 불가능한 유물은 편으로 분류하였다.

# 목 차

I. 머리말 .....	159- 9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59-11
1. 위치와 지리적 환경 .....	159-11
2. 고고·역사적 환경 .....	159-11
III. 조사범위와 방법 .....	159-21
1. 조사범위 .....	159-21
2. 조사방법 .....	159-21
3. 층위 .....	159-21
IV. 조사내용 .....	159-23
1. 삼국시대 .....	159-23
1) 1호 석곽묘 .....	159-23
2) 2호 석곽묘 .....	159-28
3) 3호 석곽묘 .....	159-35
4) 4호 석곽묘 .....	159-39
5) 5호 석곽묘 .....	159-43
6) 1호 석실묘 .....	159-43
7) 1호 의례유구 .....	159-53
8) 2호 의례유구 .....	159-55
9) 3호 의례유구 .....	159-57
2. 조선시대 .....	159-60
1) 1호 건물지 기단 .....	159-60
3. 시대미상 .....	159-60
1) 1호 구상유구 .....	159-60
V. 고찰 .....	159-61
VI. 맺음말 .....	159-64

## 도면목차

도면 1.	유적의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59-15
도면 2.	유적(●)의 위성지도 .....	159-16
도면 3.	조사지역 근대지도(○) : 조사지역, 1976 측량, S=50,000 .....	159-17
도면 4.	조사지역 위치와 지질도(1/50,000) .....	159-18
도면 5.	유적의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5,000) .....	159-19
도면 6.	유적(○)의 지형도(대동여지도, 1864) .....	159-20
도면 7.	유구배치도 .....	159-22
도면 8.	1호 석곽묘 평단면도(S=1:40) .....	159-24
도면 9.	1호 석곽묘 출토유물(1~7·9:S=1/3, 8·10~11:S=1/5) .....	159-27
도면 10.	1호 석곽묘 출토유물(12~13:S=1/6) .....	159-28
도면 11.	2호 석곽묘 입단면도(S=1:30) .....	159-29
도면 12.	2호 석곽묘 출토유물(14~23:S=1/3) .....	159-31
도면 13.	2호 석곽묘 출토유물(24~25:S=1/3), (26~28:S=1/5), (29~30:S=1/6) .....	159-34
도면 14.	3호 석곽묘 입단면도(S=1:30).....	159-36
도면 15.	3호 석곽묘 출토유물(31~33:S=1/3), (34~35:S=1/5), (36~38:S=1/4), (39:S=1/1) .....	159-38
도면 16.	4호 석곽묘 입단면도(S=1:20) .....	159-40
도면 17.	4호 석곽묘 출토유물(40~43:S=1/3), (44:S=1/4) .....	159-42
도면 18.	4호 석곽묘 출토유물(45~46:S=1/5), (47:S=1/1) .....	159-43
도면 19.	5호 석곽묘 입단면도(S=1/30) .....	159-43
도면 20.	1호 석실묘 입단면도(S=1:30) .....	159-44
도면 21.	1호 석실묘 출토유물(48·50:S=1/3) .....	159-50
도면 22.	1호 석실묘 출토유물(49·51~59:S=1/3) .....	159-51
도면 23.	1호 석실묘 출토유물(60~62:S=1/6), (63:S=1/4), (64~65:S=1/2), (66:S=1/4), 67~73:S=1/3) .....	159-52
도면 24.	1호 의례유구 입단면도(S=1:20) .....	159-53
도면 25.	1호 의례유구 출토유물(77~78:S=1/4) .....	159-54
도면 26.	1호 의례유구 출토유물(74~76:S=1/3) .....	159-55
도면 27.	2호 의례유구 입단면도(S=1:20) .....	159-55
도면 28.	2호 의례유구 출토유물(79~80:S=1/3), (81:S=1/5) .....	159-56
도면 29.	2호 의례유구 출토유물(82~83:S=1/3) .....	159-57
도면 30.	3호 의례유구 입단면도(S=1:20).....	159-57

도면 31. 3호 의례유구 출토유물(84(S=1/3), (85~87(S=1/4), (88(:S=1/5))	159-59
도면 32. 1호 건물지 입단면도(S=1/100)	159-60
도면 33. 1호 구상유구 입단면도(S=1/80)	159-60

## 도판목차

도판 1.도판 1. 유적 원경(①), 조사 후 근경(②)	159-67
도판 2. 1~4호 석곽묘 전경(①), 1~3호 석곽묘 전경(②)	159-68
도판 3. 1호 석곽묘 토층 및 벽석 세부전경(①~⑤), 1호 석곽묘 출토유물(⑥~⑦)	159-69
도판 4. 2호 석곽묘 전경(①), 2호 석곽묘 출토유물(②~⑤)	159-70
도판 5. 2호 석곽묘 벽석 세부전경(①~⑧)	159-71
도판 6. 3호 석곽묘 전경(①), 3호 석곽묘 출토유물(②~③)	159-72
도판 7. 3호 석곽묘 벽석 세부전경(①~④), 4호 석곽묘 전경(⑤)	159-73
도판 8. 4호 석곽묘 출토유물(①~②), 4호 석곽묘 벽석 세부(③~⑥)	159-74
도판 9. 4호 석곽묘 시상세부(①), 4호 석곽묘 벽석세부(②~③), 5호 석곽묘 전경(④)	159-75
도판 10. 1호 석실묘 조사전 전경(①), 1호 석실묘 조사중 전경(②)	159-76
도판 11. 1호 석실묘 1차시상 노출시 전경(①), 1호 석실묘 2차시상 노출시 전경(②)	159-77
도판 12. 1호 석실묘 출토유물(①~④), 1차시상 노출시 세부(⑤), 1차시상 1차 제거시 세부(⑥), 1차시상 절개시 단면(⑦·⑧), 2차시상 복원 세부(⑨)	159-78
도판 13. 1호 석실묘 벽석 세부(①~⑧)	159-79
도판 14. 1호 의례유구 조사전 전경(①), 조사후 전경(②), 벽석세부(③)	159-80
도판 15. 2호 의례유구 조사전 전경(①), 2호 의례유구 출토유물(②~⑤)	159-81
도판 16. 3호 의례유구 조사전 전경(①), 3호 의례유구 출토유물(②~③)	159-82
도판 17. 1호 근대 건물지 조사후 전경(①), 1호 구상유구 조사 후 전경(②)	159-83
도판 18. 1호 석곽묘 출토유물	159-84
도판 19. 1호·2호 석곽묘 출토유물	159-85
도판 20. 2호·3호 석곽묘 출토유물	159-86
도판 21. 3호·4호 석곽묘, 1호 석실묘 출토유물	159-87
도판 22. 1호 석실묘 출토유물	159-88
도판 23. 1호 석실묘, 1호·2호 의례유구 출토유물	159-89
도판 24. 2호·3호 의례유구 출토유물	159-90



## I. 머리말

이 보고서는 울산 중산동(684-2번지외 1필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이다. 건축주 양형배씨는 울산 중산동 684-2번지 일원은 「울산 중산동 유적Ⅲ」 내에 포함되어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청 조건부 허가<sup>1)</sup>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사업주는 가람문화재연구원에 표본조사를 의뢰하였고 2016년 7월 조사<sup>2)</sup>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토기편 및 석곽묘 등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사업자는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정확한 유적 범위와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문화재단에 소규모 발굴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연구원이 문화재청 허가<sup>3)</sup>를 득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2017년 11월 27일부터 유적 분포 유무와 범위,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여 12월18일 학술자문회를 개최하여 12월 27일에 발굴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5기, 석실묘 1기, 조선시대 건물지 기단 등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허가번호 : 발굴허가서 제2017-1534호
- 조사기간 : 2017년 11월 27일 ~ 12월 27일(실작업일수 15일)
- 조사면적 : 420m<sup>2</sup>
- 조사단구성
- 조 사 단 장 : 배 은 경(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장)
- 책 임 조 사 원 : 김 성 식(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연구원)
- 조 사 원 : 이 정 주(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연구원)
- 한 지 아(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연구원)
- 준 조 사 원 : 박정 환(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연구원)
- 이 선 철(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연구원)
- 보 조 원 : 박 지 혜(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연구원)
- 원 수 진(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 조사의뢰자 : 건축주 양형배

발굴조사가 종료된 후 유물이 정리된 시점인 2018년 6월 8일에 유물분류평가회를 개최하여 88건 96

1)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15851호(2017.7.4.)

2) 가람문화재연구원, 2017, 『울산 중산동 532-20·684-2번지 단독주택부지 문화재 표본조사 약식보고서』

3) 문화재청 허가 제2017-1534호(2017.11.23.)

점의 유물을 보고하게 되었다. 유물분류평가회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평가의원 : 신광섭(울산박물관장) / 강봉원(경주대학교수) / 이현석(가람문화재연구원장)

보고서 발간과 관련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였다.

- 유물정리·복원 : 이달님, 이별님, 박지혜, 김미정(아르바이트)
- 유물실측 : 이달님, 이별님, 고미화(아르바이트)
- 일러스트 : 이달님, 이별님, 고미화(아르바이트)
- 탁본 : 이달님, 이별님, 고미화(아르바이트)
- 도면편집·도판편집·원고 : 이정주, 한지아
- 교열 : 배은경, 김성식
- 금속유물 보존처리 : 신정아
- 유물촬영 : 김경덕

##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 위치와 지리적 환경

본 유적은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84-2번지에 위치하며 경위도상 동경 129°20'29.9", 북위 35°39'44.2"에 해당한다. 울산 북구청에서 7번 국도를 따라 경주 방향으로 9km정도 가면 중산동인데, 도로 우측으로 대암아파트가 보인다. 울산 중산동 684-2번지 유적은 이 대암아파트 남쪽 마을 중앙부에 해당한다.

유적의 동쪽은 동해와 접한 해안산맥이 신흥재(해발511m)에서 동대산(해발447m), 무룡산(해발452m), 염포산(해발173m)까지 연결된다. 서쪽은 포항 영일만에서 경주-울산-장생포-울산만으로 이어지는 충적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유적은 주변지세가 동쪽으로 산지가 발달하고, 서쪽으로 동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어 지세는 동고서저를 이루고 있다. 동쪽의 산지에서 서쪽으로 뺀어 내리는 구릉은 서쪽으로 가면서 지형고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지형경사가 완만해져 넓은 평탄면을 형성하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살펴보면 암층은 주로 신라계의 세일이 변질된 변성퇴적층 및 유문암질석영안산암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적의 일원은 백악기에 속하는 불국사층의 흑운모화강암 및 각섬석화강암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다. 상부에는 제 4계 중산층이 소규모 분포하고 있다. 하천은 중산지층을 따라 흐르는 동천강에 수지상 소하천들이 유입, 합류한다. 동천강은 삼양에서 시작한 태화강과 삼산동 부근에서 합류하여 울산만으로 유입된다<sup>4)</sup>.

본 유적은 구릉의 단사면부에 해당하며, 서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낮아진다. 최근까지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 2. 고고·역사적 환경

조사대상지역은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32-20, 684-2번지에 해당하며, 동쪽의 삼태봉에서 이화일반산업단지와 북구 중산 2차 일반산업단지를 걸쳐 뺀어 내려오는 완만한 구릉 말단부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경주와 울산을 잇는 7번 국도와 인접해 있으며, 남쪽 30m 거리에는 삼태봉에서 발원한 갯안앞천이 동에서 서로 흘러 동천으로 유입된다. 조사지역은 최근까지 밭으로 사용되었고, 남쪽과 동쪽은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접해 있으며, 북쪽과 서쪽은 주택지로 진입하는 도로와 접해 있다.

금회 조사대상부지 주변 일대는 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데, 지정문화재는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9호인 중산동고분군,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 41호인 중산동 취락유적 등이 있다.

지표조사를 통하여 알려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는 울산 중산동유적 I~IV, 울산 중산동고분군I,

4) 국립지질연구소, 1968, 『한국지질도-울산도폭 1:50,000』, pp 1-3.

중산동 지석묘 등이 있다. 발굴(시굴)조사된 유적은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sup>5)</sup>, 울산 중산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내 유적<sup>6)</sup> 등이 있다. 정밀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울산 중산리유적<sup>7)</sup>, 울산 중산동 715-1번지 유적<sup>8)</sup>, 울산 중산동 667-1번지 유적<sup>9)</sup>, 울산 중산동 543유적<sup>10)</sup>, 울산 중산동 547-1유적<sup>11)</sup>, 울산 중산동 798-2유적<sup>12)</sup>, 울산 중산동 542유적<sup>13)</sup> 등이 있다. 조사대상지 주변으로는 청동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고분유적 뿐만 아니라 생활·생산유적, 취락유적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4)</sup>.

【표 1】 주변유적 현황

번호	유적명	유적성격	참고문헌
1	경주 모화리 동계유적Ⅱ	시대미상 제의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문화유적분포지도-경주시』
2	경주 모화리 유물산포지	삼국시대 생활·생산유적	
3	관문성(사적 제48호)	통일신라시대 산성	울산광역시,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
4	울산 중산동 병마절도사 강오성 거사비	조선시대 선정비	
5	울산 중산동 유적Ⅰ	청동기시대 생활 유적	
6	울산 중산동 유적Ⅳ	청동기시대 생활 유적	
7	울산 중산동 갯안 고분군	삼국시대 유적 분포 가능성	
8	울산 중산동 고성지	시대미상 산성	
9	울산 중산동 고분군Ⅰ	삼국시대 고분군	
10	울산 중산동 고분군 (울산시 기념물 제9호)	삼국시대 고분군	
11	울산 중산동 유적Ⅲ	삼국시대 고분군	
12	울산 중산동 유적Ⅱ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 5)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04,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
- 6) 울산문화재연구원, 2004, 『울산 중산동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 7) 창원대학교박물관, 2006, 『울산 중산리유적Ⅰ』.  
창원대학교박물관, 2006, 『울산 중산리유적Ⅱ』.
- 8) 영남문화재연구원, 2003, 『울산 중산동 715-1번지 유적』.
- 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999, 『울산시 중산동 667-1번지유적 발굴조사보고서-(주)타스공장부지』.
- 10)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울산중산동 543유적』, 『울산옥동유적』.
- 11)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중산동 547-1유적』.
- 12)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중산동 798-2유적』.
- 13) 울산문화재연구원, 2011, 『울산중산동 542유적』.
- 14) 창원대학교박물관, 1997, 『울산시 문화유적원부』, 학술조사보고서 17집.  
울산광역시청,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중·북·남·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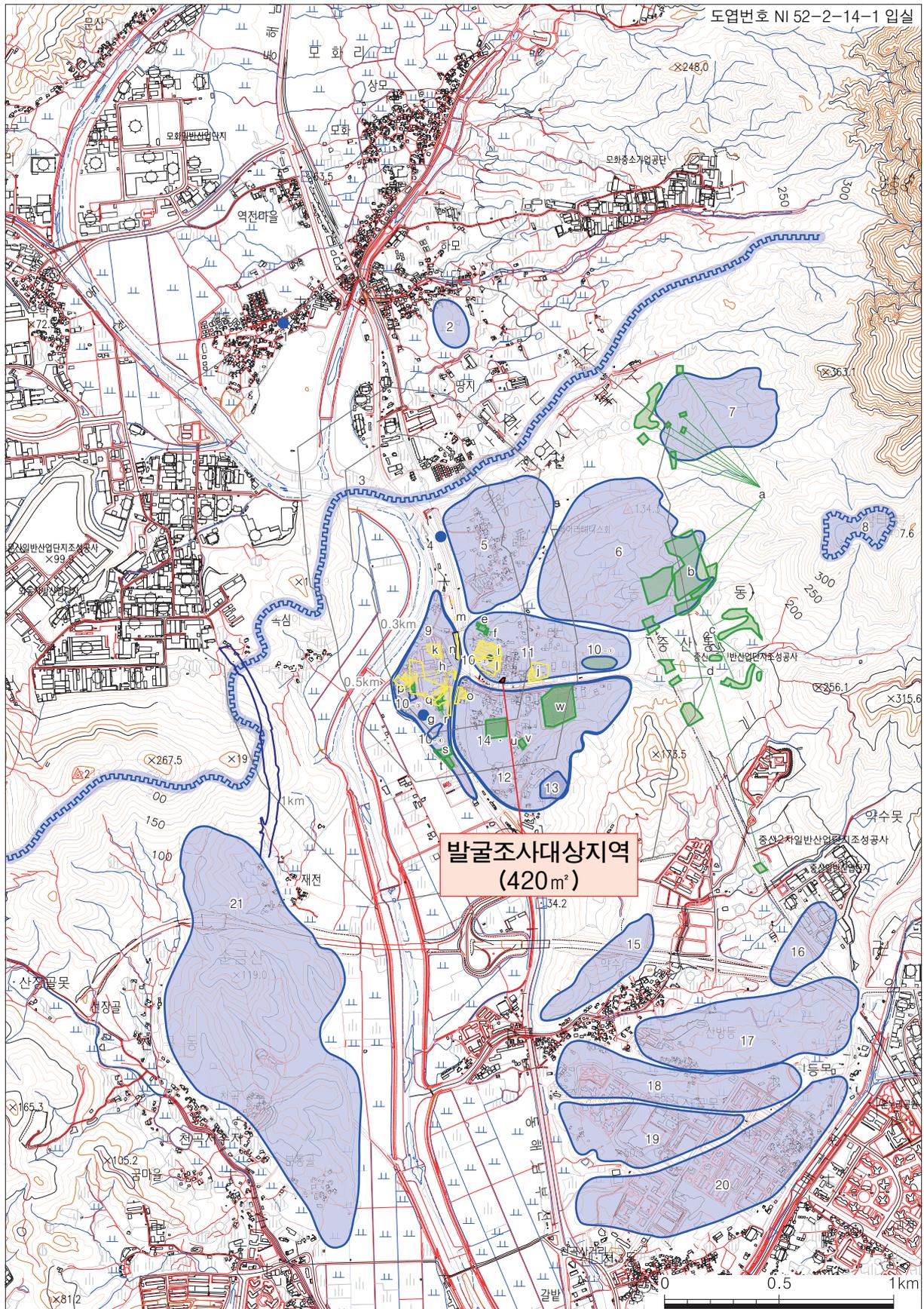
번호	유적명	유적성격	참고문헌	
13	울산 중산동 사지	통일신라시대 사지	울산광역시,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	
14	울산 중산동 취락유적 (울산시 기념물 제41호)	삼한~삼국시대 생산·생활유적		
15	울산 중산동 약수고분군	삼국시대 고분군		
16	울산 중산동 청동기시대유적Ⅱ	청동기시대 생활유적 삼국시대 생활유적		
17	울산 중산동 청동기시대유적Ⅰ	청동기시대 생활유적 삼국시대 생활유적		
18	울산 중산동 약수유적	청동기시대 유적 삼국시대 유적		
19	울산 신천동 유적	청동기시대 유적 삼국시대 유적		
20	울산 신천동 냉천유적Ⅰ	청동기시대 유적 조선시대 유적		
21	울산 천곡동 유물산포지	청동기시대 생활유적 삼국시대 생활유적		
a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Ⅱ	삼국시대 생활유적, 고려~조선시대 생활·분묘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6,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Ⅱ』
b	울산 중산동유적	삼국시대 생활유적, 고려~조선시대 분묘유적		동양문물연구원, 2013, 『울산 중산동유적』
c	울산 중산동 96유적Ⅰ·Ⅱ	삼국시대 생활유적·고분군, 조선시대 생활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5, 『울산 중산동96유적Ⅰ·Ⅱ』	
d	울산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부지내 유적	삼국시대 생활유적 및 토광묘	동양문물연구원, 2012, 『울산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부지내 유적』	
e	울산 중산동 547-1유적	삼한·삼국시대 고분군	울산문화재연구원, 2008, 『울산 중산동 547-1유적』	
f	울산 중산동 543유적	삼국시대 고분군	울산문화재연구원, 2005, 『울산 중산동 543유적』	
g	울산 중산동 지식묘	삼국시대 고분군	울산광역시, 2004, 『문화유적분포지도』	
h	울산 중산리 유적Ⅰ-Ⅰ지구	삼국시대 고분군	창원대박물관, 2006, 『울산 중산동 유적Ⅰ』	
i	울산 중산리 유적Ⅰ-Ⅱ지구	삼국시대 고분군		
j	울산 중산리 유적Ⅰ-Ⅲ지구	삼국시대 고분군		
k	울산 중산리 유적Ⅰ-Ⅳ지구	삼국시대 고분군		
l	울산 중산리 유적Ⅰ-Ⅴ지구	삼국시대 고분군		

번호	유적명	유적성격	참고문헌
m	울산 중산리 유적 I-VI지구	삼국시대 고분군	
n	울산 중산리 유적 I-VIII지구	삼한시대 고분군	
o	울산 중산리 유적 I-VIII 지구	삼국시대 고분군	
p	울산중산동고분군	삼국시대 고분군	울산문화재연구원, 2011, 『울산중산동고분군』
q	울산 중산동 615번지 유적	삼국시대 고분군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14, 『울산 중산동 615번지 유적』
r	울산 중산동 613-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삼국시대 고분군	한국문화재단, 2012,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VIII-울산』
s	울산 중산동 798-2유적	삼국시대 고분군 및 생활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 중산동798-2유적』
t	울산 중산동 798-4유적		
u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1호)	삼한~삼국~통일신라시대 생활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2004,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
v	울산 중산동 667-1번지 유적	삼한~삼국시대 생산·생활유적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울산 중산동 667-1번지 유적』
w	울산 중산동 715-1번지 유적	삼한시대 생활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2003, 『울산 중산동 715-1번지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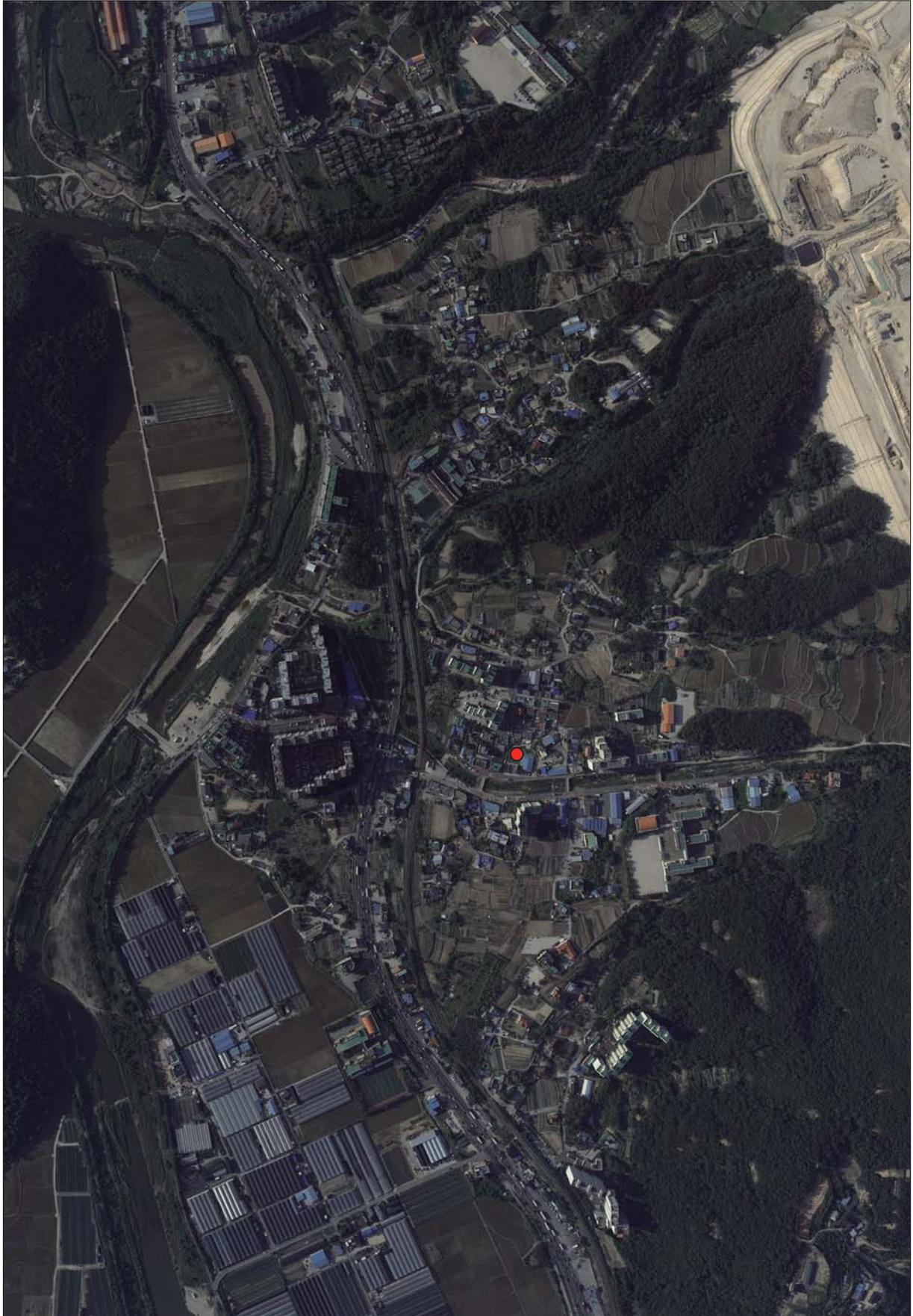
※ 유적번호는 도면1과 동일함.

중산리는 예종 1년(1469)에 산방리라 하였으나 영조 5년(1729)에는 이원방, 산방리 3개 마을로 나누어졌다. 영조 41년(1765)과 순조 4년(1804)에는 이원리와 락수리·산방리라 하다가 고종 4년(1867)에는 이원리와 락수리로 되면서 산방리가 없어졌다. 고종 31년(1894)에는 이원양수, 점리, 화정의 4개 동으로 나누어졌다가 1911년에는 이원, 약수, 화정으로 줄어들었으며, 1914년에는 인원, 약수, 화정으로 되었다. 이때 이원과 화정에 약수의 일부를 포함하여 중산리라 개칭하였다. 중산리는 약수와 이원의 두 행정마을이 있으며, 중산리라는 마을 이름은 이화에 있는 산과 중산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다<sup>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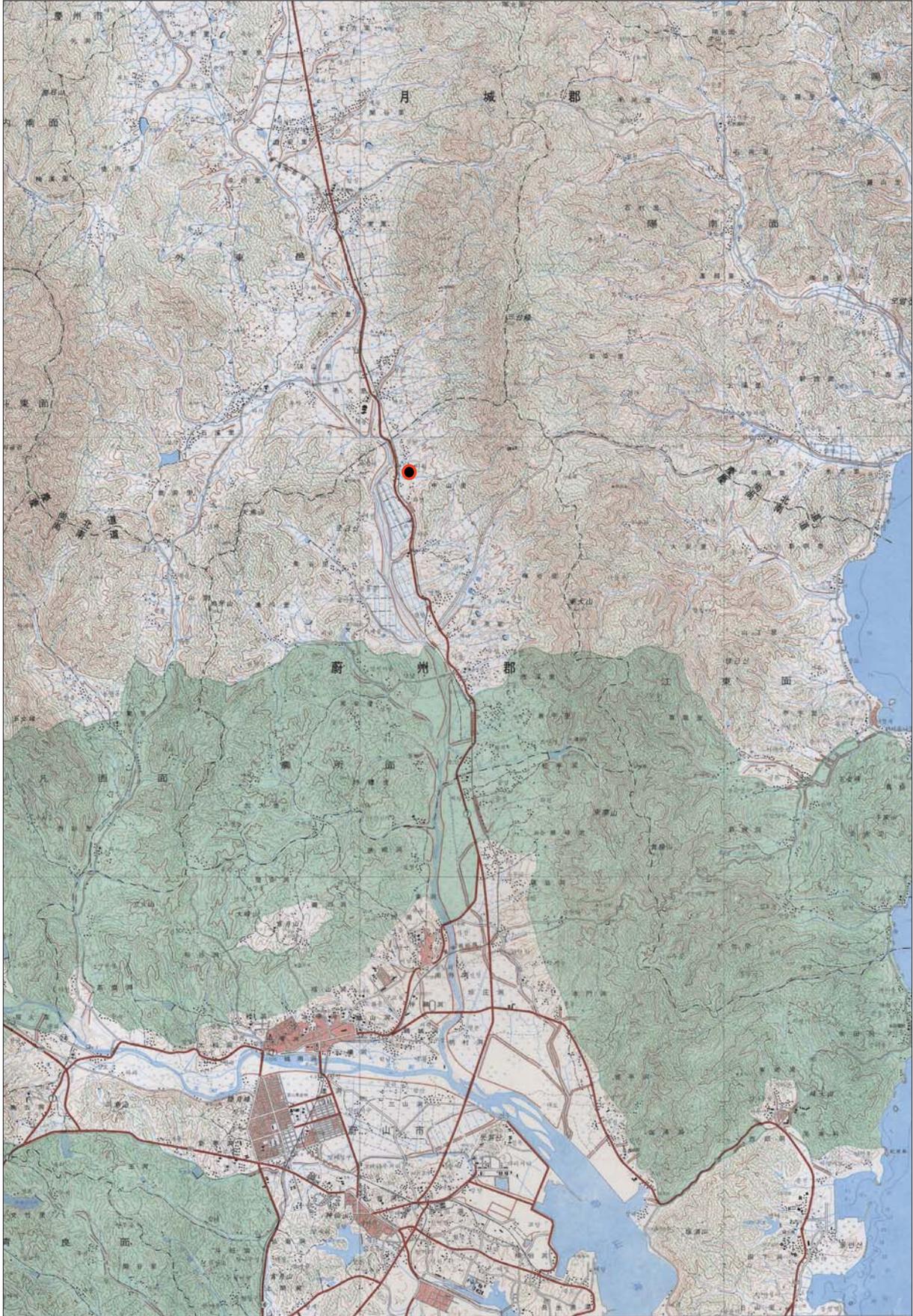
15) 울산문화원, 1986, 『울산지명사』, pp.428-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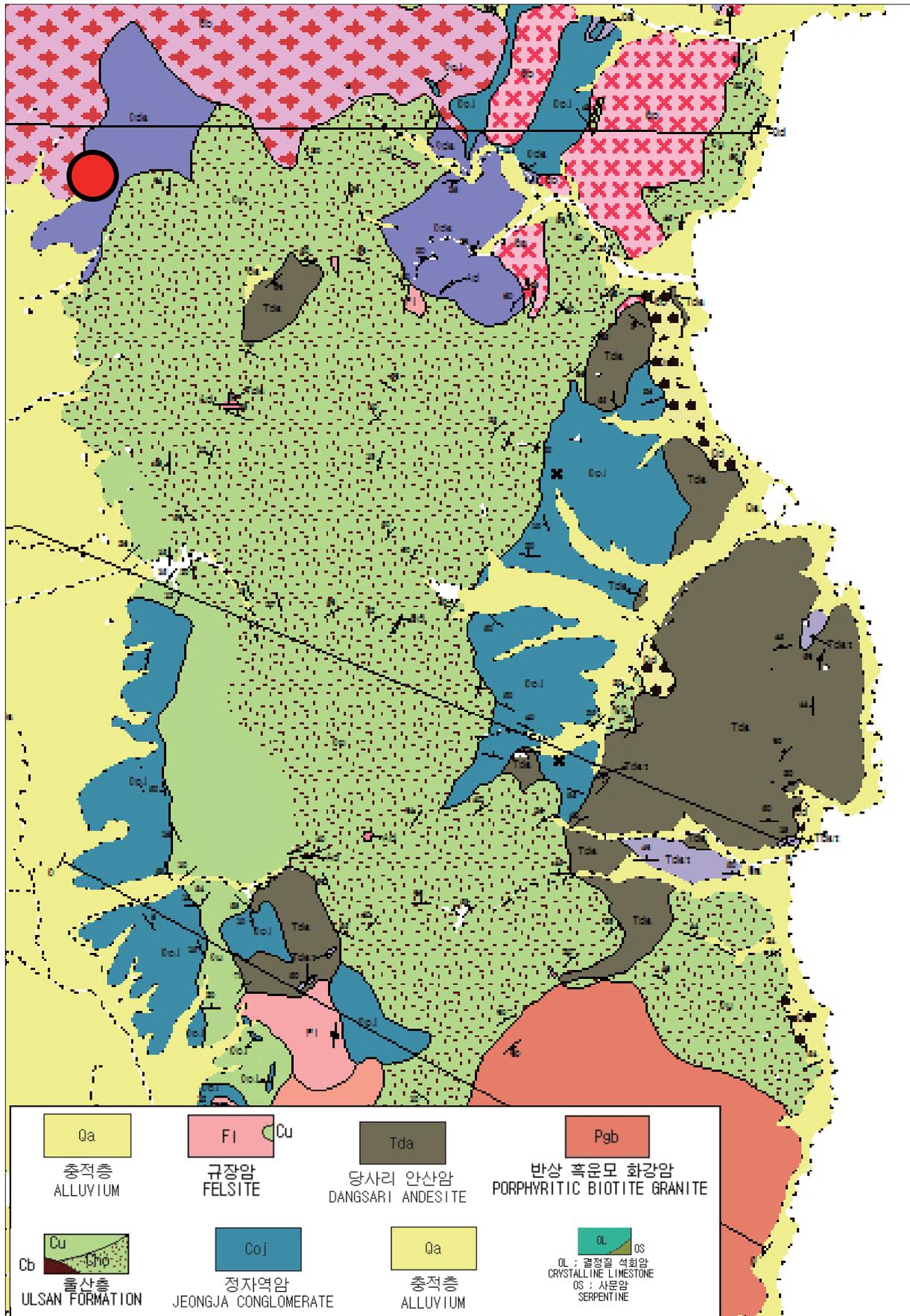
도면 1. 유적의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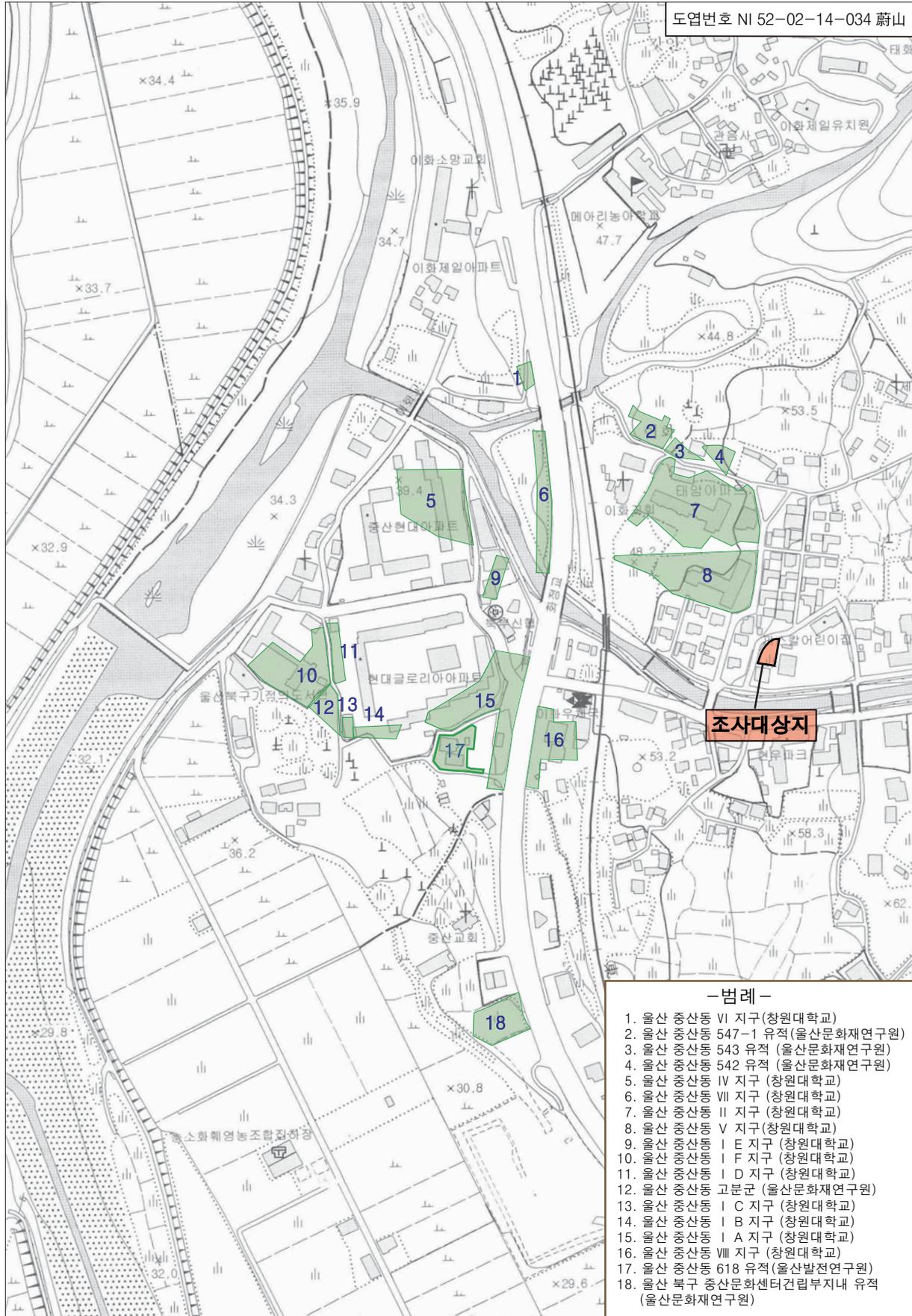
도면 2. 유적(●)의 위성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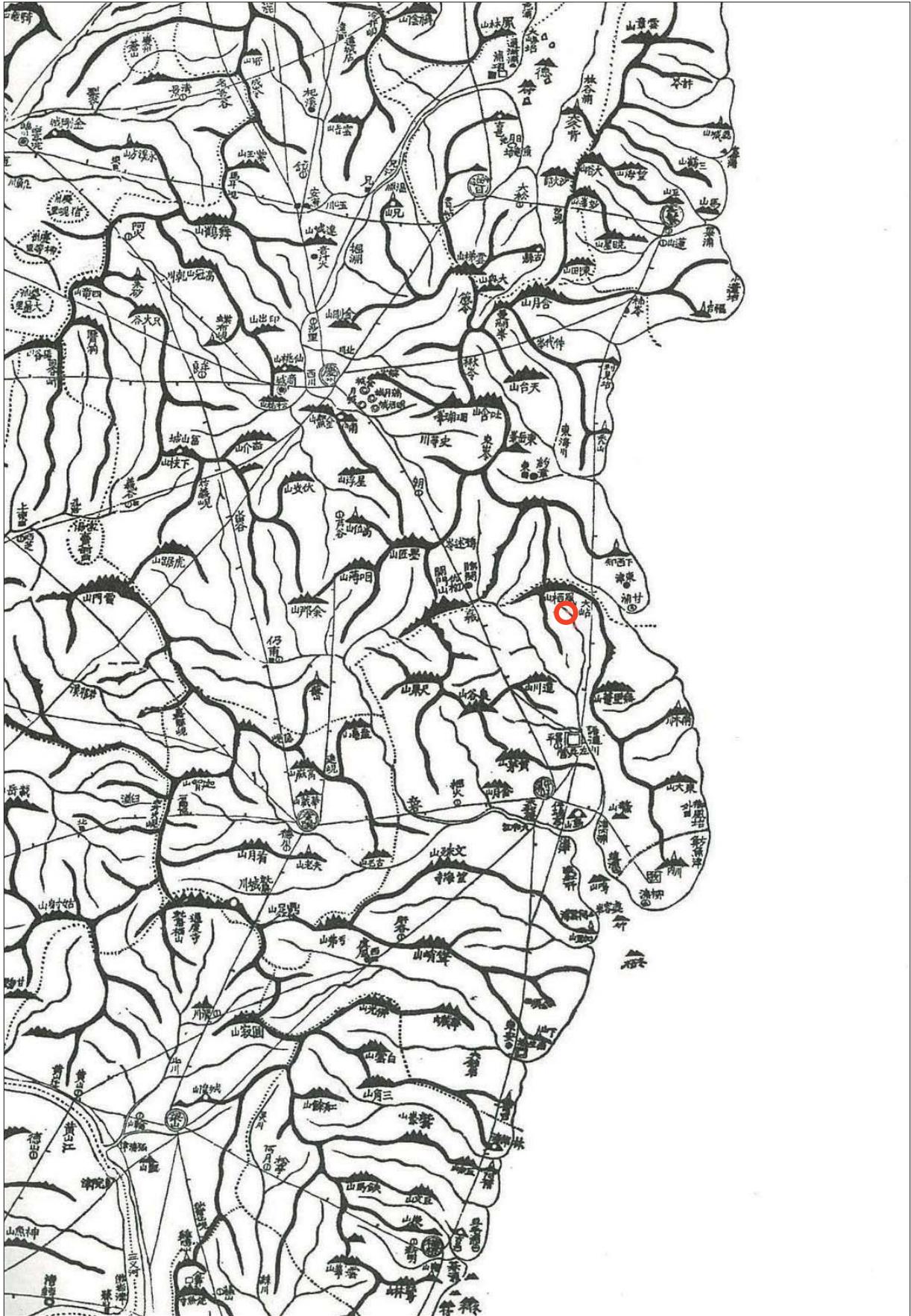
도면 3. 조사지역 근대지도(○) : 조사지역, 1976년 측량, S=50,000



도면 4. 조사지역 위치와 지질도(1/50,000)



도면 5. 유적의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5,000)



도면 6. 유적(○)의 지형도(대동여지도, 1864)

### Ⅲ. 조사범위와 방법

#### 1. 조사범위

조사지역은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84-2번지 외 1필지에 해당되며 발굴조사 면적은 420㎡이다. 조사지역 동편으로는 울산 중산동543유적, 울산 중산동 547-1번지 유적이 인접하여 위치한다. 유구는 대체로 유적 중앙부와 북쪽에 집중 분포하며 삼국시대 석곽묘와 석실묘, 의례유구, 조선시대 건물지 기단, 시대미상의 구상유구 1기 등이 확인되었다.

#### 2. 조사방법

문화층은 현재 표토 20~25cm 아래 황갈색 또는 적갈색풍화암반층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는 탐색트렌치를 설치한 후 유적의 문화층을 파악하여 전면 제토를 실시하였다. 제토는 표본조사에서 노출되었던 석곽묘가 위치하는 북동쪽 경계부를 시작으로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유구 확인작업을 실시하였다.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에 해당하여 제토시 발생하는 토사 반출을 위해 마을 진입로와 인접한 북서쪽에 적재한 후 임시 적재소로 이동 조치하였다.

유구 내부조사는 지형에 따라 생토면 상부에 퇴적된 흙을 제토한 후에 유구별로 단면조사와 평면조사를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유구는 석곽묘 중간부분에 ‘—’ 자 독을 남기고, 독에 붙여 트렌치를 설정하였다. ‘—’ 자독 벽에 대해서 토층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깊이와 구조를 파악하고 토층조사에 따른 내부 매몰토를 제거하였다. 석곽묘 내부에서 출토된 철기류는 부식 상태가 심하여 1차적으로 현장에서 선처리를 한 후 수습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문화재청 보존조치 통보에 따라 복토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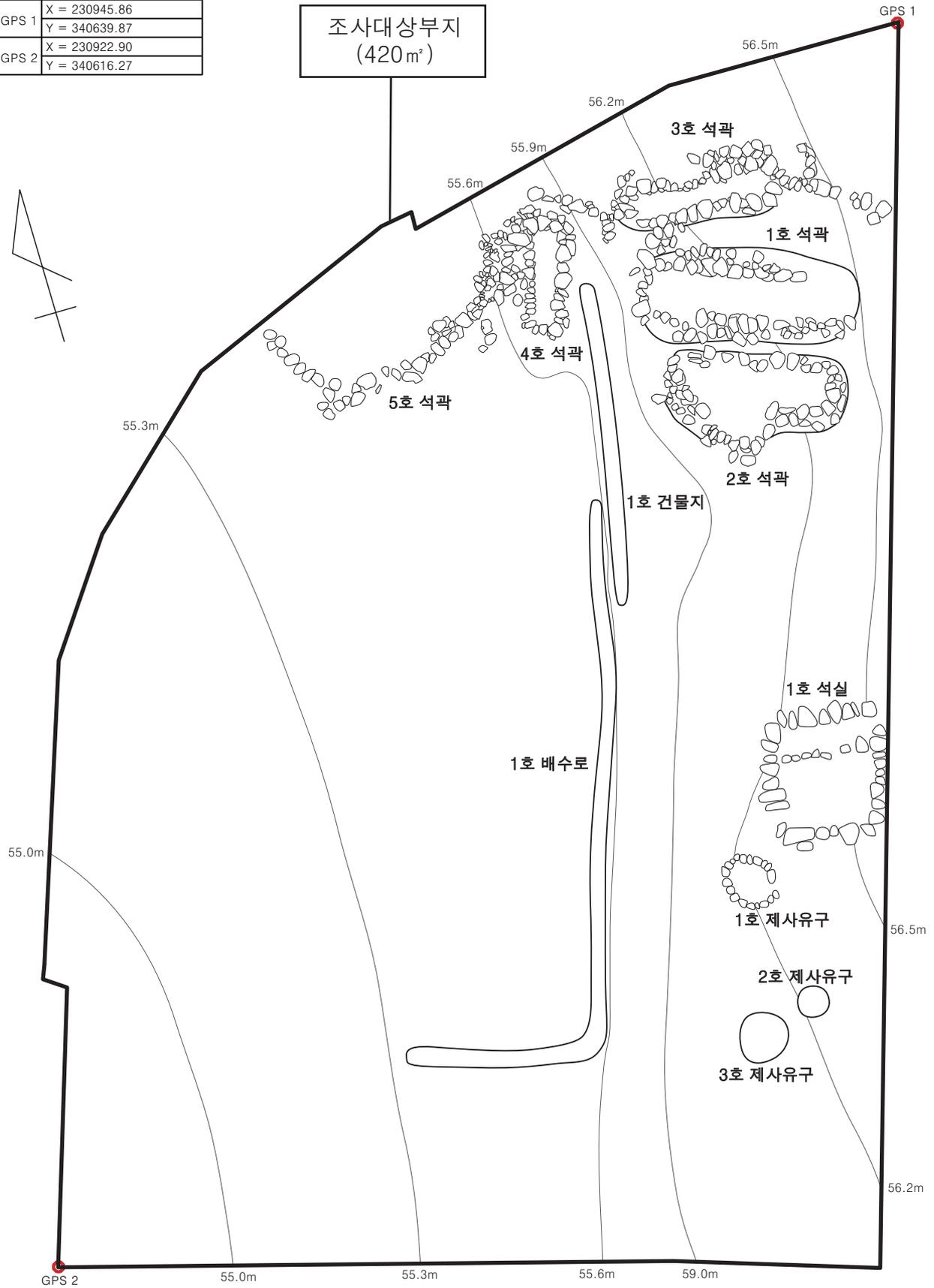
#### 3. 층위

조사지역의 층위는 황갈색 또는 적갈색풍화암반층, 흑갈색 사질점토층(부식성이 강함), 현 경작층 순서로 퇴적되었다. 유구는 황갈색 또는 적갈색풍화암반층에서 확인되며, 동쪽 부분은 일부 지형이 훼손되었다.

【표 2】 조사구역 표준토층(유적 서편)

	I 층 : 현 표토 및 교란층
	II 층 : 교란층
	III 층 : 유구확인층

GPS 측점 제원표	
GPS	TM좌표 (GRS80/동부원점)
GPS 1	X = 230945.86 Y = 340639.87
GPS 2	X = 230922.90 Y = 340616.27



도면 7. 유구배치도

## IV. 조사내용

본 유적은 동쪽에서 뺀어 내린 구릉 말단의 완사면부에 해당하며, 경작지가 계단식으로 조성되면서 원지형이 일부 변형되었다. 삼국시대 석곽묘와 석실묘는 조사지역의 북쪽과 동쪽 경계를 따라 밀집되어 분포하고 중앙부의 조선시대 기단과 배수로를 경계로 서쪽으로는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5기, 석실묘 1기, 의례유구 3기, 조선시대 건물지 기단 1동, 시대미상 구상유구 1기 등 총 11기의 유구가 확인 조사되었다.

### 1. 삼국시대

#### 1) 1호 석곽묘

##### (1) 유구(도면 8, 도판 2~3)

유적 북동쪽 경계부 가까이에 위치하며 해발 56.3m 선상에 자리한다. 주변으로 2·3·4호 석곽묘가 연결하여 조성되어 있다. 2호와 3호 석곽묘가 조성되면서 호석 일부가 파괴되어 1호 석곽묘가 선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축방향은 N-78°-W로 등고선 흐름과 직교한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기반층인 풍화암반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520cm, 너비 212cm 이며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456cm, 너비 216cm, 깊이 65cm이다. 벽석은 2~4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북장벽 일부와 동단벽이 교란으로 인해 파괴된 상태이다. 벽석은 10~30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였고 최하단석은 종평적하였으며 2~3단은 횡평적과 종평적을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최상단은 대체로 횡평적하였다. 시상은 유물부장공간을 제외한 전면에 직경 10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고르게 깔았다.

유물은 양단 부장으로 동단벽에서 개, 고배, 연질옹, 대부장경호 등 8점, 서단벽에서 대부완, 파수옹, 호 등 6점이 출토되었다. 상부에서는 철기 1점이 출토되었다. 고배 및 호의 편은 복원 불가로 유물에서 제외하였다.

##### (2) 유물(도면 9~10, 도판 18~19)

##### 1. 개(도면 9, 도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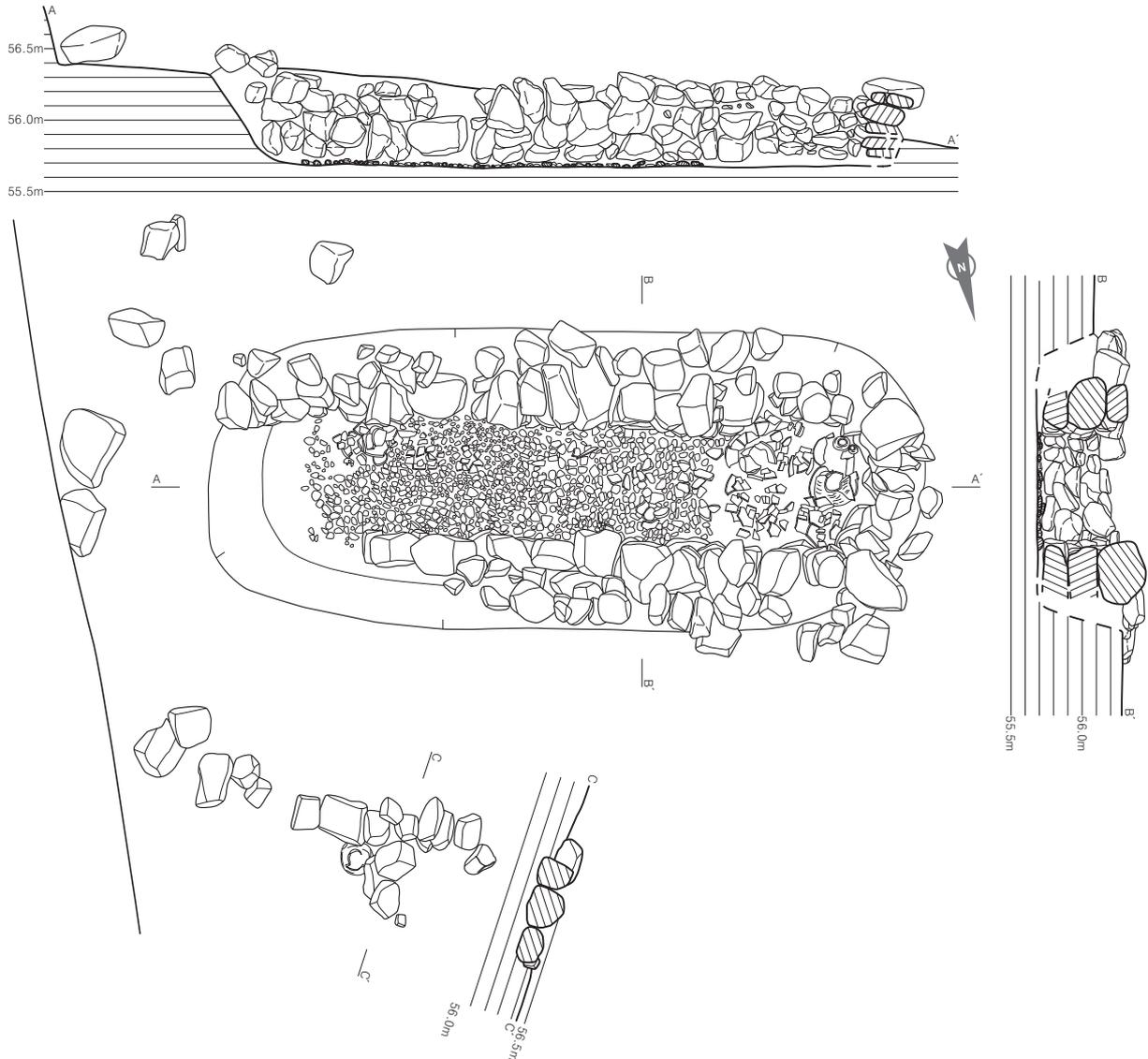
동단벽 아래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장석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배신 일부에는 녹황색의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색조는 내면 회색(N 6/), 외면 회색(N 5/)이다. 꼭지에 단추형으로 방형의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신부에는 1조의 침선을 두 곳에 돌렸고 침선 사이에는 삼각침선문을 시문하였다. 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6.7cm, 구경 : 14.0cm, 꼭지경 : 3.2cm

2. 개(도면 9, 도판 18)

동단벽 아래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부 일부와 배신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기내면에 녹황색의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색조는 내면 회색(N 6/), 외면 회색(N 6/), 단면 회적색(10R 5/2)이다. 꼭지는 단추형으로 상부에 포개어 굽기 위해 사용한 초본류의 흔적이 남아 있고 방형의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신부 상단에는 1조의 침선을 2곳에 돌렸고 포개어 구운 흔적이 일부 확인된다. 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6.1cm, 구경 : 11.8cm, 꼭지경 : 3.1cm



도면 8. 1호 석곽묘 평단면도(S=1:40)

3. 고배(도면 9, 도판 18)

동단벽 아래에서 출토되었으며 드림 및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기 내·외면에는 황갈색의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색조는 내면 회색

(N 4/), 외면 암회색(N 3/), 단면 암적갈색(10R 3/2)이다. 배신에는 다치구를 이용한 종집선문을 상·하로 엇갈리게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4개씩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11.0cm, 추정구경 : 9.5cm, 저경 : 6.7cm

#### 4. 고배(도면 9, 도판 18)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드림 일부와 대각의 1/3 정도가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암적갈색(5Y 3/2)이다. 배신부에 다치구의 집선문을 상·하단이 엇갈리게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에 2개의 돌대를 돌린 후 상·하단이 엇갈리게 장방형 투창 4개를 뚫었다. 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10.2cm, 구경 : 9.9cm, 추정저경 : 7.3cm

#### 5. 대부완(도면 9, 도판 18)

서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이다. 대각에 장방형 투창 4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배신 외면은 거칠며 도구를 이용하여 회전물손질하였다.

기고 : 9.2cm, 구경 : 10.3cm, 저경 : 6.6cm

#### 6. 대부완(도면 9, 도판 18)

서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배신 일부가 찌그러졌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배신부 내면에는 황갈색의 자연유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단면 회백색(N 7/)이다. 대각과 배신의 접합흔적이 확인되며 대각의 중앙부에는 1조의 침선을 돌린 후 하단에 장방형 투창 3개를 뚫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9.9cm, 구경 : 10.7cm, 저경 : 7.1cm

#### 7. 연질옹(도면 9, 도판 18)

동단벽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부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기 내·외면은 요철이 심한 편이다. 색조는 내·외면 등색(5YR 6/6), 단면 등색(5YR 6/8)이다. 저부 외면은 돌려깎기 후 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기고 : 11.9cm, 구경 : 11.0cm, 저경 : 5.2cm

#### 8. 파수부옹(도면 9, 도판 18)

서단벽 아래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고 저부는 일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단면이 탁한황등색(10YR

7/4)이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에는 평행타날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동체 중앙부 양쪽에는 우각형 파수가 대칭되게 부착되어 있다. 내면에는 물손질하여 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고 표면의 요철이 심한 편이다.

기고 : 29.4cm, 구경 : 26.4cm, 저경 : 13.3cm

#### 9. 대부장경호(도면 9, 도판 18)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경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기포가 일부 형성되어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 일부에 황갈색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으며 색조는 내면 회색(N 5/), 외면 회색(N 4/), 단면 회적색(10R 4/2)이다. 경부에는 1조의 돌대를 두 곳에 돌렸으나 물손질로 인해 희미하게 남아 있다. 견부와 동체 경계부에 1조의 침선을 돌렸으며 동체 저부와 대각의 접합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대각에 방형 투창 5개를 뚫었고 동체 저부 외면에는 “\*”형의 표시를 한 것이 확인된다.

기고 : 18.6cm, 구경 : 10.1cm, 저경 : 8.8cm

#### 10. 대부장경호(도면 9, 도판 18)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회색(N 5/)이다. 경부 두 곳에 2조의 돌대를 돌려 3단으로 구획한 후 중·하단에 2열의 원점문을 엇갈리도록 시문하였다. 견부에는 1조의 침선을 두 곳에 돌린 후 그 사이에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고 견부와 동체부의 경계부분에 1조의 침선을 돌렸다. 대각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 후 각 단에 장방형의 투창 8개를 엇갈리도록 뚫었다. 대각과 동체의 접합부에는 접합력을 높이기 위한 침선을 돌렸으며 목리를 이용하여 접합부분을 마무리하였다. 기외면은 회전물손질과 목리조정 하였고 내면은 지두 및 도구를 사용하여 정면하였다.

기고 : 39.0cm, 구경 : 20.3cm, 저경 : 19.0cm

#### 11. 단경호(도면 9, 도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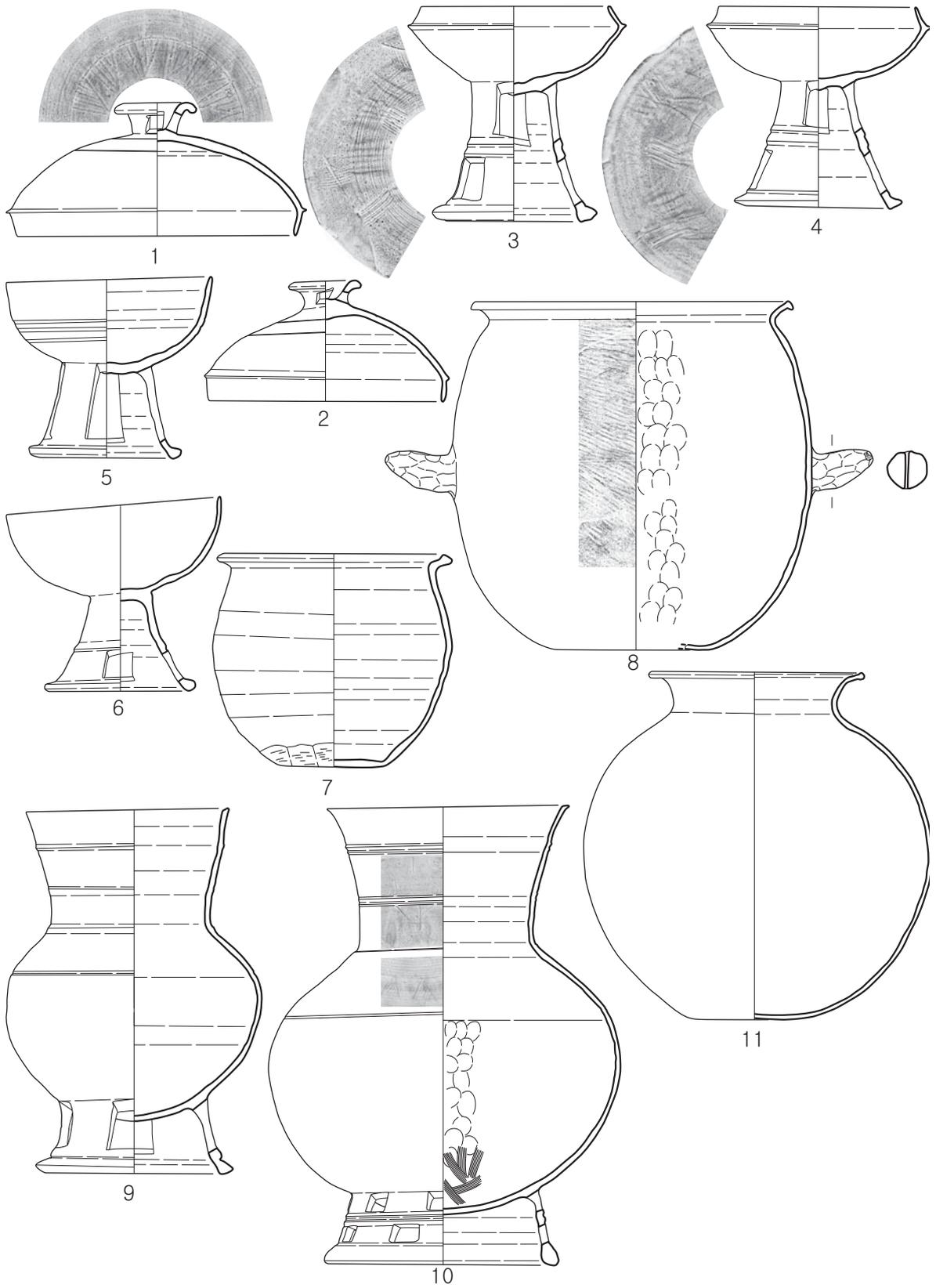
서단벽 아래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운모가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단면 회백색(N 7/)이다. 외면 전체에 종방향 집선문을 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일부에 희미하게 남아 있다. 내면에는 박자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기고 : 28.9cm, 구경 : 18.3cm

#### 12. 단경호(도면 10, 도판19)

서단벽 아래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단면 암적갈색(10R 3/2)이다. 외면에 목리 조정 및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박자흔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경부 1개소에는 ‘H’자형의 기호가 선각되어 있다. 외면 저부에는 소성 시에 받침의 흔적이 두 곳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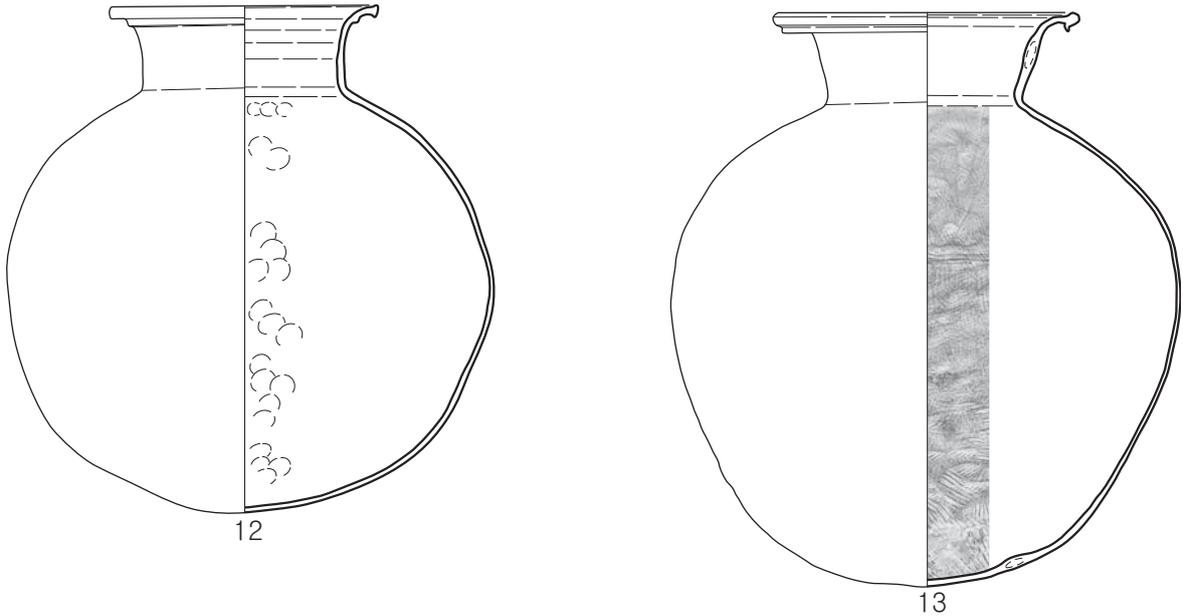
기고 : 40.5cm, 구경 : 21.1cm



도면 9. 1호 석곽묘 출토유물(1~7 · 9(S=1/3), 8 · 10~11(S=1/5))

13. 단경호(도면 10, 도판19)

서단벽 아래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다소 불량하여 표면에 기포가 다량 형성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회적색(10R 4/2)이다. 외면은 목리조정 후 회전물손질하였으며 일부에는 집선문의 박자흔이 약하게 남아 있다. 내면에는 박자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기고 : 45.4cm, 구경 : 23.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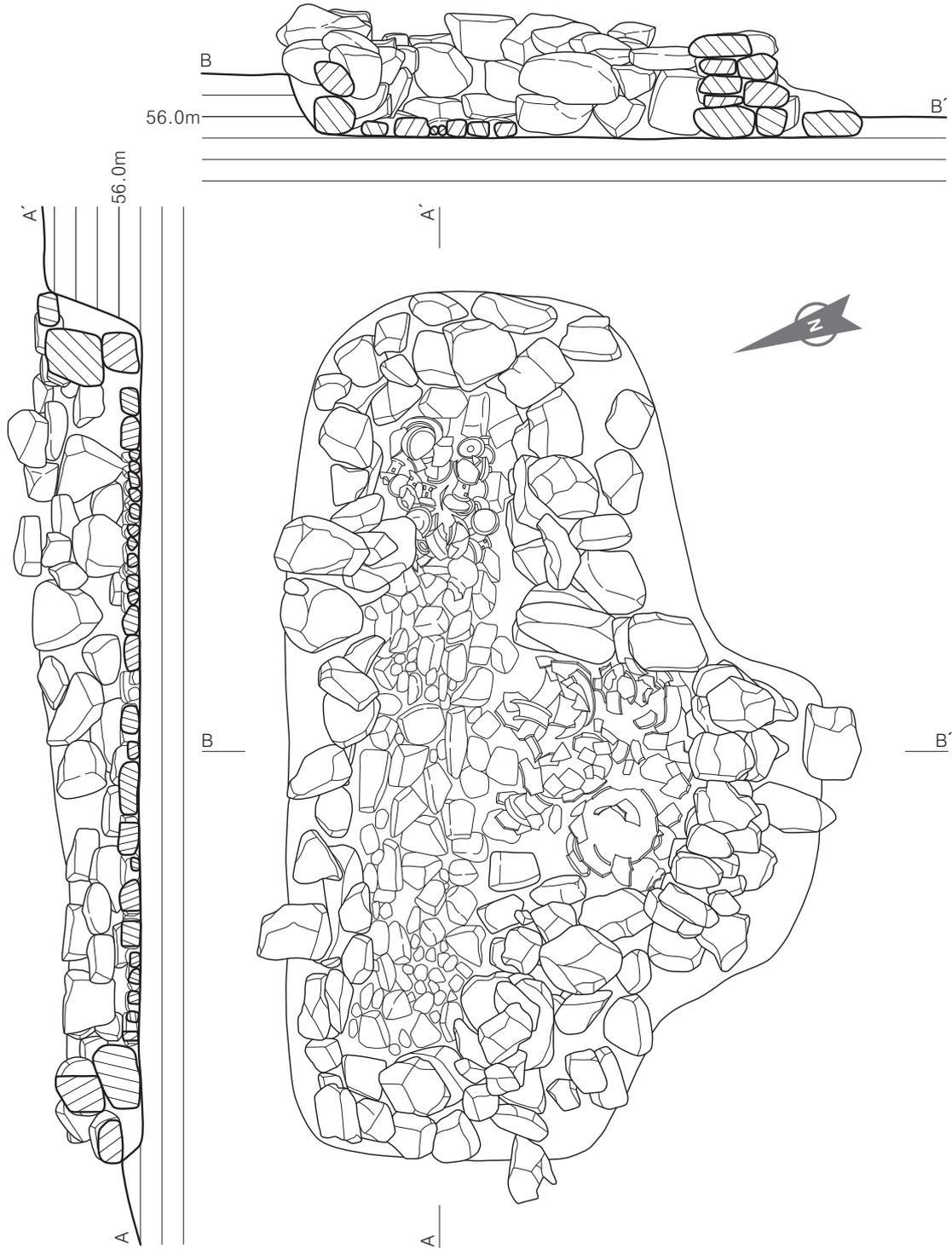
도면 10. 1호 석곽묘 출토유물(12~13(S=1/6))

2) 2호 석곽묘

(1) 유구(도면 11, 도판 4~5)

유적 북동쪽 경계부 가까이에 위치하며 해발 56.3m 선상에 자리한다. 주변으로 1호 석곽묘가 연결해 있다. 1호 석곽묘의 남서쪽 호석을 일부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장축방향은 N-80°-W로 등고선 흐름과 직교한다. 석곽의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남장벽 중앙부에 부곽이 덧대어져 있어 평면형태는 “卜”자형이다. 기반층인 풍화암반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48cm, 너비 168cm이며 부곽의 규모는 길이 166cm, 너비 112cm, 깊이 58cm이다. 벽석은 3~4단 정도가 남아있다. 최하단석은 중평적하였으며, 2~3단은 횡평적과 중평적을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최상단은 대체로 횡평적하였다. 시상은 부장공간을 제외한 전면에 직경 15~20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고르게 깔았다. 유물은 단벽에서 유개고배, 고배, 연질옹, 대부장경호 등 17점, 부곽에서 대부장경호, 대부호, 단경호, 대호 등 5점이 각각 출토되었는데, 호의 편 일부는 복원 불가로 유물에서 제외하였다.



도면 11. 2호 석곽묘 입단면도(S=1:30)

(2) 유물(도면 12~13, 도판 19~20)

14. 유개고배(도면 12, 도판 19)

개 -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이다. 세석립이 포함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이다. 상부에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꼭지 아래에 5치구의 종집선문을 상하가 엇갈리도록 시문하였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다.

기고 : 5.1cm, 구경 : 11.4cm, 꼭지경 : 2.9cm

고배 -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이다. 배신 내부에는 흑색의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고 기면은 요철이 심한 편이다. 배신과 대각 접합흔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대각에는 중앙에 2조의 돌대를 돌린 후 상·하단이 교호되도록 장방형 투창 3개를 뚫었다. 대각의 내·외면에는 녹로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기고 : 11.8cm, 구경 : 10.4cm, 저경 : 8.8cm이다.

#### 15. 유개고배(도면 12, 도판 19)

개 -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색조는 내·외·단면 회색(N 5/)이다. 상부에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꼭지 아래에 5치구의 종집선문을 상·하가 엇갈리도록 시문하였다. 외면에 흑색의 이물질이 다량 부착되어 있으며 포개 쌓기하여 소성정도에 따라 색조의 차이를 보인다.

기고 : 6.4cm, 구경 : 12.0cm, 꼭지경 : 2.8cm

고배 -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드림 및 배신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흑갈색(7.5YR 3/2)이다. 배신부에는 4치구의 종집선문이 상하로 엇갈리게 시문되어 있다. 대각 중앙에 1조의 돌대를 돌린 후 상·하단이 교호되도록 장방형 투창 3개씩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기고 : 10.8cm, 구경 : 9.9cm, 저경 : 7.1cm

#### 16. 개(도면 12, 도판 19)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이다. 상부에 단추형의 꼭지를 부착하였으며 꼭지에 원형의 투창 3개를 뚫었다. 신부 외면 일부에 황갈색의 자연유가 부착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기고 : 5.8cm, 구경 : 10.8cm, 꼭지경 : 2.3cm

#### 17. 개(도면 12, 도판 19)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회색(N 6/)이다. 상부에 단추형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고 꼭지 주변에 자연유가 일부 부착되어 있다. 내면에는 황갈색 자연유가 얇게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기고 : 6.2cm, 구경 : 12.7cm, 꼭지경 : 2.3cm

18. 고배(도면 12, 도판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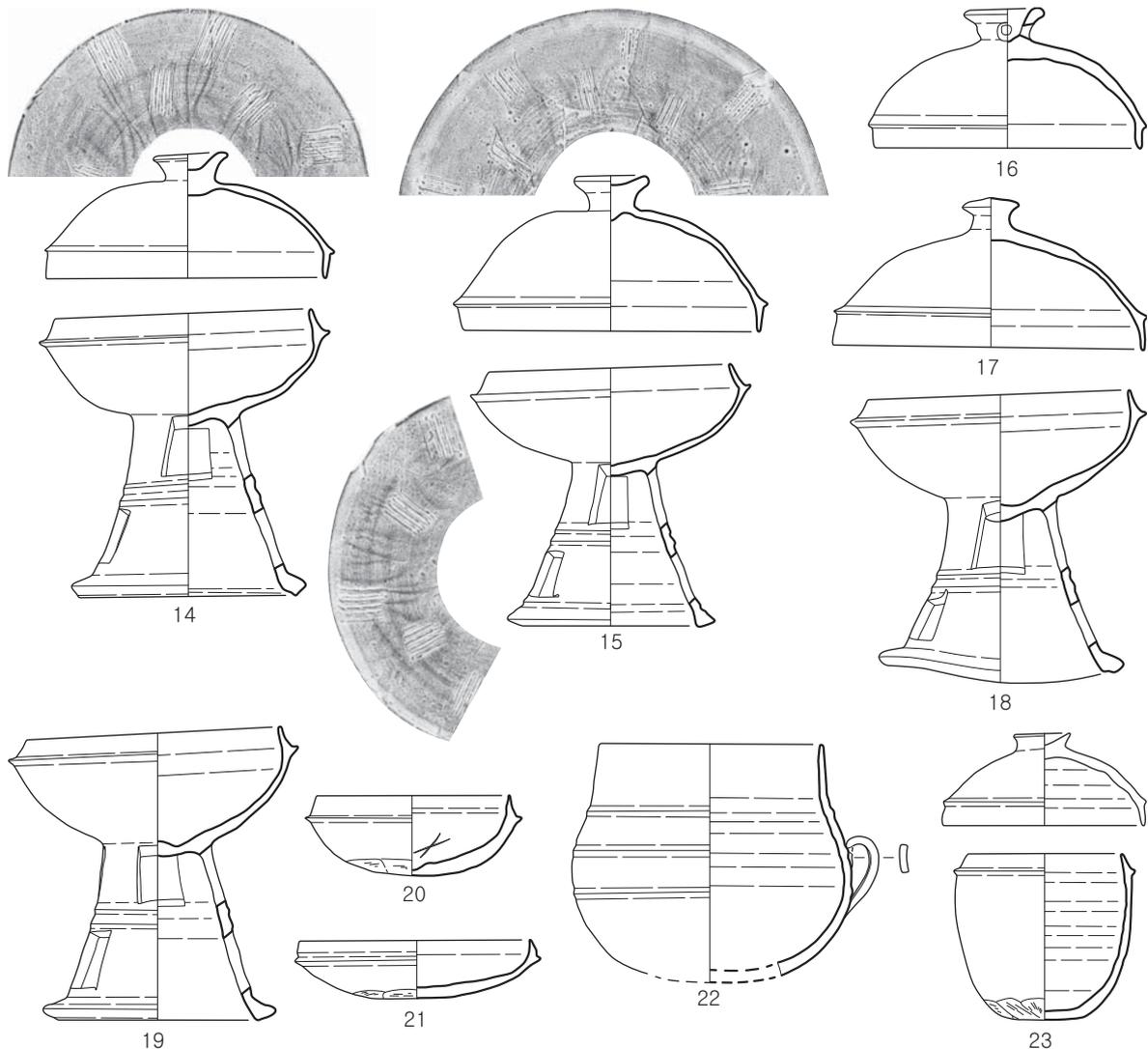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회백색(N 7/)이다. 배신 내면에 흑색의 이물질이 다량 부착되어 있다. 배신과 대각 접합흔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대각 중앙에 2조의 돌대를 돌린 후 상·하단이 교호되도록 장방형 투창 3개를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기고 : 11.9cm, 구경 : 10.7cm, 저경 : 9.5cm

19. 고배(도면 12, 도판 19)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대각의 1/4 정도가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회백색(N 7/)이다. 배신 부 내면에 흑색의 이물질이 다량 부착되어 있으며 대각 중앙에 2조의 돌대를 돌린 후 상·하단이 교호되도록 장방형 투창 3개를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기고 : 11.8cm, 구경 : 10.4cm, 저경 : 8.2cm



도면 12. 2호 석곽묘 출토유물 14~23 (S=1/3)

20. 배(도면 12, 도판 19)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완형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일부 작은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N 6/)이다. 배신 내면에 'X'자 예새기호가 확인된다. 저부 외면은 깎기조정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기고 : 3.3cm, 구경 : 7.9cm

21. 배(도면 12, 도판 19)

부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배신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이다. 저부의 기면은 가죽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정면한 흔적이 확인된다.

기고 : 2.4cm, 구경 : 9.5cm

22. 파수부배(도면 12, 도판 19)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면 회색(N 6/), 외면 회색(N 5/), 단면 암적갈색(10R 4/2)이다. 구연부와 신부의 경계부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고 신부의 두 곳에 각각 2조의 침선을 시문하였다. 신부 중앙 한 곳에 피상의 파수를 종방향으로 부착하였다. 기외면에는 녹황색의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고 내면에는 녹로흔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잔존고 : 9.6cm, 구경 : 9.1cm

23 유개연질옹(도면 12, 도판 19)

개 -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운모와 장석 등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등색(7.5YR 7/6)이다. 상부에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기고 : 3.8cm, 구경 : 6.2cm, 꼭지경 : 2.3cm

연질옹 -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배신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운모와 장석 등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등색(7.5YR 7/6)이다. 외면 저부는 깎기조정 후 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내면은 요철이 심하며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다.

기고 : 6.8cm, 구경 : 6.3cm, 저경 : 3.3cm

24. 연질옹(도면 13, 도판 19)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등색(5YR 6/6)이다. 기면은 전반적으로 박리가 심한 편이며 부분적으로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기고 : 5.3cm, 구경 : 9.9cm, 저경 : 5.9cm

25. 파수부연질웅(도면 13, 도판 19)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신부의 1/2 정도가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전체적으로 등색(7.5YR 6/6)이나 흑색 반점이 일부 확인된다. 기형은 손으로 주물러서 성형하였고 동체 한 곳에는 우각형 파수를 1개 부착하였다.

기고 : 10.7cm, 추정구경 : 11.5cm, 저경 : 6.5cm

26. 병(도면 13, 도판 19)

부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일부와 동체 1/5 정도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운모와 장석 등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전체적으로 회색(N 6/)이다. 외면은 전반적으로 표면박리 되었고 저부는 깎기조정 후 물손질하였다. 내저면에 “\*”자형의 예새기호가 있으며 동체와 저부를 회전물손질로 접합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기고 : 21.5cm, 구경 : 9.6cm, 저경 : 12.5cm

27. 대부장경호(도면 13, 도판 19)

부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일부와 경부, 배신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회적색(10R 4/2)이다. 경부 2곳에 각각 2조, 1조의 돌대를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다. 견부와 동체부의 경계부분에 1조의 돌대가 돌려져 있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8개를 뚫었다. 동체 저부부터 중앙까지는 손으로 성형하여 지두흔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중앙부터 구연까지는 회전물손질하여 마무리하였다. 내면에는 도구를 이용하여 물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다.

기고 : 30.7cm, 구경 : 16.8cm, 저경 : 14.3cm

28. 대부직구호(도면 13, 도판 20)

부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부 일부와 경부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장석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단면 회색(N 6/), 외면 회색(N 5/)이다. 견부에는 1조의 침선을 두 곳에 돌린 후 그 사이에 ‘X’자문을 연속으로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에 2조의 돌대를 돌린 후 상·하단이 교호하도록 방형의 투창을 9개씩 뚫었다. 동체와 대각의 접합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동체의 하부는 손으로 주물러 성형하여 표면이 고르지 못한 편이며 상부부터 구연부까지는 회전물손질하여 마무리하였다.

기고 : 24.5cm, 구경 : 9.5cm, 저경 : 12.9cm

29. 대부장경호(도면 13, 도판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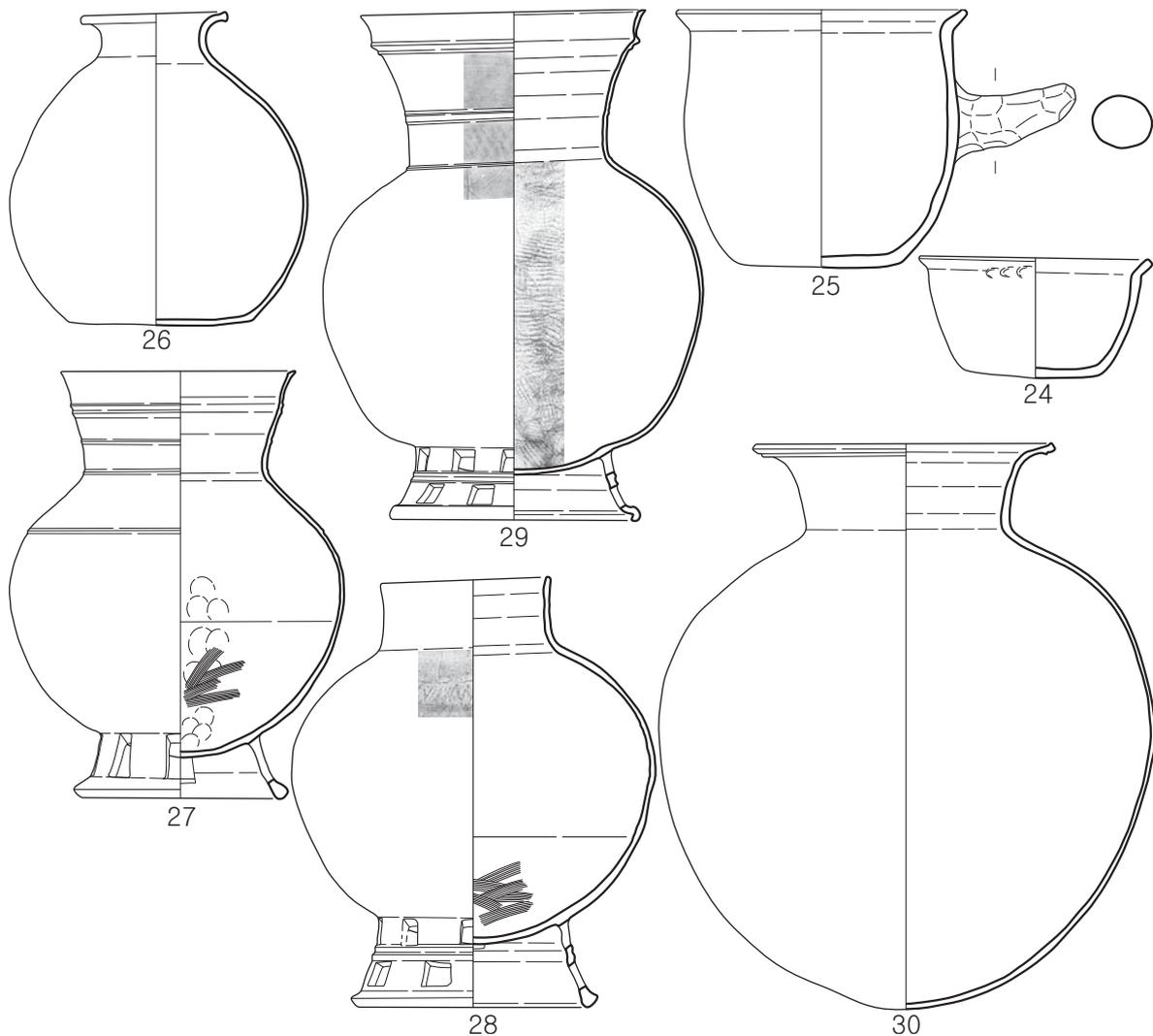
주곽의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대각에 기포가 다량 형성되어 있다. 색조는 내면 회색(N 6/), 외면 회

색(N 5/), 단면 암적갈색(10R 3/2)이다. 견부와 경부 외면에 녹황색의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경부는 2개소에 각각 1조의 침선과 2조의 돌대를 돌려 3단으로 구획한 후 상단에는 침선으로 거치문을 시문하였고 중간에는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으며 하단에는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견부에는 상부에 1조의 침선을 돌린 후 그 상단에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구획한 후 상단과 하단에 각각 10개의 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뚫었다. 경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린 후 상단에 삼각집선문, 하단에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대각에는 2조의 침선을 돌린후 상·하단이 교호되도록 방형 투창 9개를 투공하였다. 외면은 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관찰된다.

기고 : 42.1cm, 구경 : 23.0cm, 저경 : 19.8cm

30. 단경호(도면 13, 도판 20)

부곽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동체 일부에 기포가 확인된다. 색조는 내면 회색(2.5Y 6/1), 외면 회색(2.5Y



도면 13. 2호 석곽묘 출토유물(24~25(S=1/3), 26~28(S=1/5), 29~30(S=1/6))

5/1), 단면 암적갈색(10R 3/2)이다. 외면은 박자타날 후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내박자 및 지두 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저부 일부는 소성시 고정을 위한 받침의 흔적이 3곳에서 확인되며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

기고 : 48.2cm, 구경 : 24.9cm

### 3) 3호 석곽묘

#### (1) 유구(도면 14, 도판 6~7)

유적 북동쪽 경계부 가까이에 위치하며 해발 56.4m 선상에 자리한다. 주변으로 1호 석곽묘가 연결해 있다. 3호 석곽묘의 호석을 1호 석곽묘의 호석이 파괴한 것으로 보아 3호 석곽묘가 선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축방향은 N-77°-W로 등고선 흐름과 직교한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기반층인 풍화암반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396cm, 너비 168cm, 깊이 48cm이며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378cm, 너비 120cm, 깊이 56cm이다. 벽석은 20~30cm 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축조하였고, 2~4단 정도가 남아있으며, 북장벽 일부가 교란으로 인해 상단부 벽석은 무너지거나 제자리에서 이탈되어 있다. 최하단석은 중평적, 2~3단은 횡평적과 중평적을 혼용하고 최상단은 대체로 횡평적하였다. 시상은 유물부장공간을 제외한 전면에 직경 10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고르게 깔았다.

유물은 개, 고배, 연질옹, 대부장경호 등 8점, 시상 상부에서 세환이식 1점이 각각 출토되었다.

#### (2) 유물(도면 15, 도판 20~21)

##### 31. 개(도면 15, 도판 20)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거의 원형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단면 회색(N 6/)이다. 상부에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었으며 신부의 접합흔이 거칠게 남아 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다.

기고 : 5.3cm, 구경 : 11.7cm, 꼭지경 : 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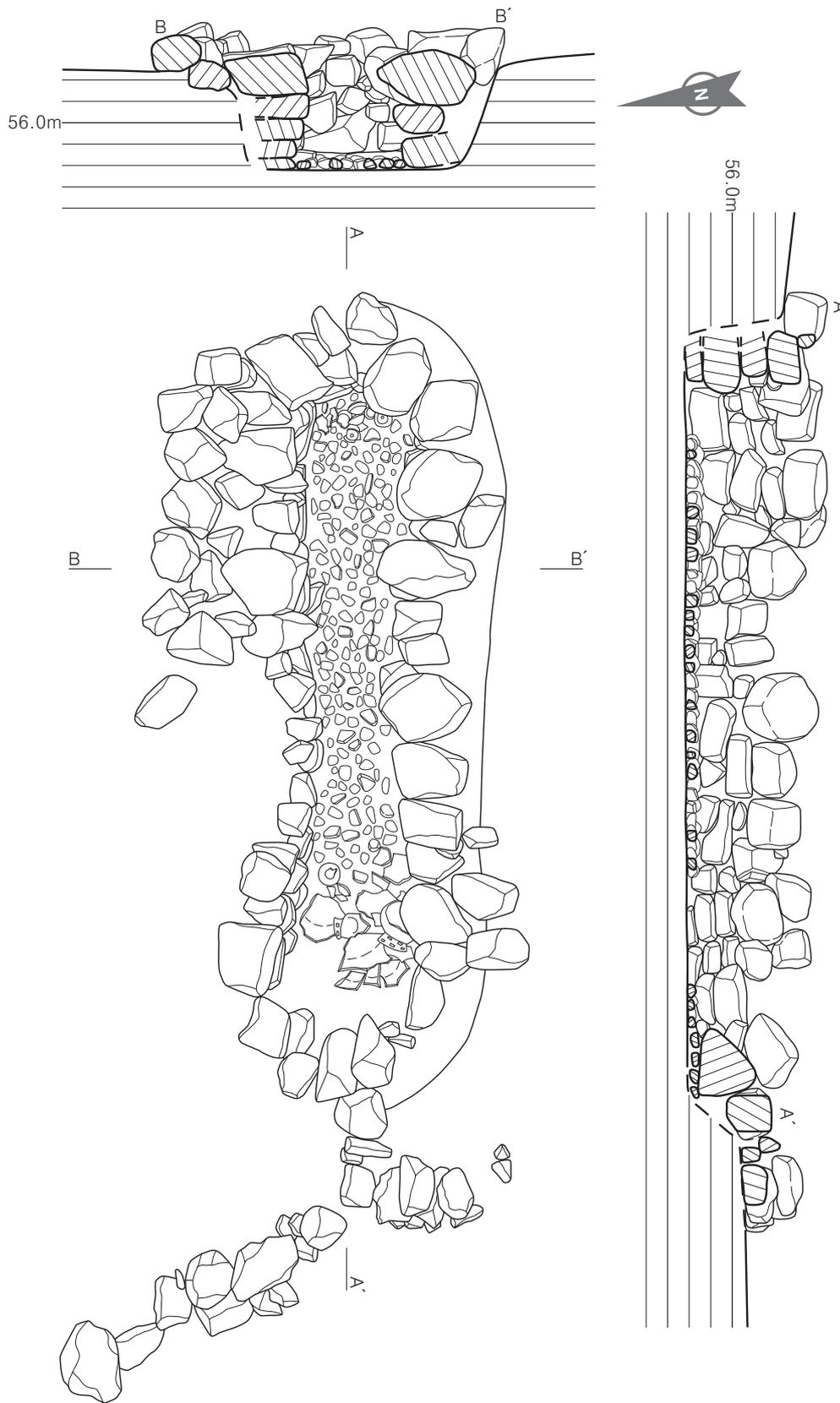
##### 32. 고배(도면 15, 도판 20)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드림 및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운모 등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백색(2.5Y 7/1)이다. 신부 외면에는 2조의 침선을 이용하여 대각을 중심으로 'V'자상의 선문을 6개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에는 3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한 후 상단과 하단이 엇갈리도록 각각 3개의 장방형 투창을 뚫었다.

기고 : 10.4cm, 구경 : 1.5cm, 저경 : 8.3cm

##### 33. 파수부배(도면 15, 도판 20)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배신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6/)이다. 배신 외면에는 단면이 원형인 파수 1개가 부착되어 있다. 저부 외면에는 점토를 덧댄 흔적이 확인되며 일부 박리되었다. 기면에는 전체적으로 녹로흔이 뚜렷하게



도면 14. 3호 석곽묘 입단면도(S=1:30)

확인되며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10.2cm, 구경 : 9.6cm, 저경 : 4.3cm

#### 34. 장동옹(도면 15, 도판 20)

원저의 장동옹으로 서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와 동체의 일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석영과 장석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탁한황등색(10YR 7/4)이다. 외면의 동체부는 격자타날하였고 저부는 평행타날하였다. 내면에는 지두흔과 도구 등을 이용한 기면조정 후 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잔존고 : 43.6cm

#### 35. 장동옹(도면 15, 도판 20)

원저의 장동옹으로 서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를 포함한 2/3 정도가 남아 있다. 태토는 장석 등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탁한황등색(10YR 7/4)이다. 외면은 전체적으로 격자타날하였고 내면은 지두와 도구 등을 이용한 기면조정 후 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잔존고 : 41.4cm

#### 36. 대부장경호(도면 15, 도판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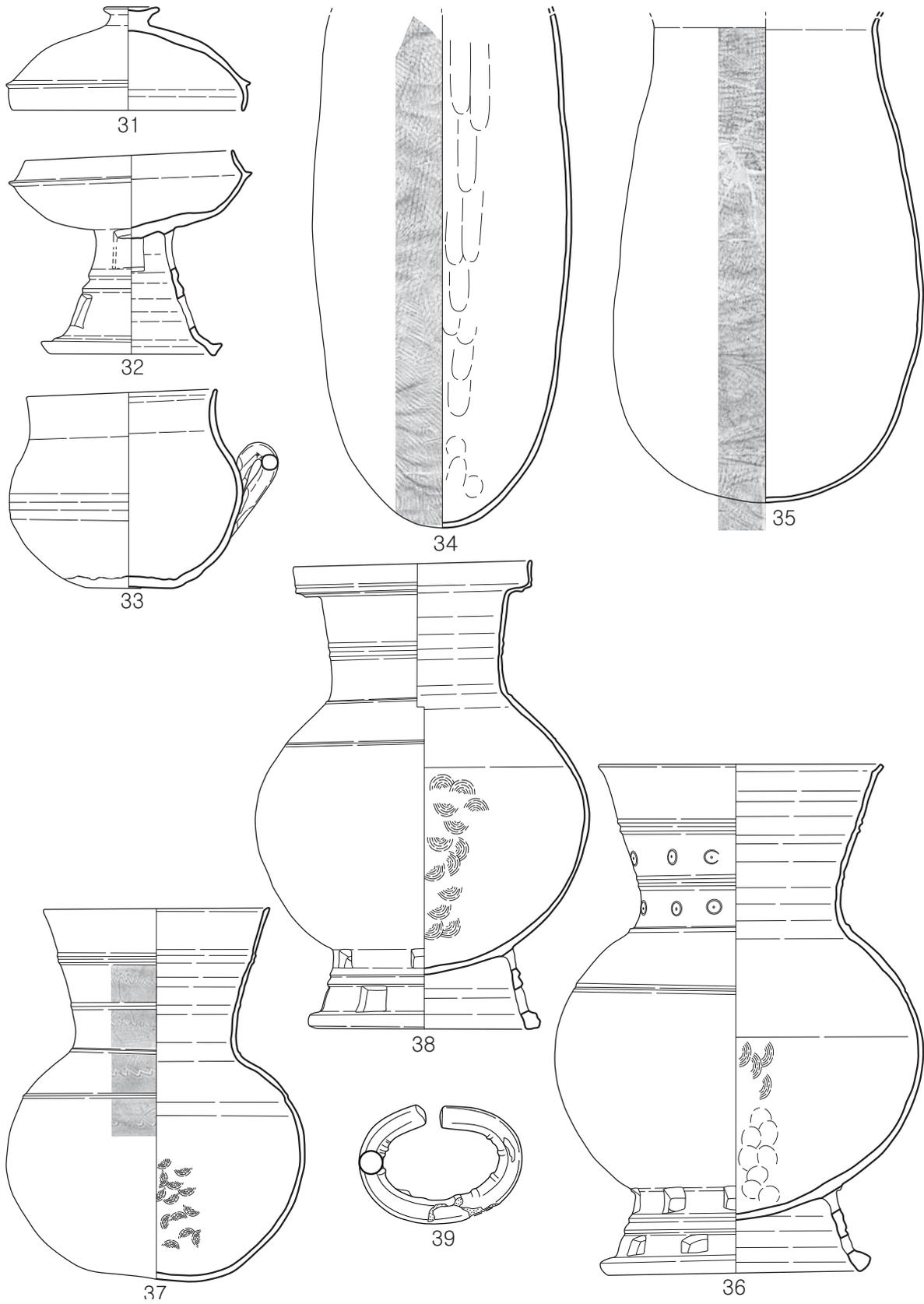
동단벽 아래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단면 회적색(10R 4/2)이다. 경부 2개곳에 각각 2조의 돌대를 돌려 3단으로 구획 후 중단과 하단에 원점문을 시문하였다. 경부와 동체의 경계부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동체의 상부에 1조의 침선을 돌렸다. 기면은 평행타날하여 조정한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타날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면은 저부로부터 중상위까지 내박자흔이 남아 있으며 중상위부터 구연까지는 회전물손질하였으며 녹로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대각 중단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한 후 엇갈리게 장방형의 투창을 9개씩 뚫었다.

기고 : 32.9cm, 구경 : 19.1cm, 저경 : 17.1cm

#### 37. 장경호(도면 15, 도판 21)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이다. 경부 2곳에 2조와 1조의 돌대를 돌려 3단으로 구획한 후 중단과 하단에는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건부와 동체의 경계부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렸고 상·하로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동체 하단 외면에는 목리와 가죽 등을 이용하여 기면을 조정하였고 내면에는 박자흔과 지두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기고 : 25.5cm, 구경 : 15.2cm



도면 15. 3호 석곽묘 출토유물(31~33(S=1/3), 34~35(S=1/5), 36~38(S=1/4), 39(S=1/1))

## 38. 부가구연대부장경호(도면 15, 도판 21)

서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면 회색(N 6/), 외면 회색(N 5/), 단면 암적갈색(10R 3/2)이다. 경부 중앙에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고 견부와 동체의 경계부에는 1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다. 대각의 중앙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한 후 상단과 하단이 교호되도록 방형의 투창 7개를 뚫었다. 경부에는 회전물손질흔이 거칠게 남아 있다. 동체 하단부는 지두 조정하여 성형한 후 물손질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구연까지는 회전물손질하였다.

기고 : 32.0cm, 구경 : 16.1cm, 저경 : 14.2cm

## 39. 세환이식(도면 15, 도판 21)

동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금동제 결상 세환이식이다. 표면 일부가 부풀어 박리된 상태이다. 신부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며, 단면 원형의 붕을 구부러 맞대어 제작하였다. 금피 봉합흔이 확인된다.

길이 : 2.0cm, 너비 : 2.8cm, 지름 : 0.4cm

## 4) 4호 석곽묘

## (1) 유구(도면 16, 도판 8~9)

유적 북동쪽 경계부 가까이에 위치하며 해발 55.5m 선상에 자리한다. 주변으로 1·2·3호 석곽묘가 연결해 있다. 4호 석곽묘의 호석이 1,2,3호 석곽묘의 호석에 연결한 것으로 보아 4호 석곽묘가 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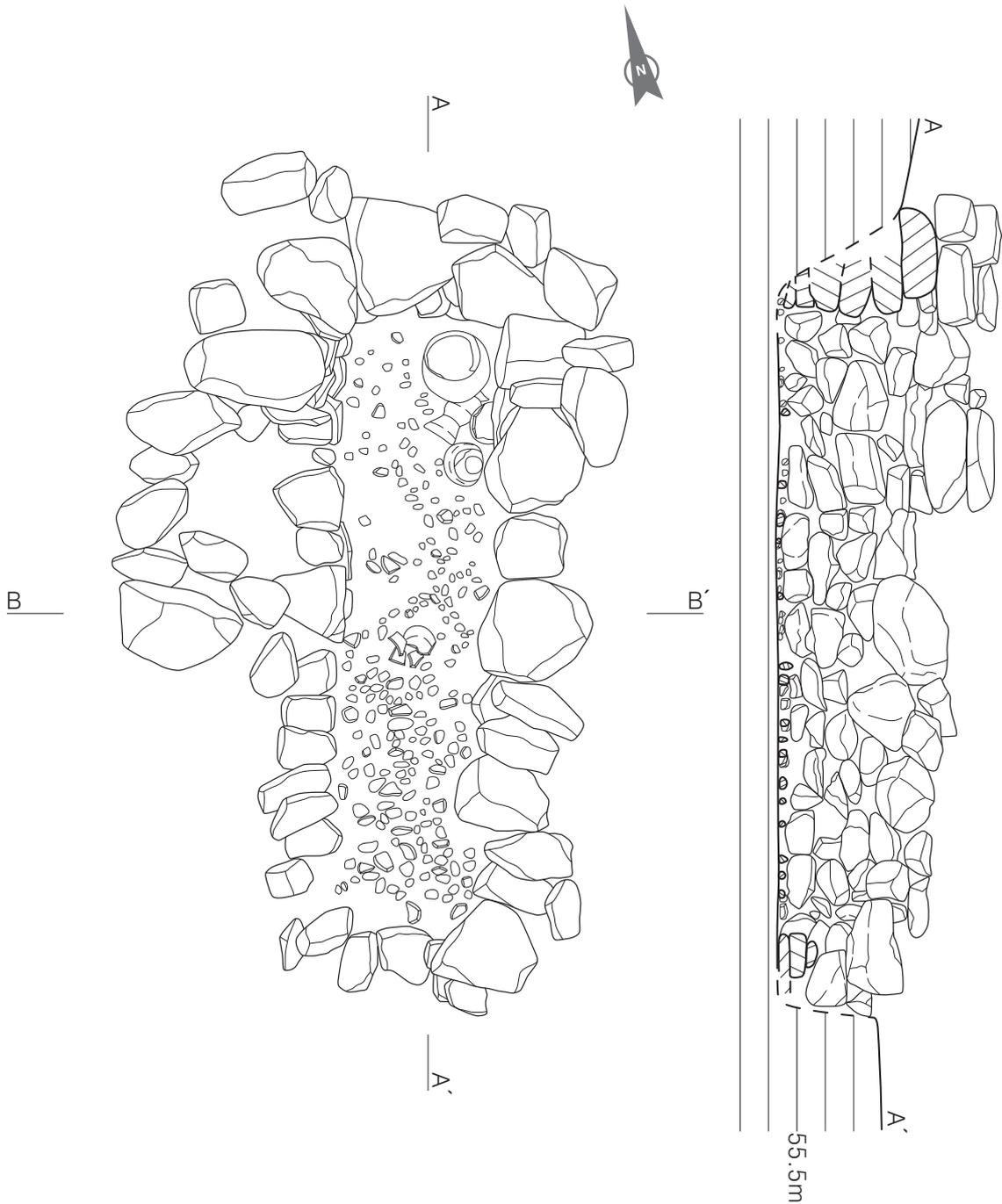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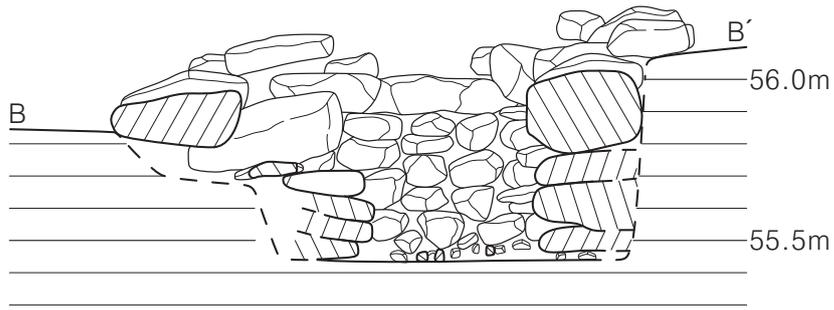
장축방향은 N-76°-E로 등고선 흐름과 평행한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며, 기반층인 풍화암반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306cm, 너비 128cm, 깊이 48cm이며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278cm, 너비 108cm, 깊이 28cm이다. 벽석은 2~5단 정도가 남아 있으며, 서벽과 남벽의 상단은 교란으로 인해 파괴가 심한 상태이다. 10~30cm 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최하단석은 종평적하였으며, 2~4단은 횡평적과 종평적을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최상단은 대체로 횡평적하였다. 시상은 유물부장공간인 북단벽 부분을 제외한 전면에 직경 10cm 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여 깔았지만 조밀하게 깔려 있지는 않다.

유물은 북단벽에서 개, 고배, 연질옹, 유개대부장경호, 호 등 7점, 시상 상부에서 철기 1점이 각각 출토되었는데, 8점이다.

## (2) 유물(도면 17~18, 도판 21)

## 40. 개(도면 17, 도판 21)

북단벽 바닥에서 출토되었으며 꼭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장식 등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면 회색(N 5/), 외면 회색(N 6/), 단면 회적색(10R 4/2)이다. 꼭지 대부분은 결실 되었지만 투창을 3개 뚫은 것이 확인된다. 꼭지 아래에 2조의 침선을 돌린 후 그 사이에



도면 16. 4호 석곽묘 입단면도(S=1:20)

삼각집선문을 시문하였다. 외면 일부에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면은 전반적으로 녹황색의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고 짙흔이 남아 있다.

잔존고 : 5.0cm, 구경 : 11.0cm

#### 41. 개(도면 17, 도판 21)

북쪽 단벽 바닥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배신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운모 등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단면 회색(N 6/)이다. 단추형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고 꼭지에 원형의 투창 3개를 뚫었다. 신부에는 꼭지와 접합흔이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다.

기고 : 5.6cm, 구경 : 11.7cm.

#### 42. 고배(도면 17, 도판 21)

북쪽 단벽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완형이다. 태토는 장식과 운모 등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표면 산화가 심한 편이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이다. 대각에 장방형의 투창 3개를 뚫었다.

기고 : 9.0cm, 구경 : 9.1cm, 저경 : 7.4cm

#### 43. 연질옹(도면 17, 도판 21)

북단벽 아래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 일부와 저부가 남아 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면 탁한황등색(10YR 7/3), 외면 회황색(2.5Y 7/2), 단면 회백색(2.5Y 7/1)이다. 표면 부식이 심한 편이며 녹로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잔존고 : 10.9cm, 저경 : 5.7cm

#### 44. 유개대부장경호(도면 17, 도판 21)

개 - 북단벽 바닥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운모 등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이다.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었으며 꼭지와 신부의 접합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전면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4.8cm, 구경 : 10.0cm, 꼭지경 : 2.1cm

대부장경호 - 북단벽 바닥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와 저부만 남아 있다. 태토는 장식 등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면 회색(N 6/), 외면 회색(N 5/)이다. 견부와 동체의 경계부에는 1조의 침선이 확인된다. 대각 중앙에는 2조의 돌대가 희미하게 남아 있으며 상단과 하단에 방형의 투창을 5개씩 엇갈리게 뚫었다. 동체 하단 외면에는 목리조정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상단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고 : 17.5cm, 저경 : 10.3cm

45. 대부장경호(도면 18, 도판 21)

북단벽 바닥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이다. 경부 2개소에 각각 2조와 1조의 돌대를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다. 견부와 동체의 경계에는 1조의 침선을 돌려 구분하였으며 동체 하단에는 도구 등을 이용하여 깎기조정한 흔적이 확인된다. 기 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 하였다. 대각에는 장방형의 투창을 7개 뚫었다.

기고 : 14.3cm, 구경 : 11.0cm, 저경 : 9.9cm

46. 파수부옹(도면 18, 도판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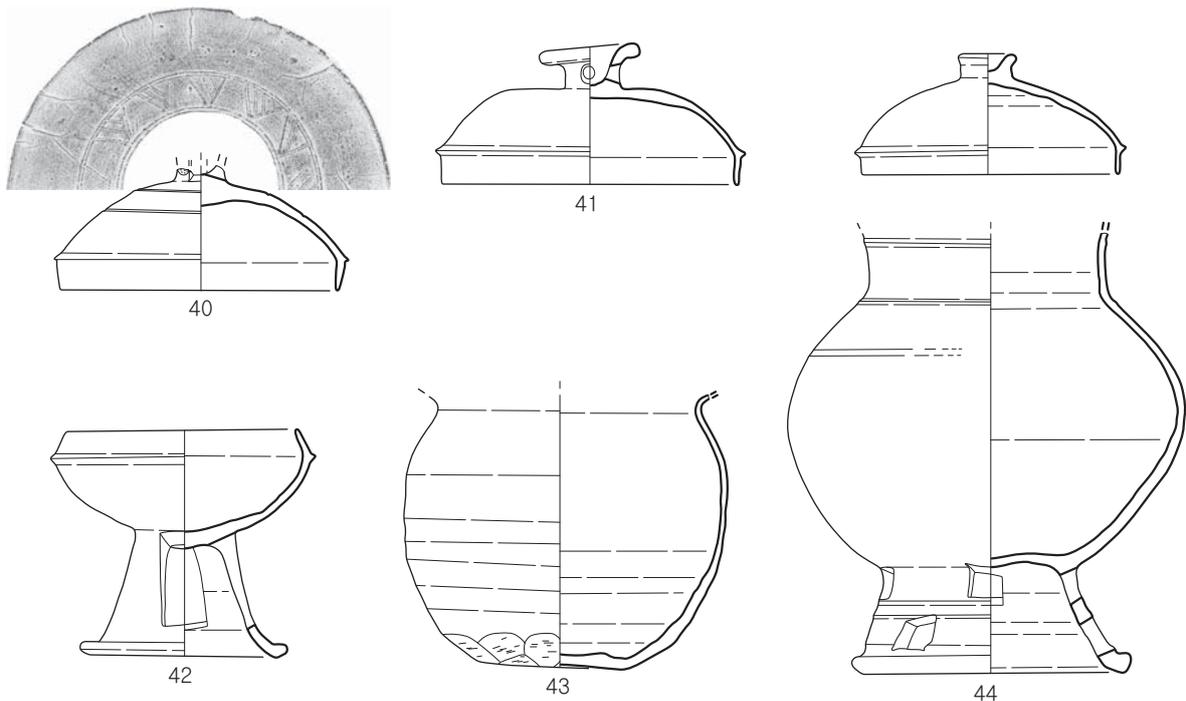
시상 중앙부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의 1/3 정도와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장식 등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4/)이다. 동체 중앙에 1조의 침선을 돌린 후 양쪽에 단면이 원형인 우각형파수를 부착하였으며 한 쪽 파수의 우측 상부에 ‘甘’ 자형의 예새기호가 확인된다. 내·외면 모두 격자타날 후 물손질로 마무리하였으며 구연부는 회전물손질 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기고 : 27.3cm, 추정구경 : 25.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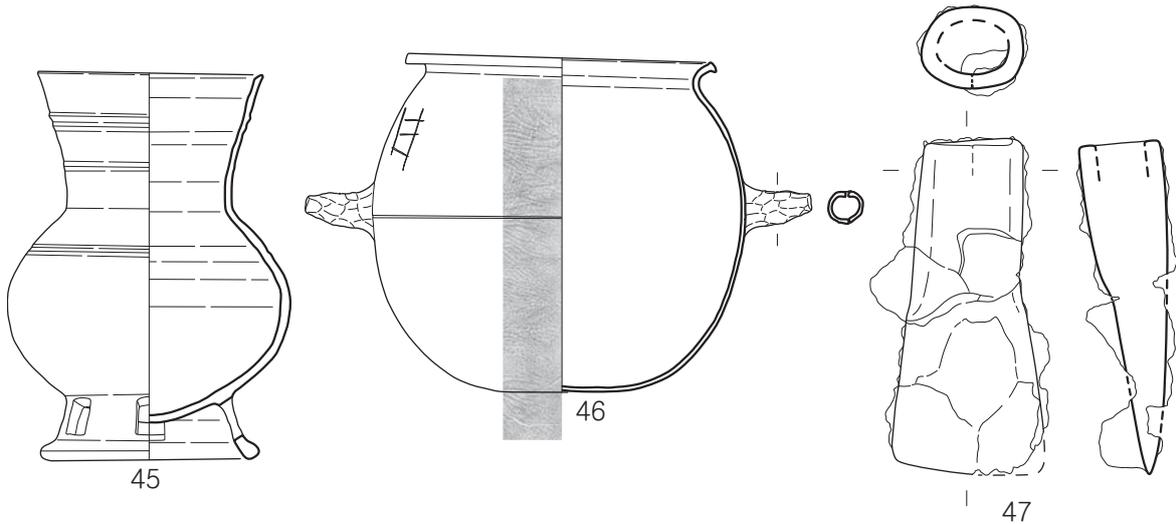
47. 철부(도면 18, 도판 21)

시상 중앙부에서 출토되었으며 산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녹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 공부 단면은 타원형이며, 공부 내면에는 목질이 일부 부착되어 있다.

길이 : 13.8cm, 인부너비 : 4.0cm, 공부너비 : 5.9cm



도면 17. 4호 석곽묘 출토유물(40~43(S=1/3), 44(S=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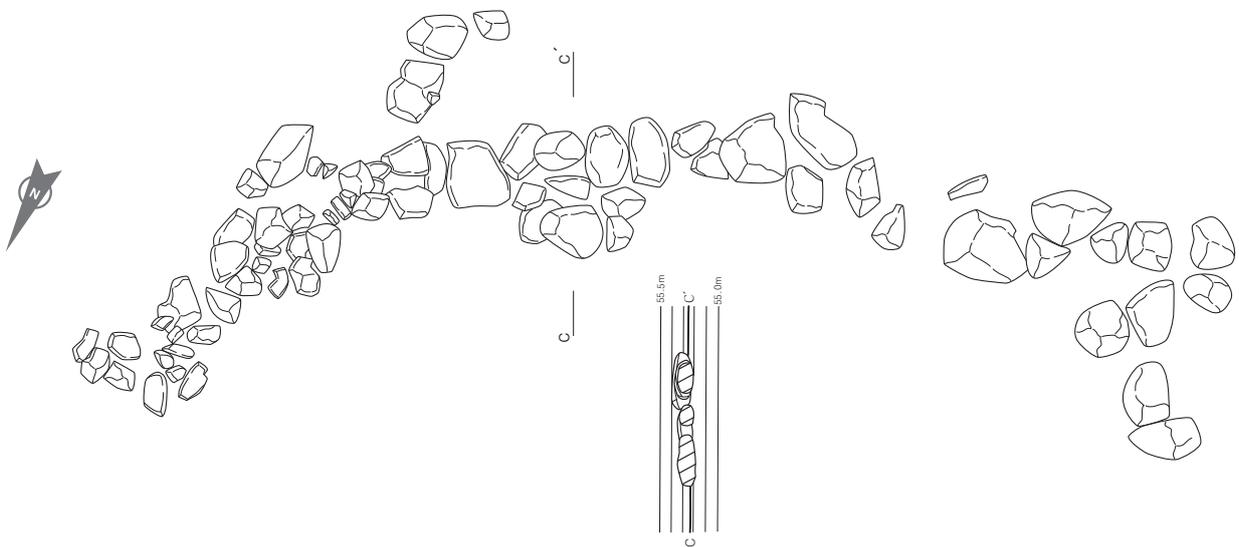


도면 18. 4호 석곽묘 출토유물(45~46(S=1/5), 47(S=1/1))

### 5) 5호 석곽묘

#### (1) 유구(도면 19, 도판 9)

유적 동쪽 경계부에 인접하며 해발 56m 선상에 위치한다. 조사구역 경계에 자리하고 있어 주체부는 확인되지 않고 호석 일부만 확인된다. 호석은 20~40cm내외의 할석을 이용하였고 기반층인 풍화암반토 위에 그대로 올려 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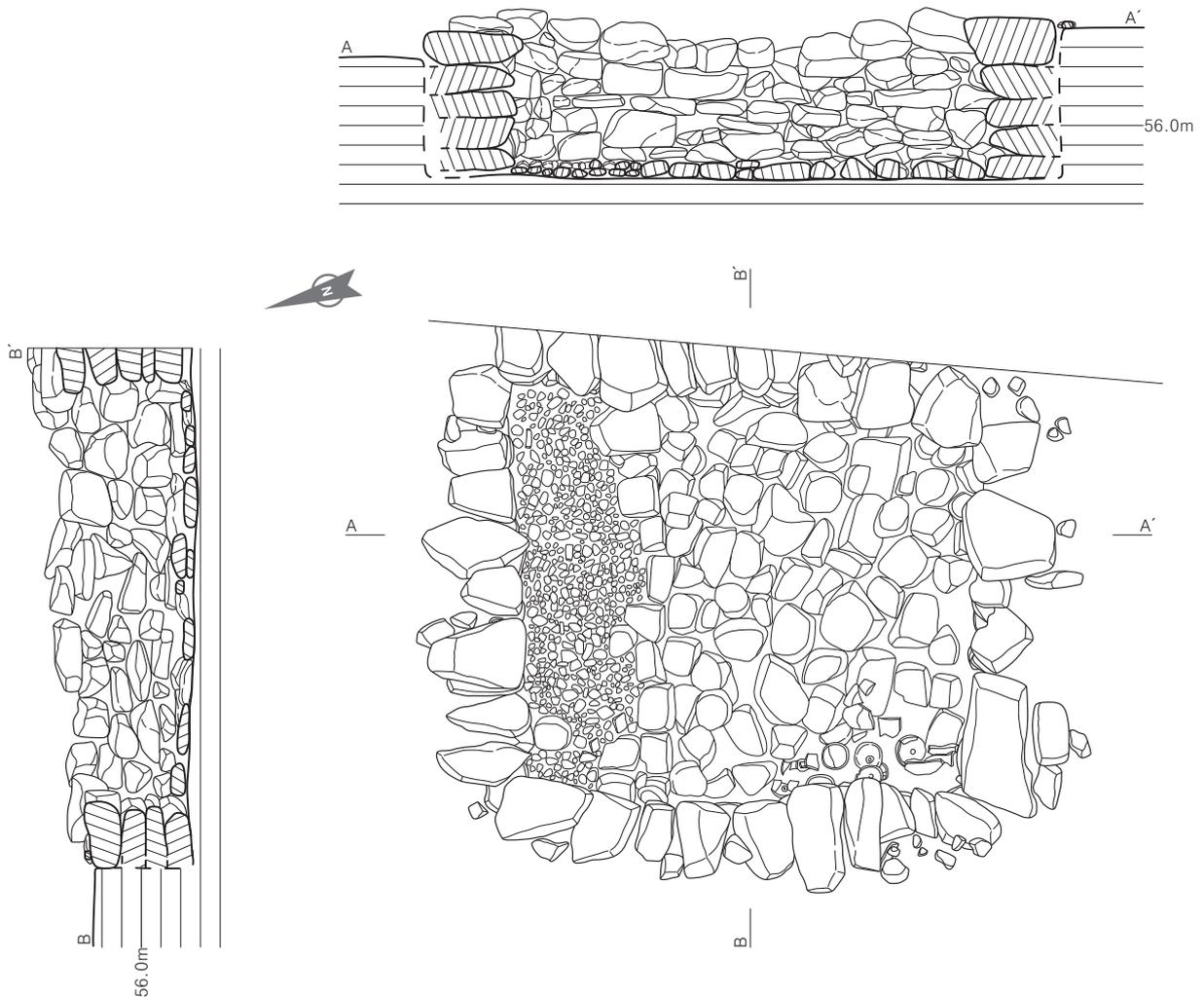
도면 19. 5호 석곽묘 입단면도(S=1:30)

### 6) 1호 석실묘

#### (1) 유구(도면 20, 도판 10~11)

유적에서 동쪽 경계부에 위치하며 해발 56m 선상에 자리한다. 장축방향은 N-78°-E로 등고선 흐름과 평행한다. 동벽은 경계부에 걸쳐있어 일부만 확인된다. 묘방의 평면형태는 정방형이며, 기반층인 풍화

암반토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 한 후, 4~5단의 벽석을 쌓고 벽석 사이에는 황갈, 흑갈색 사질점토를 이용하여 틈을 막음하였다. 벽석 최하단은 종평적하였으며, 2~4단은 횡평적과 종평적을 혼용하여 축조하였다. 최상단은 대체로 종평적하였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36cm, 너비 270cm, 깊이 58cm이다. 시상은 2차에 걸쳐 설치하였다. 1차 시상은 석실 내부에 전체적으로 20~30cm 내외의 납작한 할석을 고르게 깔았다. 유물은 시상 전면에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대부완 등 15점이 출토되었다. 2차 시상은 1차 시상의 북편에 덧대어 축조되었다. 2차 시상 상부에서 금제이식 1점을 포함하여 유개고배, 고배, 대부장경호 등 9점이 출토되었는데 개, 고배 및 호의 편 일부는 복원 불가로 유물에서 제외하였다.



도면 20. 1호 석실묘 입단면도(S=1:30)

(2) 유물(도면 21~23, 도판 21~23)

48. 유개고배(도면 21, 도판 21)

개 - 1차시상 남서벽에서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6/)이다.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었고 전체적으로

녹로흔 및 회전물손질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기고 : 6.1cm, 구경 : 12.3cm, 꼭지경 : 1.8cm

고배 - 1차시상 남서벽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이다. 태토는 장식 등의 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6/)이다. 배신에는 1조의 침선을 돌린 후 상단에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4개씩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11.1cm, 구경 : 10.4cm, 저경 : 8.2cm

#### 49. 유개고배(도면 22, 도판 21)

개 -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완형이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5/)이다.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었고 배신 외면에 돌아가며 2조의 침선을 이용한 삼각형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5.9cm, 구경 : 12.0cm, 꼭지경 : 2.7cm

고배 -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배신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대각이 찌그러졌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단면 회색(N 7/)이며 기면에 전반적으로 흑색 이물질이 형성되어 있다. 배신 외면에 돌아가며 2조의 침선을 이용한 삼각형문을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3개씩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11.6cm, 구경 : 10.2cm, 저경 : 8.7cm

#### 50. 유개고배(도면 21, 도판 21)

개 -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꼭지 1/2과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배신 일부에 기포가 확인된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이고 내면에 황녹색 자연유가 넓게 부착되어 있다. 상부에는 단추형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꼭지의 상면에 초본류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5.9cm, 구경 : 12.2cm, 추정꼭지경 : 2.8cm

고배 -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완형이다. 태토는 장식 등의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6/)이다. 배신 외면에 돌아가며 2조의 침선을 이용한 삼각형문을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3개씩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11.9cm, 구경 : 10.4cm, 저경 : 8.7cm

51. 개(도면 22, 도판 22)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꼭지와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배신 일부에 작은 기포가 다수 확인된다. 색조는 내·단면 회백색(N 7/), 외면 회색(N 6/)이다. 상부에 꼭지 부착흔이 있으며 신부의 상부와 끝부분에는 각각 7조, 4조의 침선을 돌린 후 그 사이에 치마를 입은 여자상을 돌아가며 6개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고 : 7.7cm, 구경 : 17.7cm이다.

52. 개(도면 22, 도판 22)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단면 회백색(N 7/), 외면 회색(N 6/)이다. 상부에 보주형의 꼭지가 부착되었는데 꼭지의 상면은 4개의 단이 지도록 성형하였다. 신부에는 상단에서 시작하여 하단까지 1조의 침선을 돌려가며 나선문을 시문하였다. 배신 외면에는 전반적으로 자연유가 얇게 형성되어 있다.

기고 : 7.5cm, 구경 : 13.9cm, 꼭지경 : 3.6cm이다.

53. 개(도면 22, 도판 22)

1차시상 남서쪽에서 구연 및 배신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배신 내면 일부에 기포가 확인된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회적색(10R 4/2)이다. 신부 외면에 꼭지 아래에서 시작하여 신부 중앙까지는 끝이 예리한 1조의 침선을 이용한 나선문을 시문하였고 그 아래에 1조의 침선을 이용한 나선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6.8cm, 구경 : 13.1cm, 꼭지경 : 3.0cm

54. 고배(도면 22, 도판 22)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신부, 대각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표면 부식이 심한 편이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6/)이다. 대각에는 장방형의 투창을 3개 뚫었다. 기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여 정면하였으며 대각에는 녹로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기고 : 9.0cm, 구경 : 9.7cm, 저경 : 7.6cm

55. 고배(도면 22, 도판 22)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표면 부식이 심한 편이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이다. 신부 외면에는 돌아가며 2조의 침선을 이용한 삼각형문을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

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상단에 장방형, 하단에 방형의 투창을 엇갈리게 3개씩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12.6cm, 구경 : 10.7cm, 저경 : 8.8cm

#### 56. 고배(도면 22, 도판 22)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표면 부식이 심한 편이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백색(N 7/)이다. 신부 외면에는 돌아가며 2조의 침선을 이용한 삼각형문을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3개씩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12.2cm, 구경 : 10.9cm, 저경 : 8.2cm

#### 57. 파수대부배(도면 22, 도판 22)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배신 일부와 파수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회색(N 4/), 단면 암적갈색(10R 3/2)이다. 외면 일부에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구연과 신부 경계 지점에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신부 두 곳에 각각 1조의 돌대를 돌려 3단으로 구획한 후 한 쪽에 피상의 파수를 1개 부착하였다. 저부에는 대각의 접합력을 높이기 위해 새긴 침선이 확인되며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5개씩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13.3cm, 구경 : 10.0cm, 저경 : 8.2cm

#### 58. 파수부옹(도면 22, 도판 22)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구연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석영 및 장석 등의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황등색(10YR 8/3)이다. 동체 상부에는 타날흔이 약하게 남아 있으며 저부는 깎기조정 후 물손질하였다. 동체 중앙에는 손으로 주물러 만든 우각형파수 1개가 부착되어 있다. 구연부 외면에 마연흔과 유사한 기면조정흔이 확인되고, 물손질로 마무리 하였다.

기고 : 11.2cm, 구경 : 12.5cm, 저경 : 6.8cm

#### 59. 대부장경호(도면 22, 도판 22)

1차시상 남서벽에서 출토된 부가구연대부장경호이다. 구연 및 경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단면 회백색(N 7/)이다. 기면 일부에 황녹색의 자연유가 얇게 형성되어 있다. 부가구연의 형태이며 경부 중앙에는 1조의 돌대를 돌린 후 상·하단에 다치구를 이용한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동체 하단부는 손으로 주물러서 성형하여 지두흔이 남아 있다. 저부에는 대각 접합 후 회전물손질로 마무리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대각에는 장방형의 투창 7개를 뚫었다. 대각의 바닥면에서 초본류의 흔적이 확인되며 다른 토기의 구연 부편과 슬래그가 흡착된 부분이 있다. 동체 중앙부터 구연까지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기고 : 21.9cm, 구경 : 12.1cm, 저경 : 11.8cm

#### 60. 대부장경호(도면 23, 도판 22)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장식과 운모 등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암적갈색(10R 4/3)이다. 경부 두 곳에 각각 2조의 돌대를 돌려 3단으로 구획한 후 중·하단에 2열의 원점문을 교호되도록 시문하였다. 동체 상부에 1조의 침선을 돌려 단을 구획한 후 상부 중앙에 2조의 침선을 두른 후 침선 사이에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저부에는 대각의 접합력을 높이기 위한 침선을 새긴 후 대각을 접합하였으며 회전목리조정으로 마무리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8개씩 뚫었다. 동체의 하부는 지두조정 후 물손질로 마무리하였으며 동중위부터 구연까지는 회전물손질로 성형 및 정면하였다.

기고 : 42.4cm, 구경 : 23.5cm, 저경 : 21.3cm

#### 61. 대부장경호(도면 23, 도판 22)

1차시상 남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암적갈색(10R 4/3)이다. 경부에 두 곳에 각각 2조의 돌대를 돌려 단을 구획한 후 중·하단에 2열의 원점문을 교호하게 시문하였고 원점문 사이에 어골문을 시문하였다. 견부와 동체부의 경계지점에 1조의 침선을 돌린 후 견부 중앙에 2조의 침선을 두르고 침선 사이에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7개씩 뚫었다. 기내·외면은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40.7cm, 구경 : 20.9cm, 저경 : 19.2cm

#### 62. 부가구연대부장경호(도면 23, 도판 22)

2차시상 북동쪽에서 출토된 부가구연대부장경호이다. 전반적으로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태토는 장식 등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암적갈색(10R 3/2)이다. 경부 두 곳에 1조의 돌대를 돌려 3단을 구획한 후 상단과 하단에 삼각중호문을 시문하였다. 견부와 동체 상부에 2조의 침선을 돌린 후 그 사이에 삼각중호문을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8개씩 뚫었다. 외면은 목리조정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내면에는 짐선문의 내박자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기고 : 41.6cm, 구경 : 22.5cm, 저경 : 20.9cm

## 63. 단경호(도면 23, 도판 23)

2차시상 북동쪽에서 출토되었으며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장석 등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암적갈색(10R 3/3)이다. 소성 시 받침흔적이 3군데 확인되고 내면에는 내박자흔과 도구 등을 사용한 조정흔이 남아 있다.

기고 : 46.0cm, 구경 : 27.1cm

## 64. 세환이식(도면 23, 도판 23)

2차시상 북동쪽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의 금동제 결상 세환이식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구부러 맞대어 제작하였다. 금피 봉합흔이 확인된다.

길이 : 2.3cm, 너비 : 2.3cm, 지름 : 0.4cm

## 65. 세환이식(도면 23, 도판 23)

2차시상 북동쪽에서 출토되었으며 1/2 정도 잔존하는 금동제 결상 세환이식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구부러 맞대어 제작하였다. 금피 봉합흔이 확인된다.

추정길이 : 2.2cm, 잔존너비 : 2.3cm, 지름 : 0.4cm

## 66. 철도(도면 23, 도판 23)

2차시상 북쪽 중앙부에서 출토되었으며 신부 및 스페 일부가 결실되었다. 표면에 부분적으로 녹이 부풀어 있다. 신부의 등은 직선이고 신부의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며 스페의 단면은 제형이다. 인부 말단과 스페 일부에 목질흔이 남아 있다.

길이 : 45.2cm, 너비 : 2.6cm, 두께 : 0.7cm

## 67. 도자(도면 23, 도판 23)

2차시상 북쪽 중앙부에서 출토되었으며 신부의 일부가 결실되었고 판상의 철제금구 일부가 잔존한다. 신부의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스페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스페와 신부 일부에 유기질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 14.7cm, 너비 : 1.9cm, 두께 : 0.4cm

## 68. 도자(도면 23, 도판 23)

2차시상 북쪽 중앙부에서 출토되었으며 스페와 신부 일부가 잔존한다. 신부의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고 스페의 단면은 장방형이다. 스페에 목질흔이 수착되어 있다.

잔존길이 : 11.7cm, 너비 : 1.9cm, 두께 : 0.4cm

## 69. 철검(도면 23, 도판 23)

2차시상 북쪽 중앙부에서 출토되었으며 기부와 인부 일부가 잔존한다. 신부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며 기부는 L자형으로 추정된다.

잔존길이 : 7.8cm, 너비 : 2.9cm, 두께 : 0.4cm

70. 철경(도면 23, 도판 23)

2차시상 북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인부 일부가 잔존한다. 신부의 단면은 이등변삼각형이며 기부의 형태는 알 수 없다.

잔존길이 : 10.9cm, 너비 : 1.8cm, 두께 : 0.4cm

71. 유자이기(도면 23, 도판 23)

2차시상 북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신부 일부 및 공부가 잔존한다. 공부는 등글게 말아서 제작하였으며 단면은 원형이다.

잔존길이 : 6.5cm, 너비 : 3.3cm, 두께 : 0.3cm

72. 철촉(도면 23, 도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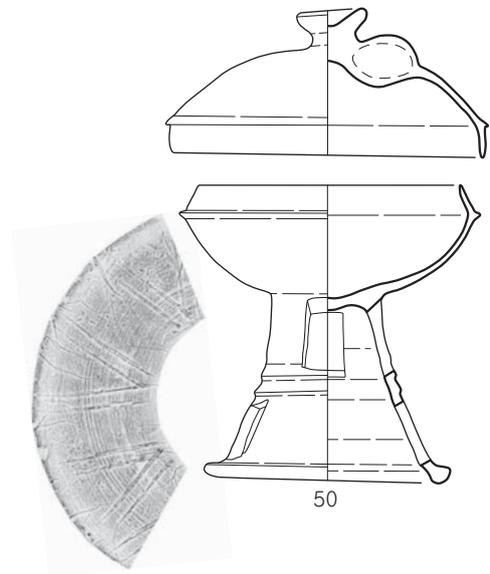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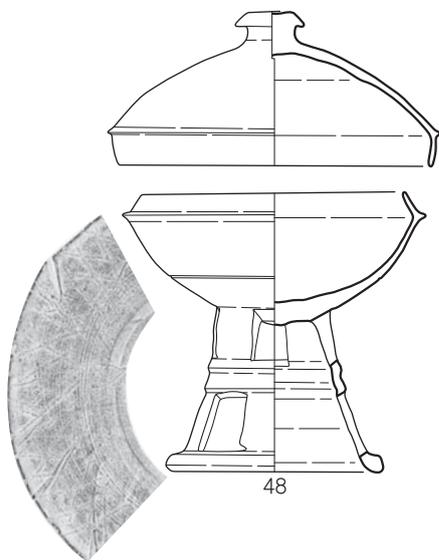
2차시상 북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기부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신부는 사두형이며, 단면은 볼록렌즈형이다. 경부 단면은 장방형이다.

잔존길이 : 5.7cm, 너비 : 1.3cm, 두께 : 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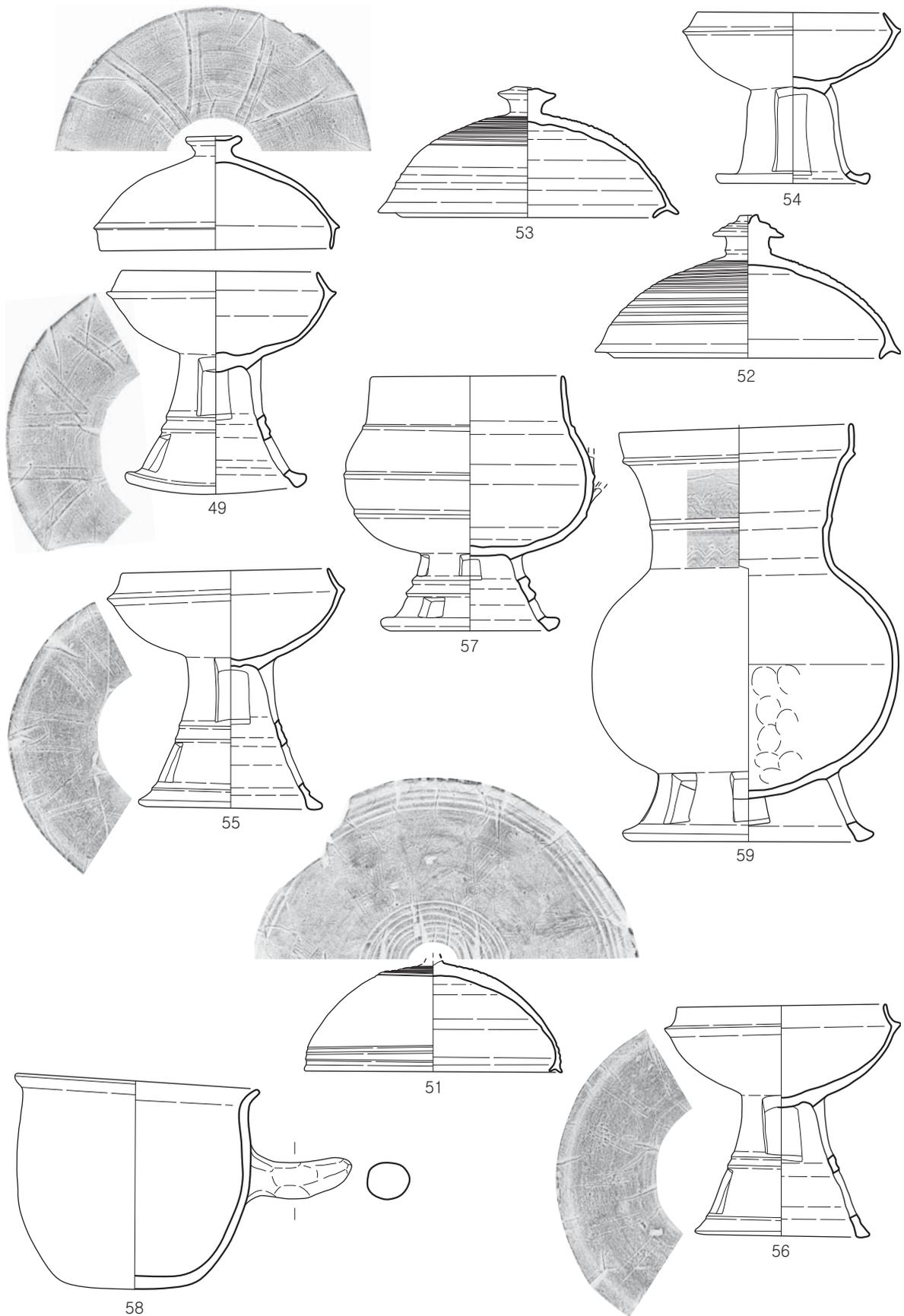
73. 철부(도면 23, 도판 23)

2차시상 북서쪽에서 출토되었으며 인부가 모두 결실되었다. 공부의 단면은 거의 원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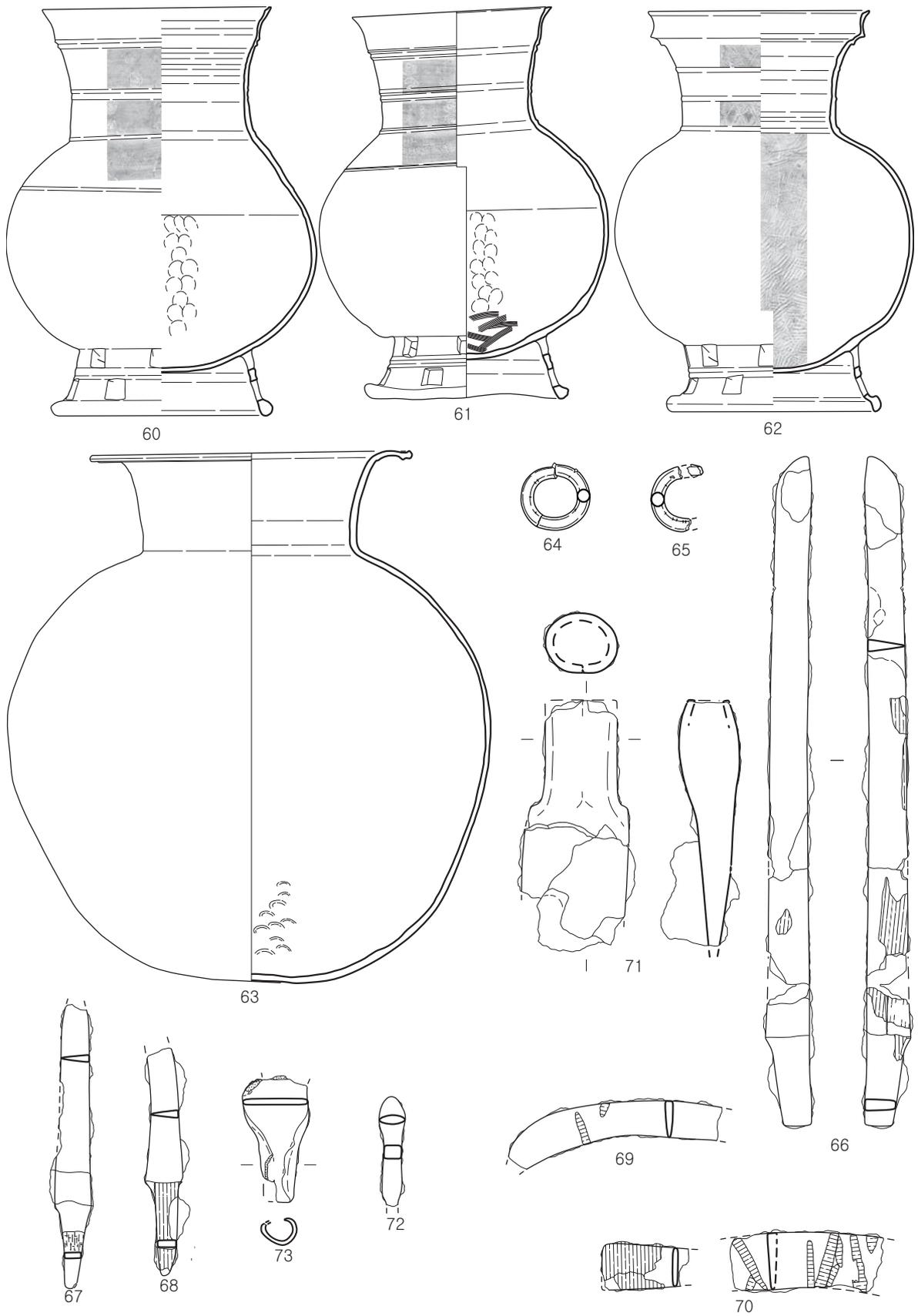
잔존길이 : 12.9cm, 인부너비 : 3.7cm, 공부너비 : 5.4cm



도면 21. 1호 석실묘 출토유물(48, 50(S=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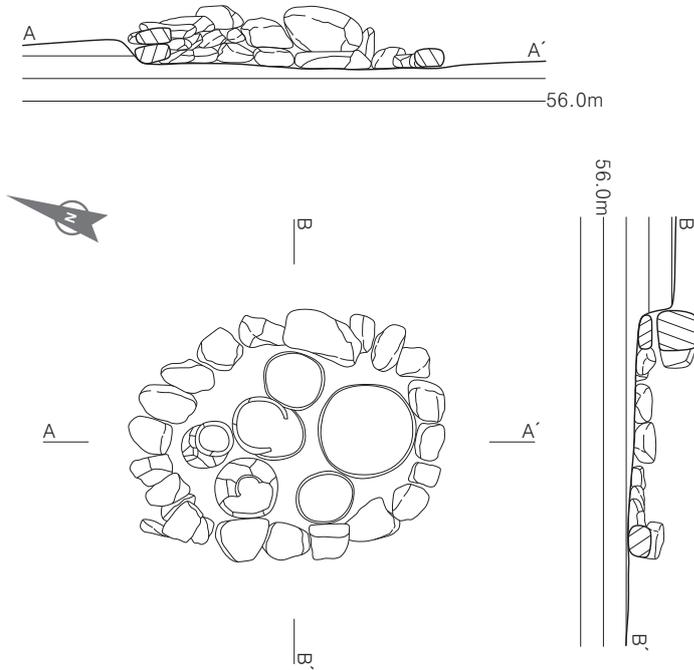
도면 22. 1호 석실묘 출토유물(49, 51~59(S=1/3))



도면 23. 1호 석실묘 출토유물(60~62(S=1/6), 63(S=1/4), 64~65(S=1/2), 66(S=1/4), 67~73(S=1/3))

## 7) 1호 의례유구

## (1) 유구(도면 24, 도판 14)



1호 석실묘의 남서편으로 약 70cm 이격된 곳에 자리하며, 해발 56m 지점에 해당한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굴착면의 가장자리를 따라 할석이 돌려져 있다. 벽석은 1~3단정도 잔존하며 북편은 3단, 남편은 1단이 남아있다. 규모는 직경 108~144cm, 깊이 20cm이다. 유물은 유개고배, 개, 고배, 대부장경호 등이 출토되었는데 단경호의 편 일부는 복원 불가로 유물에서 제외하였다.

도면 24. 1호 의례유구(1:20)

## (2) 유물(도면 25~26, 도판 23)

## 74. 유개고배(도면 26, 도판 23)

개 - 구연 및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암적갈색(10R 3/2)이다. 상부에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어 있다. 신부 중앙에 1조의 침선을 돌려 구획 후 하단에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4.9cm, 구경 : 10.5cm, 꼭지경 : 3.7cm

고배 - 완형으로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이다. 신부 중앙에 1조의 침선을 돌려 구획 후 상단에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3개씩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9.9cm, 구경 : 10.1cm, 저경 : 7.3cm

## 75. 개(도면 26, 도판 23)

꼭지 및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6/)이다. 상부에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어 있다. 신부 외면에 목리조정흔이 뚜렷

하게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5.4cm, 구경 : 11.7cm, 꼭지경 : 3.0cm

76. 고배(도면 26, 도판 23)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포함된 태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6/)이다. 대각 중앙에 2조의 돌대를 돌린 후 상·하단이 교호되도록 장방형의 투창을 4개씩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10.8cm, 구경 : 9.9cm, 저경 : 7.8cm

77. 대부직구호(도면 25, 도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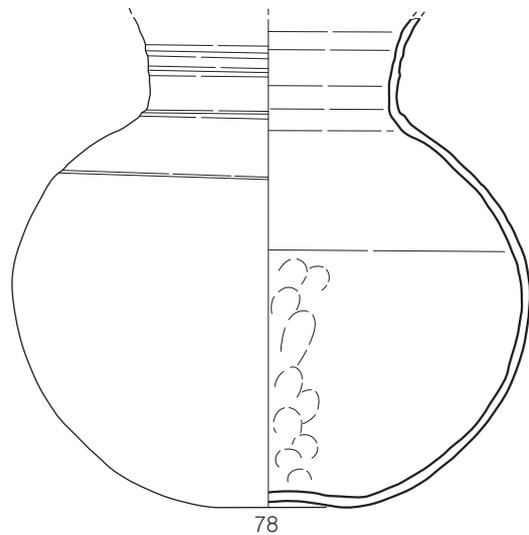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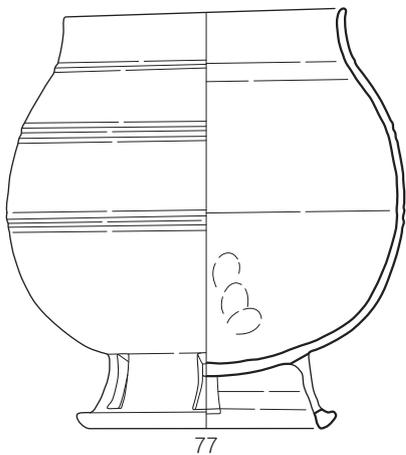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면 회색(N 6/), 외·단면 회색(N 5/)이다. 견부와 동체 경계지점에 1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동체부 두 곳에 각각 2조의 돌대를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다. 대각에 장방형의 투창 5개를 뚫었다. 동체 하단은 지두조정 및 박자흔이 확인되며 동체 중앙부터 구연까지는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22.3cm, 구경 : 14.8cm, 저경 : 1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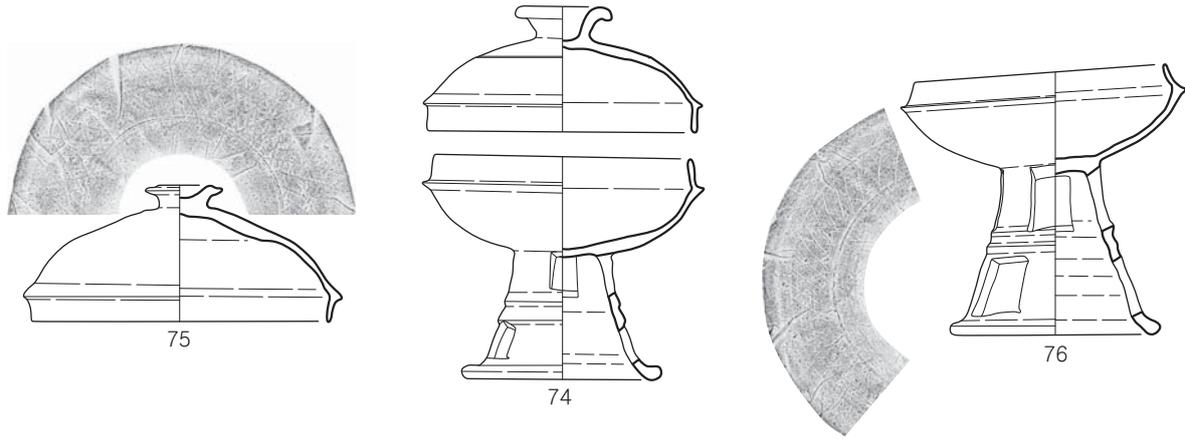
78. 단경호(도면 25, 도판 23)

견부 일부와 동체부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저부에 기포가 형성된 곳이 있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단면 암적갈색(2.5YR 3/3)이고 견부 상면에 녹황색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견부와 동체의 경계지점에 1조의 침선을 돌려 구분하였다. 동체 하단 외면에는 지두조정흔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집선문의 내박자흔과 지두조정흔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잔존고 : 2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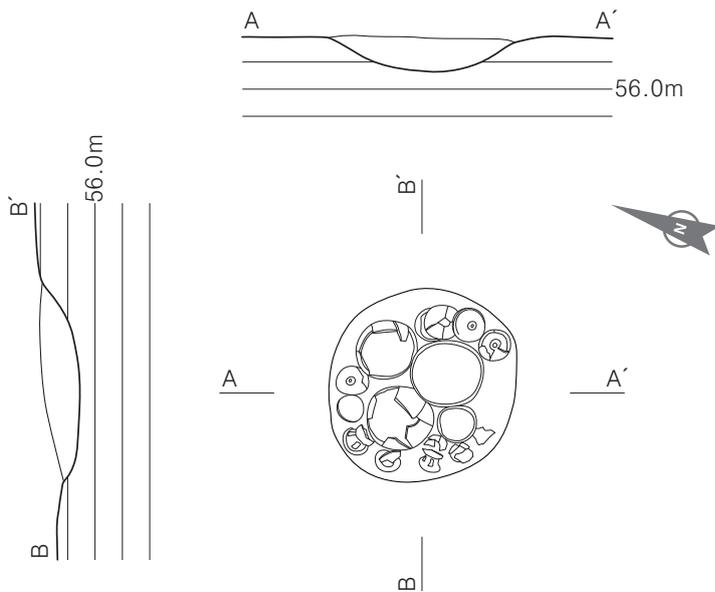


도면 25. 1호 의례유구 출토유물(77~78(S=1/4))



도면 26. 1호 의례유구 출토유물(74~76(S=1/3))

### 8) 2호 의례유구



도면 27. 2호 의례유구 입단면도(S=1:20)

#### (1) 유구(도면 27, 도판 15)

1호 석실묘의 남편으로 약 300cm 이격된 곳에 자리하며 해발 56m 지점에 해당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수혈을 파고 유물을 안치하였다. 규모는 직경 70cm, 깊이 12cm이다. 유물은 유개고배, 고배, 대부호, 연질옹 등이 출토되었는데 호 편 등은 복원 불가로 유물에서 제외하였다.

#### (2) 유물(도면 28~29, 도판 23~24)

##### 79. 개(도면 28, 도판 23)

구연 및 꼭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기포가 확인된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단면 암적갈색(10R 3/2)이다. 신부 상단에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어 있으며 외면 상부에 자연유가 형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5.4cm, 구경 : 8.5cm, 꼭지경 : 2.6cm

80. 고배(도면 28, 도판 23)

구연 및 배신의 2/3 정도가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전반적으로 회색(N 6/)이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3개씩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8.7cm, 추정구경 : 11.2cm, 저경 : 7.3cm

81. 파수부옹(도면 28, 도판 23)

구연부 및 동체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탁한적갈색(2.5YR 4/3), 단면 명적갈색(2.5YR 5/6)이다. 동체 외면 하단부에는 격자타날문이 시문되었으며 동중위와 상부에 각각 3조의 침선을 돌린 후 그 사이에 양쪽으로 우각형파수를 부착하였다. 내면에는 전면에서 집선문의 내박자흔과 지두조정흔이 확인된다.

기고 : 20.3cm, 구경 : 16.8cm, 저경 : 6.4cm

82. 대부호(도면 29, 도판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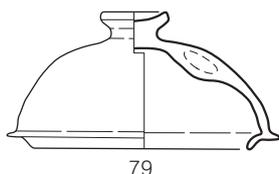
동체부와 대각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저부에 기포가 다수 형성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단면 흑갈색(10R 2/1)이며 외면의 상당부분이 부식되었다. 저부는 지두조정하였으며 중위부터 상부로는 회전물손질로 성형 및 정면하였다. 견부와 동체부의 경계지점에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대각에는 장방형의 투창을 5개 뚫었다.

잔존고 : 22.0cm, 저경 : 1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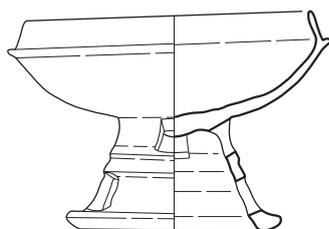
83. 단경호(도면 29, 도판 24)

전체적으로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황회색(2.5Y 6/1), 단면 회백색(2.5Y 7/1)이다. 동체부 전면에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내면에는 집선문의 내박자흔과 지두조정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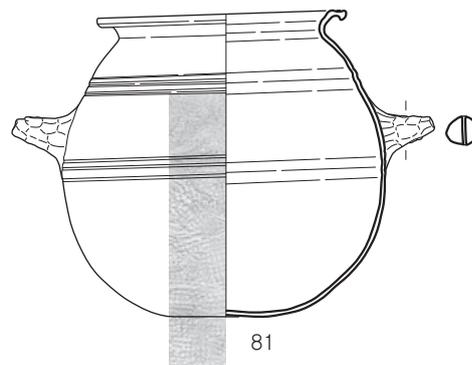
기고 : 29.5cm, 구경 : 20.1cm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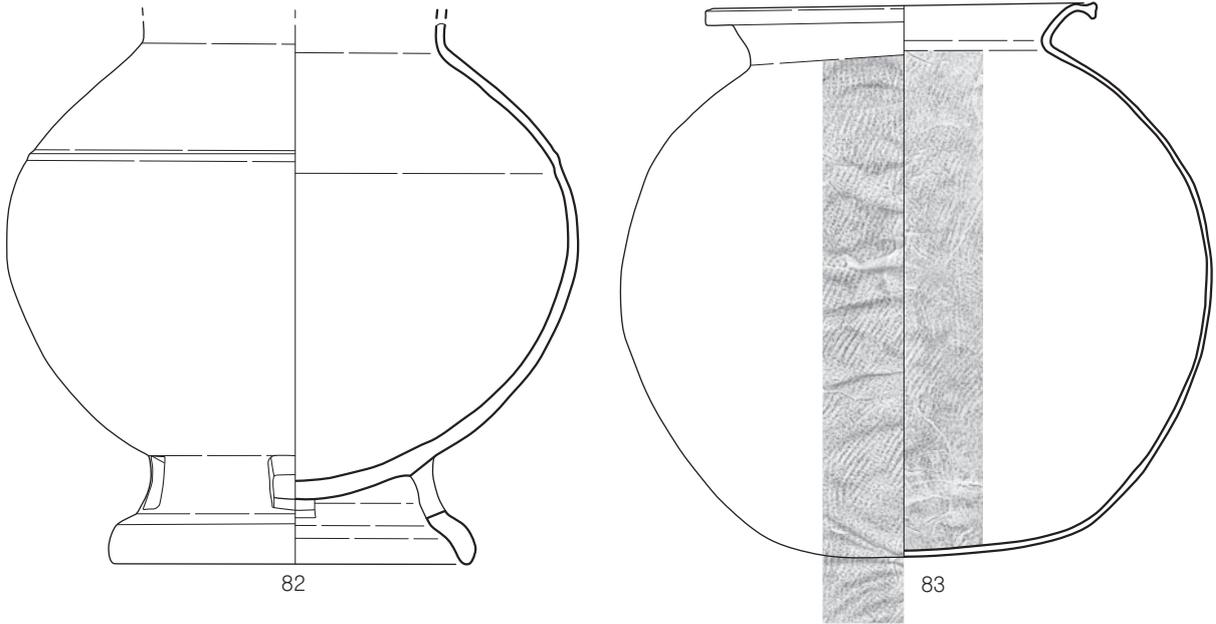


80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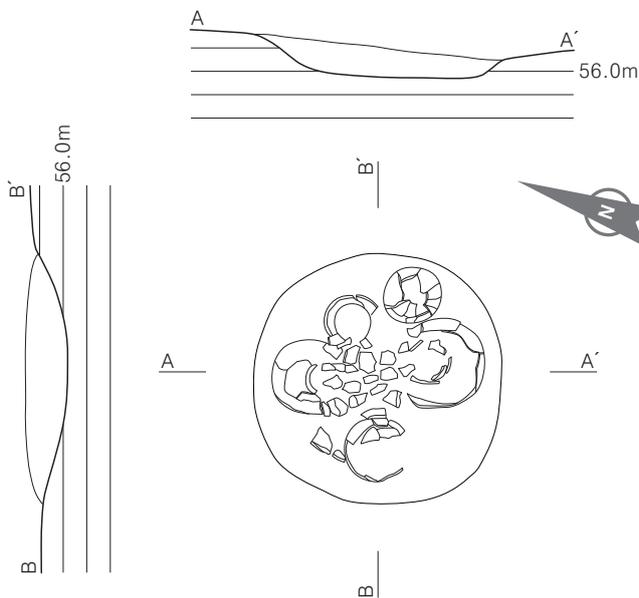
도면 28. 2호 의례유구 출토유물(79~80(S=1/3), 81(S=1/5))



도면 29. 2호 의례유구 출토유물(82~83(S=1/3))

### 9) 3호 의례유구

#### (1) 유구(도면 30, 도판 16)



도면 30. 3호 의례유구 입단면도(S=1/20)

는 전반적으로 회색(N 6/)이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4개씩 뚫었다.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 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 10.9cm, 구경 : 9.8cm, 저경 : 8.0cm

1호 석실묘의 남편으로 약 350cm 이격된 곳에 자리하며 해발 56m 지점에 해당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수혈을 파고 유물을 안치하였다. 규모는 길이 106cm, 너비 106cm, 깊이 11cm이다. 유물은 연질옹, 파수부옹, 단경호, 호 등이 출토되었다.

#### (2) 유물(도면 31, 도판 24)

##### 84. 고배(도면 31, 도판 24)

구연 및 배신 일부가 결실되었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

85. 대부호(도면 31, 도판 24)

동체와 대각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단면 회색(N 5/)이다. 대각은 접합력을 높이기 위해 침선을 새긴 후 접합한 후 회전물손질로 마무리하였다. 견부와 경부의 경계지점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대각 중앙부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획하였으며 구획된 상·하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엇갈리게 7개씩 뚫었다. 저부는 테쌓기하여 지두조정후 외면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동중위부터 위로가면서 회전물손질로 성형 및 정면하였다.

잔존고 : 27.6cm, 저경 : 16.4cm

86. 장경호(도면 31, 도판 24)

구연 및 경부의 1/2 정도가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외면 회적색(2.5YR 4/2)이다. 동체 상단에는 1조의 돌대를 약하게 돌렸다. 외면에 전체적으로 중집선문의 타날 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여 타날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내면은 하단에는 지두조정후 및 내박자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중상위부터 구연까지는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된다.

기고 : 30.9cm, 추정구경 : 19.7cm

87. 파수부단경호(도면 31, 도판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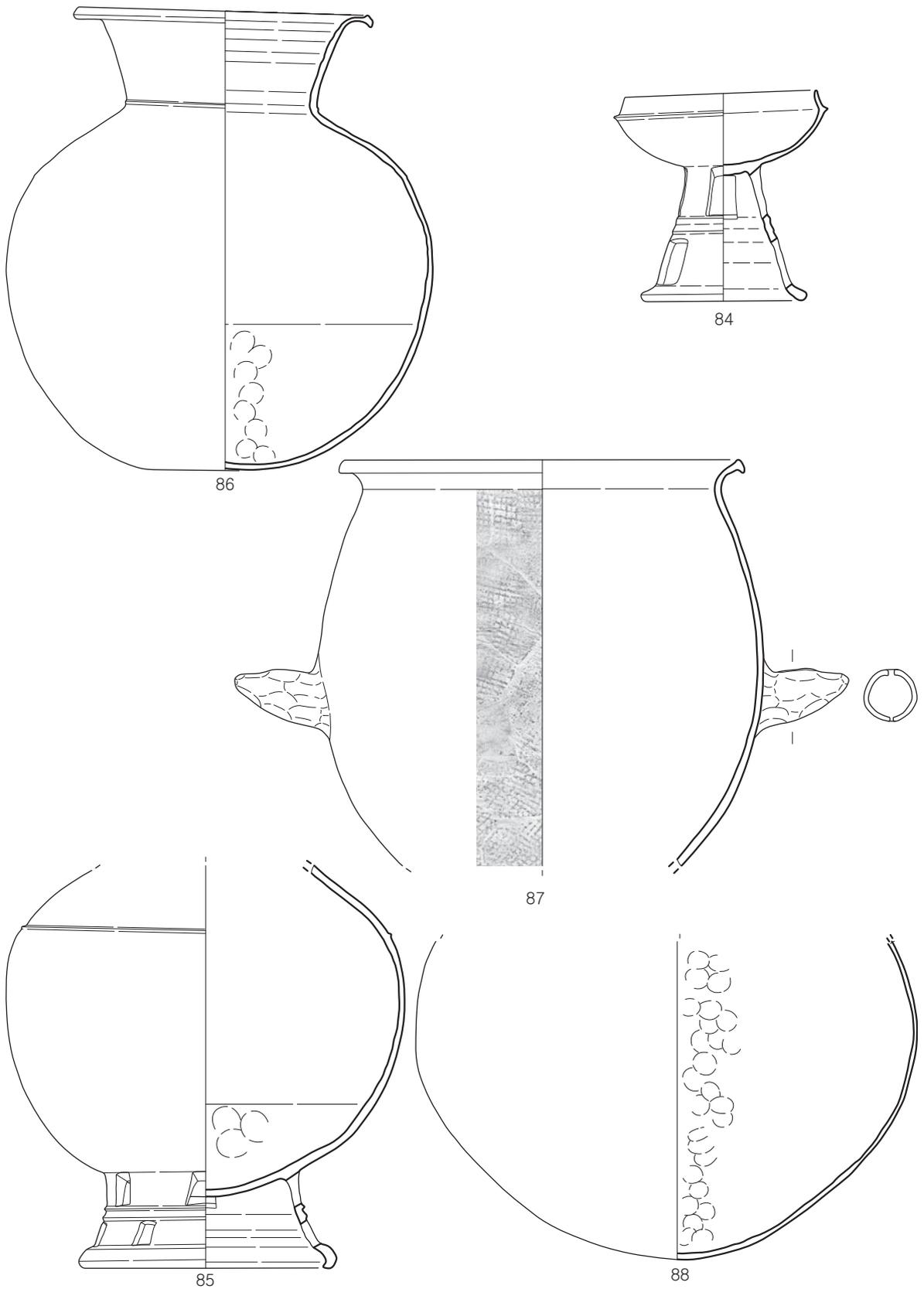
구연 및 동체 일부와 저부, 파수 1개가 결실되어 도상복원하였다. 태토는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외면 등색(5YR 6/6)이다. 동체 중앙부에 1조의 침선을 돌린 후 그 위에 단면 원형의 우각형파수를 양쪽으로 부착하였으나 1개는 결실되어 흔적만 남아 있다. 외면은 격자타날 후 구연부는 회전물손질하였고 내면에는 격자문의 내박자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기고 : 27.9cm, 추정구경 : 26.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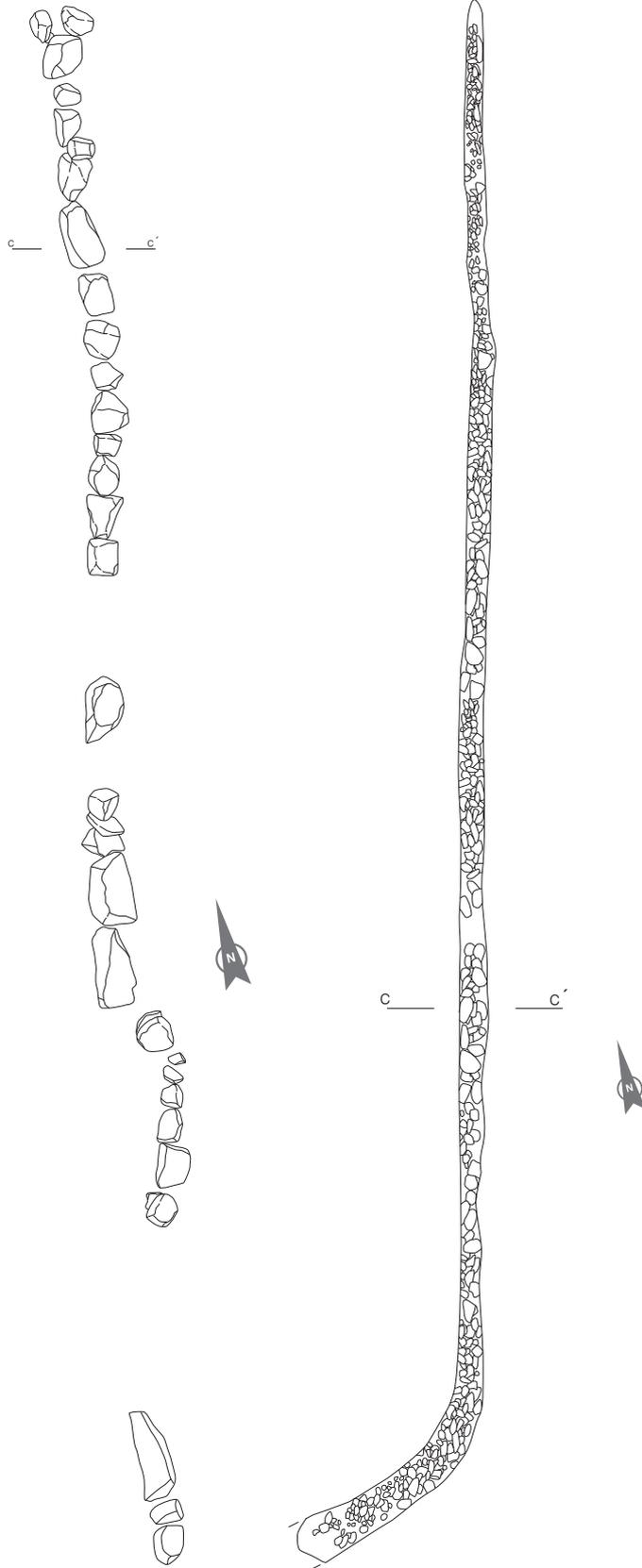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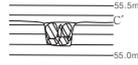
88. 호(도면 31, 도판 24)

동체의 2/3 정도만 잔존한다. 태토는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색조는 내면 회색(N 5/), 외면 회색(N 6/), 단면 암적갈색(5YR 3/2)이다. 외면에 전반적으로 타날 후 회전물손질하여 타날흔이 약하게 잔존하며 내면에는 지두조정후, 물손질흔, 내박자흔이 확인된다.

잔존고 : 27.7cm



도면 31. 3호 의례유구 출토유물(84(S=1/3), 85~87(S=1/4), 88(S=1/5))



### 1) 1호 건물지 기단

#### (1) 유구(도면 32, 도판 17)

유적에서 중앙부 해발 56m 선상에 위치한다. 1,2,3호 석곽의 호석을 일부 파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물지의 기단으로 추정되며 남북 방향으로 석렬이 약 450cm 확인된다. 기단 이외의 다른 구조물은 확인되지 않고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 3. 시대미상

### 1) 1호 구상유구

#### (1) 유구(도면 33, 도판 17)

유적에서 중앙부 해발 56m 선상에 위치한다. 조선시대 1호 건물지 기단의 서편에 인접해 있다. 내부에 5~10cm내외의 할석으로 전구간 채워져 있다. 조사결과 내부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조각 등이 확인되어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32. 1호 건물지 평면도(S=1:50)    도면 33. 1호 구상유구 평면도(S=1:40)

## IV. 고찰

울산 중산동(684-2번지외 1필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삼국시대 석곽묘, 석실묘, 제사유구, 조선시대 건물지 등 총 11기가 확인 조사되었다.

본 장에서는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석곽묘를 중심으로 유구와 유물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유구

본 유적에서 삼국시대 석곽묘는 호석 일부만 확인되는 5호를 포함하여 총 5기이며 석실묘 1기도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1호를 중심으로 호석을 서로 파괴하고 연접하여 조성되었다. 4호 석곽묘를 제외한 나머지 석곽묘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흐름과 직교하는 동-서 방향이다. 4호 석곽묘는 1~3호 석곽묘의 아래쪽인 서쪽에 연접하여 자리하고 있다. 주체부가 확인 되는 석곽묘의 평면 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2호·4호의 경우 장벽에 덧대어 돌출된 부장공간이 설치되어 평면이 “┌” 자형이다.

【표 3】 석곽묘 유구 속성표

번호	내용	규모(cm)			장단비 (면적)	내부구조	중복관계 (先→後)
		길이	너비	깊이			
1호 석곽묘		520	212	65	2.5:1 (11.7㎡)	시상석, 호석	1호→2호 1호→3호
2호 석곽묘		448	168	58	2.7:1 (7.5㎡)	시상석, 돌출형 부장곽	1호→2호
3호 석곽묘		396	168	48	2.4:1 (6.7㎡)	시상석, 호석	1호→3호 3호→4호
4호 석곽묘		306	128	48	2.4:1 (3.9㎡)	시상석, 돌출형 부장곽	3호→4호

석곽묘의 장축과 단축의 비는 2.4~2.7:1인 장방형이며 면적은 3.9㎡~11.7㎡ 정도이다. 면적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10㎡ 이상인 1호, 5㎡~10㎡ 사이의 2호·3호, 5㎡ 이하인 4호로 구분되며 크게 10㎡을 기준으로 2가지 규모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조된 호석을 통해 중복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1호는 2호와 3호와 중복 양상을 보이는데 1호가 선축된 후 2호·3호가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3호와 4호의 경우는 3호가 선축 4호가 후축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구의 평면 배치상 1호→2호 또는 3호→4호 순으로 축조된 것으로 파악된다.

## 2. 유물

울산 중산동(684-2번지의 1필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에서 확인되는 분묘는 석곽묘 5기, 석실묘 1기, 제사유구 3기 등 총 9기이다. 이 중에서 유물은 유개고배, 개, 고배, 단경호, 대부장경호, 연질옹 등 총 88건 96점이 출토되었다.

본 고에서는 출토된 유물 중에서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기 적합하고 무엇보다 공반관계 파악이 용이한 고배, 개, 대부장경호를 중심으로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시간성 살펴보겠다.

【표 4】 삼국시대 출토 유물 현황(토기류)

유구명 유물명	1호 석곽묘	2호 석곽묘	3호 석곽묘	4호 석곽묘	1호 제사유구	2호 제사유구	3호 제사유구	1호 석실묘	합 계
유개고배	·	2	·	·	1	·	·	3	3
개	2	2	1	2	1	1	·	3	3
고배	2	2	1	1	1	1	1	3	4
배	·	2	·	·	·	·	·	·	0
파수부배	·	·	1	·	·	·	·	·	0
대부완	2	·	·	·	·	·	·	1	1
유개연질옹	·	1	·	·	·	·	·	·	0
파수부연질옹	·	1	·	·	·	1	·	1	1
연질옹	2	1	·	1	·	·	·	·	0
대부장경호	2	2	1	1	1	·	·	3	3
대부직구호	·	1	·	·	·	·	·	·	0
부가구연대부장 경호	·	·	1	·	·	·	·	1	1
유개대부장경호	·	·	·	1	·	·	·	·	0
단경호	·	·	·	·	·	1	1	·	1
장경호	·	·	1	·	1	·	1	·	1
호	1	·	·	1	·	1	1	·	1
대호	2	1	·	·	·	·	1	1	2
장동옹	·	·	2	·	·	·	·	·	0
합 계	13	15	8	7	5	5	5	16	21

지금까지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여러 기종 중에서 시간적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져 세분적 편년이 이루어진 유물은 고배가 대표적이다. 고배는 울산을 포함하는 신라토기의 지역색과 시간성을 가장 잘 반영하며 많은 양이 출토되어 상대적 비교 검토가 용이하다.

고배 속성은 배신과 대각의 형태, 문양, 투창의 속성에 따라 크게 이단투창 고배와 단각고배로 구분된다. 이단투창 고배는 대각과 투창의 크기, 속성에 따라 세분된다. 본 유적에 출토된 유개고배를 포함하는 고배는 18점으로 개에는 삼각직선문과 원형점열문 등이 시문되어 있고 꼭지는 단추형으로 투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보주형(52번, 53번)으로 구분된다. 고배의 배신은 대각에 비해 길이가 길고 배신의 깊이는 단각고배에 비해 다소 깊다. 대각은 모두 이단투창으로 74번의 경우는 단각화 양상이 보이고 있다. 각단은 꺾여 벌어지는 형태로 등글게 처리한 경우가 많다.

대부장경호는 부가구연 호를 포함하여 13점이 출토되었다. 기형적 특징은 동최대경이 중위에 있고 구연이 다소 길고 벌어지는 형태(10번, 29번, 36번, 37번, 45번)이다. 부가구연된 대부장경호는 27번, 38번, 59번, 60번, 61번, 62번 등이다. 대각은 59번을 제외하고 상·하단으로 구획하여 방형의 투창이 교차되게 뚫었고 각단은 두툼하게 처리하였다.

### 3. 편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유적의 출토유물은 편년의 기준이 되는 토기의 형식적 변화가 크지 않다. 고배는 이단투창 고배 형식이 확인되며 각단은 대부분 말려져 있으며, 드림턱은 완만한 'U'자형을 띤다. 개는 단추형 꼭지에 투공을 뚫은 것과 뚫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며 보주형 꼭지도 확인된다. 80번 고배의 경우 단각화 경향을 보이고 있어 5세기 고배의 특징이 퇴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가구연대부장경호의 구연부는 단부가 꺾인 것과 사방향의 약하게 꺾인 두 형태가 확인된다. 이러한 토기의 형식은 단각고배와 인화문 토기 출현 직전으로 6세기 전엽에 해당하며 이희준의 신라토기Ⅳ기<sup>16)</sup>와 홍보식의 후기양식<sup>17)</sup> I~Ⅱ기에 상응하는 시간성을 가진다.

16) 이희준, 2007, 「신라고고학 연구」, 사회평론.

17) 홍보식, 2003, 「신라후기 고분문화 연구」, 춘추각.

(5세기 전반에 성립된 낙동강 양식권내의 지역양식의 토기문화가 6세기대에 들어오면 사라지고 신라토기로 통일된다. 후기양식 토기의 특징으로는 기종의 단순화, 대각의 단각화, 침선문, 압인문의 유행 등을 들 수 있다.)

## IV. 맺음말

본 유적은 울산 북구 중산동 684-2번지에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로 삼국시대 분묘 유구가 확인 조사되었다. 울산 중산동은 1991년 아파트 건립에 따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삼한~삼국시대 분묘 유적이 밀집 분포하고 있음이 학계에 알려졌다. 이후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져 중산동 고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정 구역은 시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최근 중산동 고분군의 동편에 해당하는 삼태봉의 서쪽 산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삼국시대 취락 유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울산 중산동 일원에는 생활유적, 생산유적, 분묘유적 등의 종합적인 시대상을 이해하고 밝힐 수 있는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져 주목되고 있다.

본 유적은 중산동 분묘군 축조와 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조각에 해당하며 통일신라시대로 이어지는 무덤 형식과 유물의 변화상을 엿 볼 수 있는 자료임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 도 판





도판 1. 유적전경①, 유적근경②



도판 2. 1~4호 석곽묘 전경①, 1~3호 석곽묘 전경②



도판 3. 1호 석곽묘(①:토층, ②:남장벽, ③:동단벽, ④:북장벽, ⑤:서단벽, ⑥~⑦:유물출토상태)



도판 4. 2호 석곽묘(①:전경, ②~⑤:유물출토상태)



도판 5. 2호 석곽묘(①:북장벽, ②:북서모서리, ③:서단벽, ④:남서모서리, ⑤:남장벽, ⑥:남동모서리, ⑦: 동단벽, ⑧:북동모서리)



도판 6. 3호 석곽묘(①:전경, ②~③:유물출토상태)



도판 7. 3호 석곽묘(①:동단벽, ②:남동모서리, ③:서단벽, ④:북동모서리), 4호 석곽묘(⑤:전경)



도판 8. 4호 석곽묘(①~②:유물출토상태, ③:서장벽, ④:북서모서리, ⑤:동장벽, ⑥:남동모서리)



도판 9. 4호 석곽묘(①:시상세부, ②:북단벽, ③:남단벽, 5호석곽묘(④:호석 전경)



도판 10. 1호 석실묘(①:조사 전 전경, ②:조사 중 전경)



도판 11. 1호 석실묘(①:1차시상 노출시 전경, ②:2차시상 노출시 전경)



도판 12. 1호 석실묘①~④:유물출토상태, ⑤:1차시상 노출시 세부, ⑥:1차시상 제거시 세부, ⑦:1차시상 절개시 단면, ⑧:1차시상 절개시 단면, ⑨:2차시상 북편 세부



도판 13. 1호 석실묘(①:동벽, ②:서벽, ③:남벽, ④:북벽, ⑤:남동모서리, ⑥:남서모서리, ⑦:북동모서리, ⑧:북서모서리)



도판 14. 1호 의례유구(①:조사 전 전경, ②:조사 후 전경, ③:벽석세부)



도판 15. 2호 의례유구(①:조사 전 전경, ②~⑤:유물출토상태)



①



②



③

도판 16. 3호 의례유구(①:조사 전 전경, ②~③:유물출토상태)



도판 17. 1호 근대 건물지(①:조사 후 전경), 1호 구상유구(②:조사 후 전경)



도판 18. 1호석곽묘 출토유물(1~11)



도판 19. 1호석곽묘 출토유물(12~13), 2호석곽묘 출토유물(14~27)



도판 20. 2호석곽묘 출토유물(28~30), 3호석곽묘 출토유물(31~35)



도판 21. 3호석곽묘 출토유물(36~39), 4호석곽묘 출토유물(40~47), 1호석실묘 출토유물(48~50)



도판 22. 1호석실묘 출토유물



도판 23. 1호석실묘 출토유물(63~73), 1호제사유구 출토유물(74~78), 2호제사유구 출토유물(79~82)



도판 24. 2호제사유구 출토유물(83), 3호제사유구 출토유물(84~88)

## 울산 중산동 684-2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시대	크기(cm)			비고
					기고 (길이)	구경 (너비)	저경 (두께)	
1	1호 석곽 (동벽)	1	개	삼국	6.7	14.0	·	1box
2	1호 석곽 (동벽)	1	개	삼국	6.1	11.8	·	1box
3	1호 석곽 (동벽)	1	고배	삼국	11.0	(9.5)	6.7	1box
4	1호 석곽 (동벽)	1	고배	삼국	10.2	9.9	(7.3)	1box
5	1호 석곽 (서벽)	1	대부완	삼국	9.2	10.3	6.6	1box
6	1호 석곽 (서벽)	1	대부완	삼국	9.9	10.7	7.1	1box
7	1호 석곽 (동벽)	1	연질웅	삼국	11.9	11.0	5.2	1box
8	1호 석곽 (서벽)	1	파수부옹	삼국	29.4	(26.4)	13.3	2box
9	1호 석곽 (동벽)	1	대부장경호	삼국	18.6	10.1	8.8	1box
10	1호 석곽 (동벽)	1	대부장경호	삼국	39.0	20.3	19.0	1box
11	1호 석곽 (서벽)	1	연질호	삼국	29.5	17.6	10.1	2box
12	1호 석곽 (서벽)	1	대호	삼국	40.5	21.0	·	3box
13	1호 석곽 (서벽)	1	대호	삼국	45.4	23.3	·	4box
14	2호 석곽 (주곽)	2	유개고배	삼국	5.1	11.4	·	5box
						10.4	8.8	
15	2호 석곽 (주곽)	2	유개고배	삼국	6.4	12.0	·	5box
						9.9	7.1	
16	2호 석곽 (주곽)	1	개	삼국	5.6	10.8	·	5box
17	2호 석곽 (주곽)	1	개	삼국	6.2	12.7	·	5box
18	2호 석곽 (주곽)	1	고배	삼국	11.9	10.7	9.5	5box
19	2호 석곽 (주곽)	1	고배	삼국	11.8	10.4	8.2	5box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시대	크기(cm)			비고
					기고 (길이)	구경 (너비)	저경 (두께)	
20	2호 석곽 (주곽)	1	배	삼국	3.3	7.9	.	5box
21	2호 석곽 (부곽)	1	배	삼국	2.4	9.5	.	5box
22	2호 석곽 (주곽)	1	파수부배	삼국	9.6	9.1	.	5box
23	2호 석곽 (주곽)	2	유개연질옹	삼국	3.8	6.2	.	6box
					6.8	6.3	3.3	
24	2호 석곽 (주곽)	1	연질옹	삼국	5.3	9.9	5.9	6box
25	2호 석곽 (주곽)	1	파수부연질옹	삼국	10.7	11.5	6.5	6box
26	2호 석곽 (부곽)	1	병	삼국	21.5	9.6	12.5	6box
27	2호 석곽 (부곽)	1	대부장경호	삼국	30.7	16.6	14.3	6box
28	2호 석곽 (부곽)	1	직구호	삼국	24.5	9.5	12.9	6box
29	2호 석곽 (주곽)	1	대부장경호	삼국	42.1	23.0	19.8	7box
30	2호 석곽 (부곽)	1	대호	삼국	48.2	24.9	.	8box
31	3호 석곽	1	개	삼국	5.3	11.7	.	9box
32	3호 석곽	1	고배	삼국	10.4	10.5	6.3	9box
33	3호 석곽	1	파수부완	삼국	10.2	9.6	4.3	9box
34	3호 석곽	1	장동옹	삼국	(43.6)	.	.	10box
35	3호 석곽	1	장동옹	삼국	(41.4)	.	.	11box
36	3호 석곽	1	대부장경호	삼국	32.9	19.1	17.1	9box
37	3호 석곽	1	장경호	삼국	25.5	15.2	.	9box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시대	크기(cm)			비고
					기고 (길이)	구경 (너비)	저경 (두께)	
38	3호 석곽	1	부가구연대부장 경호	삼국	32.0	16.1	14.2	9box
39	3호 석곽	1	금제이식	삼국	2.0	2.8	0.4	24box
40	4호 석곽	1	개	삼국	5.0	11.0	·	12box
41	4호 석곽	1	개	삼국	5.6	11.7	·	12box
42	4호 석곽	1	고배	삼국	9.0	9.1	7.4	12box
43	4호 석곽	1	연질옹	삼국	(10.9)	·	5.7	12box
44	4호 석곽	2	유개대부장경호	삼국	4.8	10.0	·	12box
					(17.5)	·	10.3	
45	4호 석곽	1	대부장경호	삼국	14.3	11.0	9.9	12box
46	4호 석곽	1	파수부옹	삼국	27.3	(25.0)	·	13box
47	4호 석곽	1	철부	삼국	13.8	인부너비-4.0 공부너비-5.9	·	24box
48	1호 석실	2	유개고배	삼국	6.1	12.3	·	14box
					11.1	10.4	6.2	
49	1호 석실	2	유개고배	삼국	5.9	12.0	·	14box
					11.6	10.2	8.7	
50	1호 석실	2	유개고배	삼국	5.9	12.2	·	14box
					11.9	10.4	8.7	
51	1호 석실	1	개	삼국	7.7	17.7	·	14box
52	1호 석실	1	개	삼국	7.5	13.9	·	14box
53	1호 석실	1	개	삼국	6.8	13.1	·	14box
54	1호 석실	1	단각고배	삼국	9.0	9.7	7.6	14box
55	1호 석실	1	이단투창고배	삼국	12.6	10.7	8.8	14box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시대	크기(cm)			비고
					기고 (길이)	구경 (너비)	저경 (두께)	
56	1호 석실	1	이단투창고배	삼국	12.2	10.9	8.2	14box
57	1호 석실	1	대부파수부완	삼국	13.3	10.0	8.2	14box
58	1호 석실	1	파수부옹	삼국	11.2	12.5	6.8	14box
59	1호 석실	1	대부장경호	삼국	21.9	12.1	11.8	15box
60	1호 석실	1	대부장경호	삼국	42.4	23.5	21.3	16box
61	1호 석실	1	대부장경호	삼국	40.7	20.9	19.2	16box
62	1호 석실	1	부가구연대부 장경호	삼국	41.6	22.5	20.9	15box
63	1호 석실	1	대호	삼국	46.0	27.1	.	17box
64	1호 석실	1	금제이식	삼국	2.3	2.3	0.4	24box
65	1호 석실	1	금제이식	삼국	(2.2)	.	0.4	24box
66	1호 석실	1	철도	삼국	45.5	2.6	6.7	24box
67	1호 석실	1	도자	삼국	(14.7)	1.9	0.4	24box
68	1호 석실	1	도자	삼국	(11.7)	1.9	0.4	24box
69	1호 석실	1	철검	삼국	(7.8)	2.9	0.4	24box
70	1호 석실	1	철검	삼국	(10.9)	1.8	0.4	24box
71	1호 석실	1	유자이기	삼국	(6.5)	3.3	0.3	24box
72	1호 석실	1	철촉	삼국	(5.7)	1.3	0.7	24box
73	1호 석실	1	철부	삼국	(12.9)	인부너비-3.7 공부너비-5.4	.	24box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시대	크기(cm)			비고
					기고 (길이)	구경 (너비)	저경 (두께)	
74	1호 의례유구	2	유개고배	삼국	4.9	10.5	.	18box
					9.9	10.1	7.3	
75	1호 의례유구	1	개	삼국	5.4	11.7	.	18box
76	1호 의례유구	1	이단투창고배	삼국	10.8	9.9	7.8	18box
77	1호 의례유구	1	대부장경호	삼국	22.3	14.8	12.3	18box
78	1호 의례유구	1	장경호	삼국	(26.0)	.	.	18box
79	2호 의례유구	1	개	삼국	5.4	8.5	.	19box
80	2호 의례유구	1	이단투창고배	삼국	8.7	(11.2)	7.3	19box
81	2호 의례유구	1	파수부옹	삼국	20.3	16.8	6.4	19box
82	2호 의례유구	1	대부호	삼국	(22.0)	.	14.0	19box
83	2호 의례유구	1	단경호	삼국	29.5	20.1	.	20box
84	3호 의례유구	1	고배	삼국	10.9	9.8	8.0	21box
85	3호 의례유구	1	대부호	삼국	(27.6)	.	16.4	21box
86	3호 의례유구	1	장경호	삼국	30.9	(19.7)	.	21box
87	3호 의례유구	1	파수부단경호	삼국	(27.9)	(26.1)	.	22box
88	3호 의례유구	1	대호	삼국	(27.7)	.	.	23box



## 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울산 중산동 684-2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住所	(4472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달동)		
	TEL	(052) 283-7780	FAX	(052) 283-8558
執筆・編輯者	배은경・김성식・이정주・한지아・이달남・이별님			
調査 緣由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배은경・김성식・이정주・한지아・박정환・박지혜			
遺蹟調査地番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84-2번지			
調査面積	420m <sup>2</sup>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석곽묘	삼국시대	5	대부완, 장경호, 부가구연장경호, 유개고배 등	.
석실묘		1		.
의례유구		3	고배, 부가구연대부 장경호, 철도, 철부 등	.
건물지	조선시대	1	대부장경호, 고배 등	.
구상유구	시대미상	1	.	.



## 160. 제주 함덕리 3363번지 유적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 목 차

I. 조사개요 .....	160- 7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60- 9
1. 자연·지리적 환경 .....	160- 9
2. 고고학적 환경 .....	160-11
3. 함덕리(咸德里)의 마을 형성과 연혁 .....	160-22
III. 조사방법 및 층위 .....	160-28
1. 조사방법.....	160-28
2. 층위 .....	160-28
IV. 조사내용 .....	160-30
1) 1호 수혈유구 .....	160-30
2) 지표수습유물 .....	160-32
V. 조사성과 .....	160-35
〈부록〉	
학술자문회의 의견서 .....	160-46

## 삼도목차

삼도 1. 『동여비고(東輿備攷)』 중 「제주도도(濟州島圖)」에 나타난 함덕현(咸德縣)과 함덕개[咸德浦] .....	160-24
삼도 2.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난 과원(果園) · 켜못촌[潞池村] · 과원(果園) · 함덕마을 [咸德里] · 꽃[藪] · 우진꽃[芋藪] · 서산망(西山望) · 함덕개[咸德浦] .....	160-25
삼도 3.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응종내[應從川] · 과원(果) · 함덕리(咸德里) · 서산봉(西山烽) · 함덕개[咸德浦] .....	160-26
삼도 4. 조사대상지 북서편 토층 .....	160-29
삼도 5. 조사대상지 남편 토층 .....	160-29

##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토양도(토양환경정보시스템 1/3,385) .....	160- 9
도면 2. 조사대상지 지질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0 참조) .....	160-12
도면 3. 조사대상지 주변 유적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	160-13
도면 4. 조사대상지 주변 유적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5,000) .....	160-14
도면 5. 조사대상지 지적도(네이버 지도 참조) .....	160-15
도면 6. 유구배치도 .....	160-31
도면 7. 1호 수혈유구 .....	160-32
도면 8. 지표수습유물 .....	160-33

## 도 판 목 차

도판 1. 유적(①:전경[공중촬영, 동에서], ②:전경[북에서]) .....	160-39
도판 2. 유적(①:전경[공중촬영, 서에서], ②:북편 세부[동에서]) .....	160-40
도판 3. 1호 수혈유구(①:1차조사 후 전경[북에서], ②:2차조사 후 전경[북에서]) .....	160-41
도판 4. 1호 수혈유구(①:단면[남에서], ②:조사완료 후 전경[북에서]) .....	160-42
도판 5. 1~7:지표수습유물, ①:학술자문회의 .....	160-43



## I. 조사개요

제주 함덕리 유적(함덕리 3363번지)은 윤연신 씨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363번지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업대상지 전체 2,674㎡에 대해서 2017년 7월 제주고고학연구소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석유구 2기를 비롯하여 자기편과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유구가 확인되는 1,025㎡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발굴조사 이후의 문화재청 보존대책 이행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였다(문화예술과-29787[2017.8.24.]). 상기 절차에 의해 사업자인 윤연신 씨는 한국문화재단(이하 재단)에 국비지원발굴조사를 신청하였으며 재단에서는 우리 연구원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의뢰하여 문화재청의 허가(발굴제도과-13683[2017.11.23.], 제2017-1533호)를 득한 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밀발굴조사 면적은 1,025㎡며 조사기간은 2017년 12월 4일부터 동년 동월 18일까지 실조사일수 10일간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유구는 고려 말~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은 청자, 백자,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청자와 백자 저부편 및 기와편으로 온전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자 저부편은 고려말로 추정되며 백자는 비교적 높은 저부굽을 보이고 있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무렵의 것으로 판단된다. 기와편도 격자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백자편과 병행하는 시기의 유물로 보인다.

12월 19일에 김종찬(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박근태(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선생님을 모시고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위원은 조사단의 조사의견에 동조하였으며, 더불어 기록보존 후 공사를 시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밀발굴조사가 종료된 후 문화재청에서는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록보존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조사 당시의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고 재 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원장)  
 자 문 위 원 : 김 종 찬(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박 근 태(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책임조사원 : 김 경 주(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조 사 원 : 나 정 욱(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부장)  
 준 조 사 원 : 박 경 민(제주문화유산연구원 선임연구원)  
 보 조 원 : 김 현 정(前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제주 함덕리 유적(함덕리 3363번지)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은 다음의 항목에 따라 업무가 분담되어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보고서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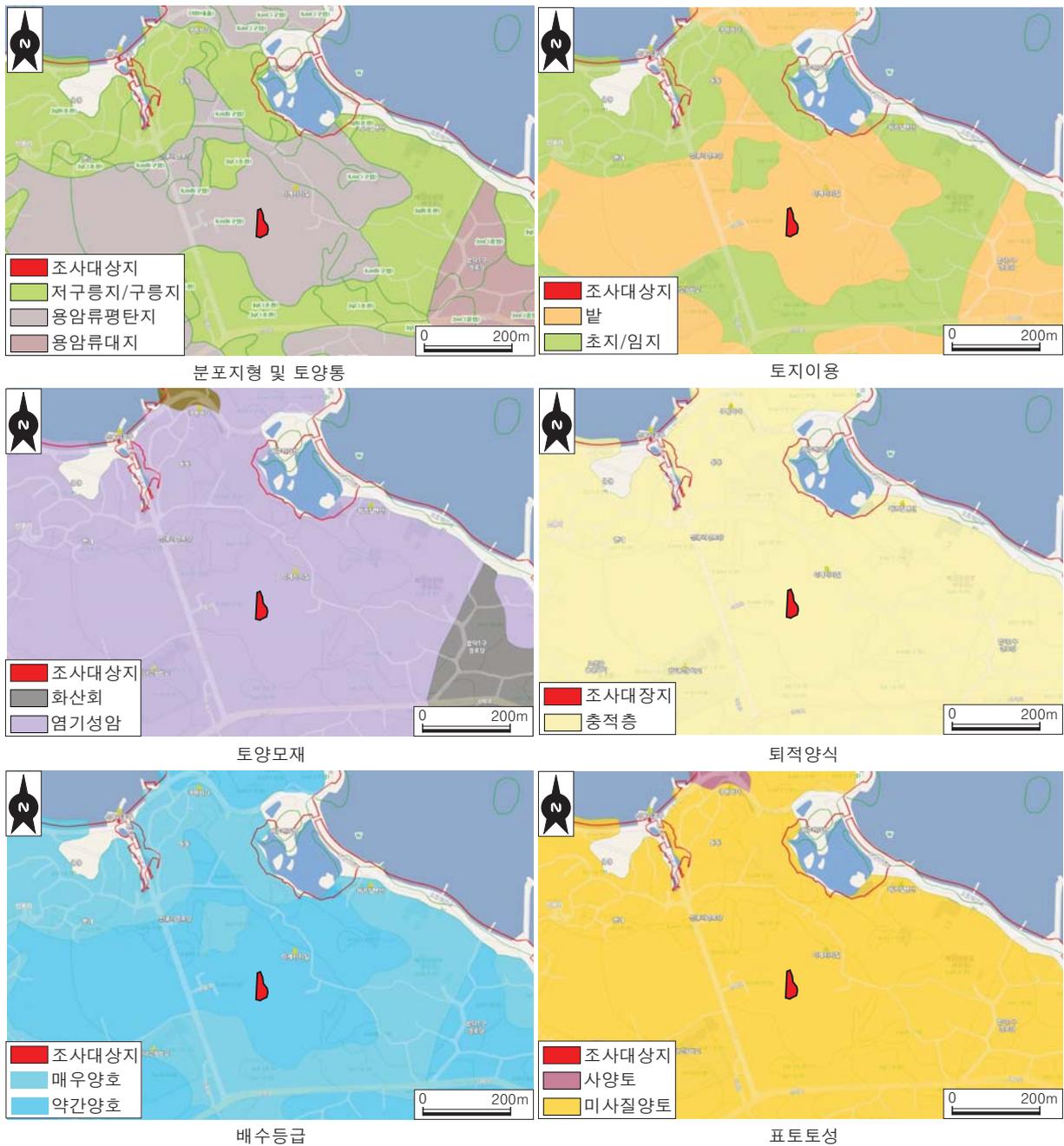
- 전체 총괄 : 나정욱
- 유물 정리·복원 및 실측 : 박경민, 김현정, 고은경
- 유구 및 유물 일러스트 : 박진선, 양정심(이상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유물사진 촬영 : 김현정
- 원고작성
  - I. 머리말 : 나정욱
  -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 자연지리·고고학 분야 : 나정욱
    - 역사학 분야 : 강창룡(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III. 조사방법 및 층위: 나정욱
  - IV. 조사내용
    - 유구 : 나정욱
    - 유물 : 박경민
  - V. 맺음말 : 김경주, 나정욱
- 교열 및 교정 : 김경주, 나정욱, 박경민
- 감수 : 고재원

끝으로 발굴조사와 보고서 작업에 힘써준 조사단과 현장에서 자문을 해주신 김종찬 선생님과 박근태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 자연·지리적 환경

조사대상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36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좌표 상의 위치를 살펴보면 남편 경계부는 X:167905, Y:105806(東)~X:167881, Y:105801(西)이고 북편 경계부는 X:167891, Y:105862(東)~X:167884, Y:105860(西)<sup>1)</sup>에 해당한다.



도면 1. 조사대상지 토양도(토양환경정보시스템 1/3,385)

1) GRS80 기준 TM좌표이며 X는 경도이고 Y는 위도이다.

조사대상지가 속해 있는 함덕리는 한라산 북쪽 해안에 위치하며 대부분 해발 60m 이하의 낮은 평지를 이룬다. 북쪽 해안에는 잘게 부서진 조개껍질이 모래처럼 쌓여 있어 여름철에는 많은 인파가 찾는 함덕해수욕장이 유명하다. 함덕리는 제주도 조천읍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다. 조천읍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마을이다. 중심 마을을 이루고 있는 본동과 서우봉(犀牛峰) 남서쪽 기슭에 자리 잡은 평사동 등 2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해안을 끼고 있으나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다. 감귤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며 마늘, 배추, 수박도 많이 재배된다. 최근에는 함덕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인근에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sup>2)</sup>.

조사대상지는 북동쪽 해안으로부터 350m 가량 떨어진 해발 15m 내외의 평탄대지 상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에는 200m 정도의 거리에 신촌과 북촌을 잇는 '신북로'가 동서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750m 가량 가면 일주동로(지방도 1132호선)가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조사대상지 주변부는 대부분 경작지이며, 이 경작지를 둘러싸고 임야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지는 함덕리의 북서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곳으로 서쪽으로 '신흥로'를 경계로 신흥리와 구분된다. '신흥로'와 '신북로'가 만나는 주변에 함덕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의 토양통은 구엄통에 해당한다. 구엄통은 몰리층과 아질리층을 보유한다. 암반까지의 깊이는 50~100cm이다. 토양반응은 중성 내지 약한 알카리성이고 염기포화도는 60% 이상이다. 유기탄소 함량은 5% 이하이다. 표토는 암갈색의 미사질양토이고 심토는 갈색, 암황갈색 또는 황갈색의 미사질식양토 또는 미사질식토이며 기암은 경암인 현무암이다. 구엄통은 화산쇄설물로부터 기인하며 제주도 북서쪽의 해안용암류평탄지에서 발달한다. 경사범위는 2~30%이고, 주된 경사는 2~7%이다. 토양의 배수는 양호하며 투수성과 유거는 보통이다. 주로 양배추, 고구마와 같은 밭작물이 재배된다<sup>3)</sup>.

제주도의 형성과정에서 함덕리가 속해 있는 조천읍의 지질을 살펴보면, 제1단계(약 120만~70만 년 전) 화산활동 이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제2단계(60만~30만 년 전) 화산활동에 의해 조천읍 지역이 지표상에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표선리현무암이 주로 분출되었다. 표선리현무암은 침상의 장석과 감람석 반정을 함유하며, 표면에는 새끼줄구조가 잘달한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조천읍 해안지대를 넓게 덮고 있다. 제3단계(30만~10만 년 전) 화산활동기에 시흥리현무암, 한라산현무암 등이 분출되었다. 시흥리현무암은 제3단계 중반에 한라산 정상 부근의 화구에서 분출하여 조천읍 중산간지대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제3단계 후반에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사방으로 분출한 한라산현무암은 조천읍 지역에서는 주로 산간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조천읍 일대에 펼쳐져 있는 대부분의 오름은 제4단계(10만~2만 5천 년 전)에 후화산활동에 의한 소규모 화산폭발로 형성된 것이다<sup>4)</sup>.

조천읍은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 온대기후에 속하며 4계절이 뚜렷하다. 또한 유라시아 동안에

2) 오창명, 2004,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북제주군, 2005, 『통계연보』.

북제주군·제주학연구소, 2006, 『북제주군 지명총람』하.

북제주군, 2006, 『북제주군지』상.

3)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76, 『한국정밀토양도-제주도』.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oil.rda.go.kr>.

4)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조천읍 역사문화지』, 27~28쪽.

위치하고 있어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다. 조천읍은 연평균 기온이 약 15.8℃이며 1월에 기온이 가장 낮고, 8월에 가장 높다. 연강수량은 1,498mm 정도이며, 장마전선과 태풍이 통과하는 7~9월의 강수량이 많다. 조천읍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많은 다우지에 해당되지만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여 우기 때는 수해, 건기 때는 가뭄이 자주 발생한다. 제주도는 지질구조상 비가 오더라도 쉽게 지하로 빠진다. 또한 유로가 급하고 짧기 때문에 일시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때문에 지표수가 부족하여 취락은 대부분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해안가에 위치하고 농경지는 대부분 밭으로 이용된다<sup>5)</sup>.

## 2. 고고학적 배경

조사대상지인 조천읍 함덕리 일대는 유적이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다. 선사시대 유적으로 함덕리 유물 산포지가 알려져 있으나 선사시대의 유물은 극소량이며 주로 조선시대의 유물을 포함하고 있다. 주변에 분포하는 함덕연대, 방사탑 등 대부분의 유적도 조선시대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 일대에 조선시대 '함덕 현'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선사시대의 유적은 동쪽으로 5km 가량 떨어진 북촌리 일대와 서쪽으로 7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삼양동유적 등이 있다.

동쪽의 북촌리유적은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북촌리 바위그늘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북촌리유적은 1986년에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 결과 5개의 퇴적층이 확인되었으며, 각 층위별로 신석기시대에서 탐라시대까지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제1층은 표토층이고, 제2층과 제3층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가 출토되었고, 제4층에서는 공열문토기와 구순각목문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제5층에서는 신석기시대의 점렬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었다.

서쪽의 삼양동유적은 1990년대 중후반에 제주도에서 최초로 선사시대 취락이 확인된 이래 지금까지 활발한 유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양동유적은 1970년대 지석묘 3기가 보고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여<sup>6)</sup> 1986년도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이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취락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당시 조사내용을 보면 유적의 대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수습된 토기는 철기시대 괘지리식 무문토기편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유구석부편과 합인석부편 등이 동반 수습되었다<sup>7)</sup>. 1990년대 후반 삼양동 일대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발굴조사 결과로 이 일대에 대규모 취락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삼양유원지와 삼화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이 일대에 신석기시대~철기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sup>8)</sup>. 이외에

5)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11, 『조천읍 역사문화지』, 18~22쪽.

6) 金元龍, 1976, 『濟州島の先史文化와 住民』, 『耽羅』 10.

宋錫範, 1979, 『濟州島の支石墓』의 『考古學』 161.

7) 이청규, 1986, 『濟州島遺蹟』, 濟州大學敎育博物館.

8) 제주문화예술회관, 2006, 『삼양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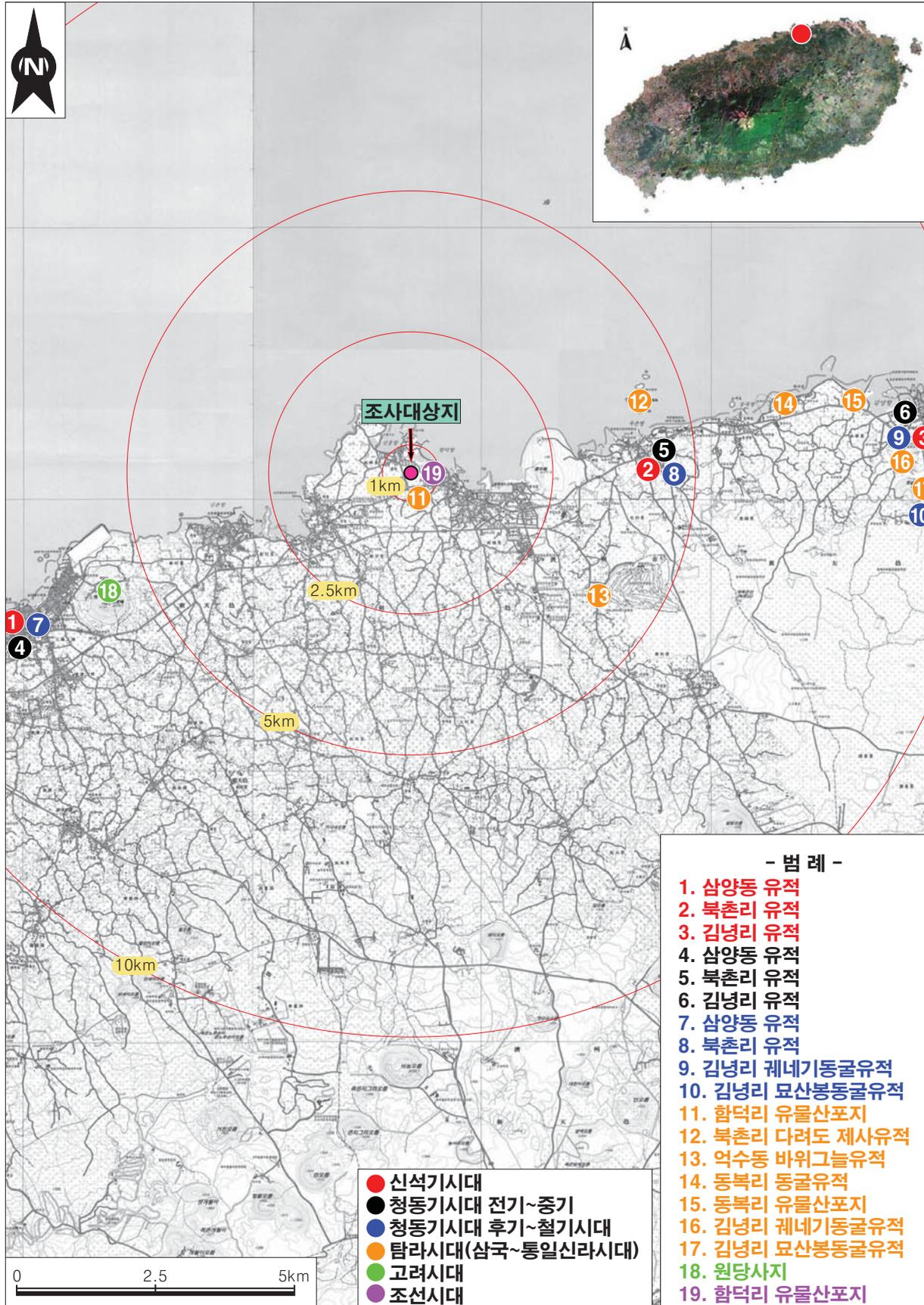
東洋文物研究院, 2009, 『제주 삼화택지개발지구 가-Ⅱ-1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호남문화재단연구원, 2007,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나지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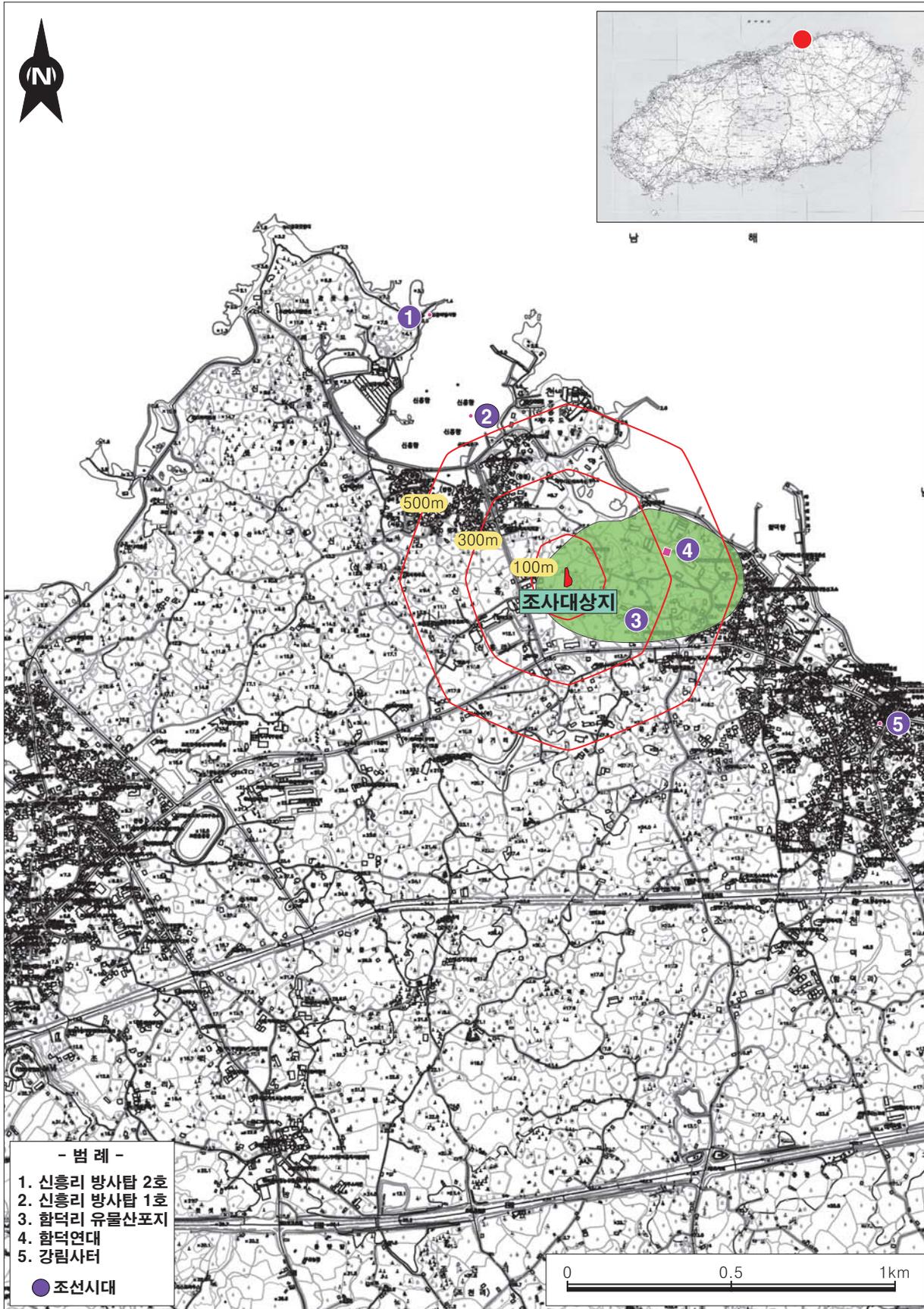
국립제주박물관, 2008,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가-1구역)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8, 『제주 삼화지구 가-Ⅱ(1차)구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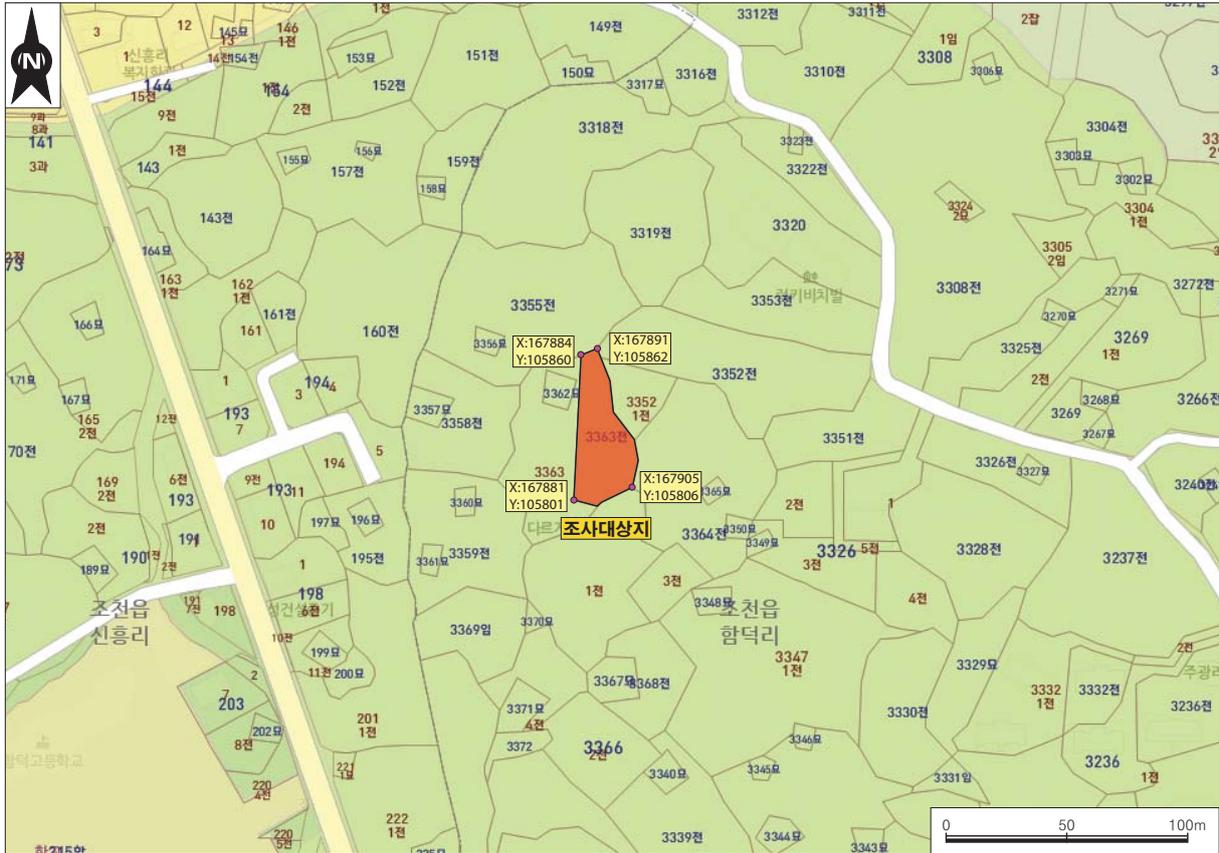




도면 3. 조사대상지 주변 유적분포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도면 4. 조사대상지 주변 유적분포도(1/5,000)



도면 5. 조사대상지 지적도(네이버 지도 참조)

도 삼양동에는 고려시대 사찰인 원당사지가 자리하고 있다. 발굴조사결과 출토유물로 미루어 볼 때 13세기 이전에 사찰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9)</sup>. 이와 같이 삼양동의 단일구역내에서만도 다양한 유적이 형성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선사시대 유적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임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삼양동유적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적현황을 살펴보면 신석기시대 이후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청동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취락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삼양동유적을 위시하여 서쪽으로 용담동유적군과 함께 외도·광령·하귀리유적군 등 대규모 취락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형성되고 있어 동시기 제주지역의 취락분포정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제주도 북부지역의 유적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신석기시대

제주도의 신석기시대 유적의 입지는 크게 해안 평탄대지와 내륙 중산간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해

9)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元堂寺址-불탑사(옛 원당사지)5층 석탑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안 평탄지대는 해발 100m 내외의 비교적 평탄한 곳으로 신석기시대유적은 해발 30~50m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은 입지적으로 음용수의 획득과 바다자원에 대한 활용이 용이하고 양질의 점토가 퇴적되어 있어 신석기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선호되었던 곳이다. 내륙 중산간지역은 해발 150~400m 정도에 해당되며 주로 하천을 끼고 형성된 평탄한 대지에 유적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해발고도에 따른 식생의 변화로 인해 넓은 초지 및 임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서쪽으로 이호동, 용담동유적과 함께 동쪽으로 삼양동, 북촌리, 김녕리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북촌리유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석기시대 초기 단계의 고산리식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동시기의 유적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양동일대에서 지금까지 확인되는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삼양동유적<sup>10)</sup>, 삼양유원지내유적<sup>11)</sup>, 삼화지구내유적(가-Ⅱ-1)<sup>12)</sup>이 있다. 이들 유적은 가까운 거리에 하천과 해안이 위치해 있고 양질의 점토가 퇴적되어 있어 유적이 형성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삼양동유적에서는 수혈유구를 비롯하여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조우문토기 등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석기로는 타제석촉이 출토되었다.

삼양유원지내 유적에서는 원형적석유구와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고산리식토기단계, 초기의 용기문토기단계, 전기의 압인문토기단계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삼화지구내 유적에서는 토기류로 고산리식토기를 비롯하여 점렬문토기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석기류는 좁돌날몸돌을 비롯하여 박편 및 석촉이 확인되고 있다. 자세한 유적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신석기시대 제주도 북부지역 유적현황

연번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1	이호동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삼각점렬문토기, 파수부토기	
2	용담동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고산리식토기, 이중구연토기	
3	삼양동유적	생활유적	수혈유구, 유물산포지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조우문토기, 무문양토기, 타제석촉	
4	삼양유원지내 유적	생활유적	원형적석유구, 수혈유구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조우문토기, 박편 등	
5	삼화지구내유적 (가-Ⅱ-1)	생활유적	유물포함층	고산리식토기, 점렬문토기, 타제석촉	
6	북촌리유적	생활유적	바위그늘	점렬문토기, 이중구연토기	
7	김녕리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고산리식토기, 점렬문토기, 타제석촉	

10) 濟州大學校博物館, 2002, 『濟州三陽洞遺蹟-I·V地區』.

11)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삼양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2) 東洋文物研究院, 2009, 『제주 삼화택지개발지구 가-Ⅱ-1구역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

## 2) 청동기시대

제주도 청동기시대 유적은 해발 100m 미만의 해안 저지대 및 평탄대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해안저지대의 해안선을 따라 용천수가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청동기시대 유적을 살펴보면 서북부지역의 용담동과 삼양동유적군, 동북부지역의 북촌리와 김녕리유적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동시기의 취락은 다음 단계인 철기시대~원삼국시대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며 현재 확인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혹은 방형계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적으로는 삼양동유적군<sup>14)</sup>이 있다. 삼양동유적(삼화지구)에서는 장방형주거지를 비롯하여 방형주거지와 다수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공렬토기, 각목토기, 직립구연토기, 마연토기 및 방추차와 유구석부, 편인석부, 마제석검, 마제석창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삼화지구와 공간을 달리하는 삼양동유적(사적 제416호)에서는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거지가 확인된다. 유적에서는 이전 시기의 주거지와는 달리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를 비롯하여 굴립주건물지,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삼양동식토기가 대표적이며 이외에 점토대토기, 마제석검, 마제석촉, 마제석부, 유구석부, 연석, 옥환, 동축 등이 출토되었다. 자세한 유적현황은 표2)와 같다.

【표 2】 청동기시대 제주도 북부지역 유적현황

연번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1	용담동 월성로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등	직립구연토기, 지석, 고석 등	
2	용담동 제사유적	취락유적	유물산포지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석기류	
3	용담2동 2708-29번지내 유적	취락유적	불다짐소성유구, 구상유구	직립구연토기, 마제석창, 고석, 연석, 토제방추차 등	
4	오라3동 금남여객 차고지 부지내 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불다짐소성유구, 야외노지, 구상유구	직립구연토기,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마제석부, 마제석창, 고 석, 연석, 요석, 석제 검파두식, 청동제 검파두식, 소옥 등	

13) 김경주, 2009, 「유구와 유물로 본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14) 국립제주박물관, 2006, 「제주세무서 사택부지내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국립제주박물관, 2007, 「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나지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국립제주박물관, 2008,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가-1구역)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8, 「제주 삼화지구 가-II(1차)구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연번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5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굴립주건물지, 수혈유구 등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직립구연토기, 마연토기, 유구석부, 편인석부, 마제석검, 석착, 옥제품	삼화지구
6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등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마제석검, 마제석촉, 마제석부, 유구석부, 연석, 옥환, 동촉 등	사적 제 416호
7	삼양2동 2132-1번지내 유적	취락유적	수혈유구, 구상유구 등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마연토기, 옥구슬 등	
8	삼양2동 2133-4번지내 유적	취락유적	수혈유구	구순각목토기, 직립구연토기	
9	삼양1동 1412번지내 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굴립주건물지, 수혈유구, 소토유구, 구상유구 등	원형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파수부토기, 고석, 연석, 토제방추차	더존샤시
10	제주시 삼양2동 2139-5번지내 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야외노지	직립구연토기, 삼양동식토기, 파수부토기, 고석, 연석, 요석, 원판형토제품, 토제방추차 등	삼양교회
11	제주세무서 부지내 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등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마연토기, 마제석부 등	
12	북촌리유적	주거유적	바위그늘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석기류	
13	김녕리유적	생활유적	패총	공렬토기, 구순각목토기, 석기류	

### 3) 철기시대

철기시대 유적으로는 삼양동유적군<sup>15)</sup>이 확인되고 있다. 이 시기는 한반도에서 소멸한 송국리문화가 강하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앞선 청동기시대와 비교하여 취락구조와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대규모 취락이 조성된다. 취락의 입지를 살펴보면 해안과 직선거리 1k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30~40m 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평탄대지상에 주로 배치되는 공통점을 보

15) 濟州大學校博物館, 2001, 『濟州三陽洞遺蹟-Ⅱ·Ⅲ地區』.

濟州大學校博物館, 2002, 『濟州三陽洞遺蹟-Ⅰ·Ⅴ地區』.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8, 「제주 삼양1동 1249-7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9, 「제주 삼양선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도시우회도로(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간)확장사업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여주고 있다<sup>16)</sup>.

철기시대 유적으로는 서쪽으로 하귀리, 외도동, 용담동, 삼도동유적이 있고, 삼양동유적을 비롯하여 동쪽으로는 북촌리, 김녕리유적 등이 위치한다. 특히 전기에는 삼양동과 용담동 일대에 송국리형 주거지 초기형태의 취락이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이후 후기로 가면서 외도동과 하귀리 일대에 변형된 송국리주거지를 바탕으로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삼양동유적에서는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유물은 삼양동식토기로 불리는 외반구연 및 직립구연토기와 석기류 등이 출토되고 있다. 더불어 삼양동유적에서는 유구석부, 마제석착, 옥환 등도 출토되었다. 자세한 유적현황은 표3)과 같다.

【표 3】 철기시대 제주도 북부지역 유적현황

연번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1	하귀리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2	외도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3	용담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4	용담2동 2621-10번지내 유적	취락유적	수혈유구, 소토유구, 불다짐소성유구	직립구연토기, 적갈색경질토기, 고석, 요석, 지석, 토제방추차, 원판형토제품	
5	오라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6	도남동유적	분묘유적	지석묘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7	삼도동유적	취락유적	유물산포지	삼양동식토기, 석기류	
8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	삼양동식토기, 유구석부, 옥환 등	
9	삼양1동 1249-7번지내 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소토유구 등	적갈색경질토기, 방추차, 지석 등	
10	삼양선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신축부지내 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불다짐소성유구 등	적갈색경질토기, 원형점토대토기, 마제석촉 등	

16) 김경주, 2009, 「고고학으로 본 탐라-2000년대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섬, 흙, 기억의 고리』.

연번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11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내 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석관묘, 원형구상유구 등	적갈색경질토기, 지석, 고석 등	
12	도시우회도로 (도련사거리-삼양 검문소간) 확장부지 내 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소토유구, 옹관묘 등	직립구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적갈색경질토기 등	
13	삼양2동 2180-15번지내 유적	취락유적	수혈유구	적갈색경질토기, 석기류	
14	북촌리유적	동굴주거 유적	바위그늘	삼양동식토기	
15	김녕리 궤내기동굴	생활유적	패총, 바위그늘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패축	
16	김녕리 묘산봉동굴	동굴주거 유적	바위그늘	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 4) 탐라시대

탐라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구제주시권의 용담동과 삼도동유적이 위치하며 함덕리, 북촌 다려도, 역수동, 동북리, 김녕리 궤내기동굴, 묘산봉동굴 등이 확인되고 있다. 용담동유적에서는 전기·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각각 조사되었다. 탐라 전기에 해당하는 철기부장묘에서는 내부에서 철검과 함께 철부, 철촉, 철도자, 유리옥 등을 부장한 무덤이 확인되었다. 이 무덤은 철검의 형식과 동반유물상으로 볼 때 A.D. 3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탐라후기에 해당하는 용담동 유적에서는 병과 호류의 통일신라시대 도기편이 다량 수습되었다. 이외에도 삼도동유적에서는 전기·후기에 해당하는 광지리식토기와 함께 고내리식토기편이 수습되고 있어서 동시기에 걸쳐 유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김녕리 묘산봉 동굴에서도 백제계의 토기류가 확인되고 있다. 자세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 4】 탐라시대 제주도 북부지역 유적현황

연번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1	용담동 철기부장묘	분묘유적	지석묘, 옹관묘	철검, 철부, 철촉, 철도자, 유리옥, 광지리식토기 등	탐라전기
2	용담동 제사유적	제사유적	대형 수혈유적	통일신라토기(병·호류), 중국자기, 과대금구, 철촉, 철부, 유리구슬 등	탐라후기
3	오라3동 금남여객 차고지 부지내 유적	생활유적	우물	회청색경질 타날문토기, 파수부편	탐라전기

연번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4	삼도동유적	생활유적	수혈유구	곽지리식토기, 고내리식토기	탐라전·후기
5	용담동 철기부장묘	분묘유적	지석묘, 옹관묘	철검, 철부, 철촉, 철도자, 유리옥, 곽지리식토기 등	탐라전기
6	용담동 제사유적	제사유적	대형 수혈유적	통일신라토기(병·호류), 중국자기, 과대금구, 철촉, 철부, 유리구슬 등	탐라후기
7	오라3동 금남여객 차고지 부지내 유적	생활유적	우물	회청색경질 타날문토기, 파수부편	탐라전기
8	삼도동유적	생활유적	수혈유구	곽지리식토기, 고내리식토기	탐라전·후기
9	함덕리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회색연질토기	탐라전기
10	다려도유적	제사유적	유물산포지	곽지리식토기	탐라전기
11	역수동유적	동굴주거 유적	바위그늘	곽지리식토기	탐라전기
12	동북리유적	동굴주거 유적	바위그늘	곽지리식토기	탐라전기
13	동북리유적	생활유적	유물산포지	곽지리식토기	탐라전기
14	김녕리 괘내기동굴	동굴주거 유적	바위그늘	곽지리식토기	탐라전기
15	김녕리 묘산봉동굴	동굴주거 유적	바위그늘	회색연질토기	탐라전기

## 5) 고려시대

고려시대 유적으로는 삼양동의 원당사<sup>17)</sup>가 있다. 원당사는 삼양동 원당봉에 위치하고 있다. 부분적인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2동이 확인되었고 다량의 도자기와 기와편이 출토되어 축조시기를 가늠케 하고 있다. 확인된 2동의 건물지는 각각 정면 5칸, 측면 2~3칸 이상의 건물지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막새는 수막새 2종(연화문, 국화문)과 암막새 3종(나선형문, 연화문, 초화문)이 수습되었다. 평기와는 어골문을 비롯하여 모두 39여종이 확인되었다. 한편 도자기류는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를 비롯하여 중국제 청자와 백자도 소량 출토되었다. 청자는 10세기 중반경 제작된 것, 11~12세기 제작된 것,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구분되는데, 11~12세기대에 만들어진 도자기의 양이 가장 많다. 따라서 원당사지 건립시기는 대략 13세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유적현황은 표5)와 같다.

17)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元堂寺址』.

제주대학교박물관, 1988, 『水精寺·元堂寺 地表調査報告書』.

【표 5】 고려시대 제주도 북부지역 유적현황

연번	유적명	유형	유구현황	출토유물	비고
1	원당사지	사찰유적	건물지	막새, 평기와, 청자, 분청사기, 백자	

### 3. 함덕리(咸德里)의 마을 형성과 연혁

함덕리는 제주시 중심에서 동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해안마을이다. 국민관광단지인 함덕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함덕리의 식수(食水)인 용천수(湧泉水)로는 시금물·흘물·숫두물·드름물·든물·도릿개물(감수천)·거시물(사래물)·말머루물(용수정)·비석거리통물·통물·큰도물(남탕)·큰도물(여탕)·소래물·거루물·고도물(남탕)·고도물(여탕)·돈톡물(1)(중톡물)·돈톡물(2)(중톡물)·서모물(돈물각) 등이 있다. 또한 하천으로는 함덕내[咸德川]가 있다.

함덕리의 옛 이름은 ‘함덕(咸德)’과 ‘고여못[古與池·古與池]’이다. 함덕은 일찍부터 한자로 표기하였다. 그러므로 ‘함(咸)’과 ‘덕(德)’이 음독자인지 음가자인지 확실하지 않다<sup>18)</sup>. 고여지(古餘池·古與池)는 ‘고여못’ 또는 ‘고연못’의 한자차용 표기로, 모두 ‘물이 고인 못’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구설(舊說)에 신라에서 고후(高厚)를 봉할 때에 촌(村)을 두었고 고려 의종(毅宗) 때에 또 나누어 현(縣)을 설치하였다가 원종(元宗) 때에는 삼별초를 평정하고 합하여 하나의 주(州)로 만들었다<sup>19)</sup>. 특히 고려 숙종(肅宗) 10년(1105)에 탐라군(耽羅郡)에서 의종(毅宗, 1146~1170년) 때에 탐라현(耽羅縣)으로 강등(降等)되었으며 고종(高宗, 1213~1259) 때에는 다시 탐라군로 바뀌었다가 충렬왕 21년(1295)에 제주목(濟州牧)으로 편제되었다. 그 와중에 고려·몽고군은 삼별초(三別抄)에 대해 2차의 회유책도 실패로 돌아가자 삼별초 정벌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종 14년(1273) 2월에 고려·몽고군의 김방경 장군은 혼도 등과 함께 전라도의 선박 160척에 수륙병 1만여 명을 싣고 탐라 정벌에 나섰다. 그리하여 김방경 장군은 중군(中軍)에게 함덕개[咸德浦]로부터 진공(進攻)해 들어갔다. 적[삼별초-필자주]들은 바윗돌 사이에 복병을 배치하고 있다가 뛰쳐나오며 고함을 치면서 중군의 진격을 막았다<sup>20)</sup>. 이 때 ‘함덕개[咸德浦]’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함덕(咸德)이라 불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충렬왕 26년(1300)에 이르러 원나라는 탐라총관부(耽羅總管府)를 설치하여 몽고의 직할지로 바꾸었다. 또 같은 해에 동서도현(東西道縣)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른 속현(屬縣)은 동도의 신촌

18) 오창명, 1998,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411~413쪽.

오창명, 2004,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39~241쪽.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행정명사·제주시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329~333쪽.

고광민, 2004, 『濟州島浦口研究』, 각 출판사, 73~75쪽.

19) 李元鎮, 『耽羅志』 「濟州 - 建置沿革」條.

按舊說 新羅封高厚時置村 高麗毅宗時 又分爲縣 元宗時平別抄 合爲一州.

20) 『高麗史』 「列傳-金方慶」元宗 十四年 夏四月,

方慶更鍊卒 并水軍萬餘人 與忻都茶丘屯潘南縣 將發 諸道戰船 皆爲風簸蕩 獨以全羅道 一百六十艘 … 中略 … 方慶仰天息日 社稷安危 在此一舉 今日之事 不在我乎 俄而風浪止 中軍入自咸德浦 賊伏兵岩石間 踴躍大呼以拒之.

현(新村縣)·함덕현(咸德縣)·김녕현(金寧縣)·토산현(兔山縣)·호아현(狐兒縣)·홍로현(洪爐縣)과 서도의 귀일현(貴日縣)·고내현(高內縣)·애월현(涯月縣)·곽지현(郭支縣)·귀덕현(歸德縣)·명월현(明月縣)·예래현(猊來縣)·산방현(山房縣)·차귀현(遮歸縣<sup>21)</sup>) 등이다. 주현(主縣)인 탐라현(耽羅縣)과 그 정무(政務)를 행사하는 곳[治所]인 대촌현(大村縣), 속현(屬縣)인 15개이다. 주현은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된 행정구역인데 반하여 속현에는 원칙적으로 외관(外官)이 파견되지 않고 외관이 있는 주읍(主邑)에 종속되어 있다.

한편, 조선(朝鮮) 태종 16년(1416)에 종래의 17현을 제주 본읍(濟州本邑)과 대정(大靜), 정의(旌義) 양현(兩縣)으로 통합 및 정비를 하였다. 태종 16년(1416) 5월에 본읍(本邑)에는 동도의 신촌현·함덕현·김녕현과 서도의 귀일현·고내현·애월현·곽지현·귀덕현·명월현을 소속시켰다. 동도의 현감(縣監)은 정의현(旌義縣)으로 본읍(本邑)을 삼고, 토산현·호아현·홍로현 3현을 소속시키고 서도의 현감은 대정현(大靜縣)을 본읍(本邑)으로 삼아 예래현·차귀현 2현을 소속시켰다<sup>22)</sup>. 이로써 13개의 속현(屬縣)은 직촌(直村)<sup>23)</sup>이 되었다. 이 직촌은 중간 임내(任內)의 통치기구인 현사(縣司) 또는 현리(縣吏)·장리(長吏)를 매개하지 않고 제주목과 정의현·대정현의 수령(守令)이 직접 지배하고 있는 주읍(主邑)의 직할촌(直轄村)이다. 이들 직촌은 종래의 고유 이름을 그대로 지닌 채 점차 면리(面里)로 개편되었다. 앞서 열거한 13개의 직촌은 지역촌(연합촌)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충렬왕 26년(庚子; 1300)에 동서도현(東西道縣)을 설치할 때에 속현(屬縣)은 동도의 신촌현(新村縣)·함덕현(咸德縣)·김녕현(金寧縣)·토산현(兔山縣)·호아현(狐兒縣)·홍로현(洪爐縣)과 서도의 귀일현(貴日縣)·고내현(高內縣)·애월현(涯月縣)·곽지현(郭支縣)·귀덕현(歸德縣)·명월현(明月縣)·예래현(猊來縣)·산

21) 李元鎮, 『耽羅志』 「濟州 - 建置沿革」 條,

忠烈王 二十六年庚子 設東西道縣 縣村即貴日高內涯月郭支歸德明月新村咸德金寧狐村洪爐猊來山房遮歸等地也.

22) 『太宗實錄』太宗 十六年 五月 丁酉條.

23) 中宗 命撰,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三十八卷 「濟州牧 - 古跡」 條,

高內縣：在州西四十五里

涯月縣：在州西四十二里

郭支縣：在州西五十里.

歸德縣：在州西六十里 高麗 熙宗 七年 陞州之石淺村 爲歸德縣

明月縣：在州西六十里

新村縣：在州東二十五里

咸德縣：在州東三十里

金寧縣：在州東五十里

○ 以上各縣 皆爲直村.

中宗 命撰,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三十八卷 「旌義縣 - 古跡」 條,

兔山縣：在縣南十五里

狐兒縣：在縣西五十里

洪爐縣：在縣西六十一里

○ 以上俱爲直村.

中宗 命撰, 『新增東國輿地勝覽』 第三十八卷 「大靜縣 - 古跡」 條,

猊來縣：在縣東二十五里 ○ 今爲直村.

24) 고창석, 2006, 「제1장 濟州의 設村 - 제1절 조선(朝鮮) 초기의 직촌제」 『安德面誌 - 마을편』, 안덕면, 73~75쪽.

방현(山房縣)·차귀현(遮歸縣) 등이다. 이에 따라 대촌에는 호장(戶長)<sup>25)</sup> 3인, 정자[城上]<sup>26)</sup> 1인을 두고, 중촌에는 호장 3인, 소촌에는 호장 1인을 두었다<sup>27)</sup>. 함덕현은 15 속현 중에 중간의 마을로 추정되므로 호장(戶長) 3인(人)의 현리(縣吏)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고려 충렬왕 26년(1300)에 동서도현을 설치할 때에 두었던 함덕현(咸德縣)에는 토호적 존재로서 상당한 세력을 지녔던 호장(戶長) 3인이 직접 다스렸던 것을 조선 태종 16년(1416)에 이르러서 제주목(濟州牧)에 합속(合屬)시켰다.



삽도 1. 『동여비고(東輿備攷)』 중 「제주도도(濟州島圖)」에 나타난 함덕현(咸德縣)과 함덕개[咸德浦]

함덕현은 태종 16년(1416) 이후에는 함덕촌(咸德村)으로 변모했음을 파악 할 수가 있다. 함덕현은 고려시대 속현(屬縣)의 하나였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은 숙종(肅宗) 8년(1682)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여비고(東輿備攷)』 중 「제주도도(濟州島圖)」에는 강림사(江臨寺) 동쪽에 함덕현(咸德縣)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함덕현은 제주목으로부터 20리였으며 그 밑으로 함덕개[咸德浦]가 표기되어 있다.

고려 원종 14년(1273)에 ‘함덕개[咸德浦]’라고 부르는 곳에는 조선 성종(中宗) 12년(1481)에 ‘돌다리[石橋]가 함덕개[咸德浦]에 있는데 길이는 1백 10보이다. 다리 북쪽에는 바다 언덕이 벽처럼 서서 높고 급하다<sup>28)</sup>. 또 함덕개는 제주 동쪽 31리에 있다<sup>29)</sup>. 함덕현(咸德縣)은 제주 동쪽 30리에 있다<sup>30)</sup>’ 라고 하였다. 이 당시에 함덕현과 함덕개의 거리는 1리(里, 400m)가 떨어져 있다. 이 함덕개[咸德浦] 어귀에는 강림사(江臨寺)가 있었다<sup>31)</sup>. 이 강림사는 선조(宣祖) 34년(1601) 10월 12일에 ‘점심을 먹은 후에 김녕폐현(金寧廢縣)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가던 길의 중간에 한 마을의 길에서 나와 마을을 마주보고 있는 곳에 황폐한 절[廢寺]이 있는데 단지 초가집[草屋]의 몇 칸일 뿐이다. 곧 원나라 때에 세운 강

25) 호장(戶長)은 고려시대 향리직의 우두머리이다. 고려시대에는 지방의 토호적(土豪的) 존재로서 상당한 세력을 가졌으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던 속현(屬縣)을 직접 다스리기도 하였다.

26) 정자[城上]는 고려·조선시대 때에 각 관아(官衙)의 기물(器物)을 맡아 지키던 하례(下隸)이다.

27) 李元鎮, 『耽羅志』 「濟州 - 建置沿革」 條,

忠烈王 二十六年庚子 設東西道縣 縣村卽貴日高內涯月郭支歸德明月新村咸德金寧狐村烘爐峯來山房遮歸等地也 大村卽 設戶長三人城上一人 中村戶長三人 小村一人.

28)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 橋梁」 條,

石橋：在咸德浦 長一百一十步 橋北海岸壁立高峻

29)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 山川」 條,

咸德浦 在州東三十一里.

30)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 古跡」 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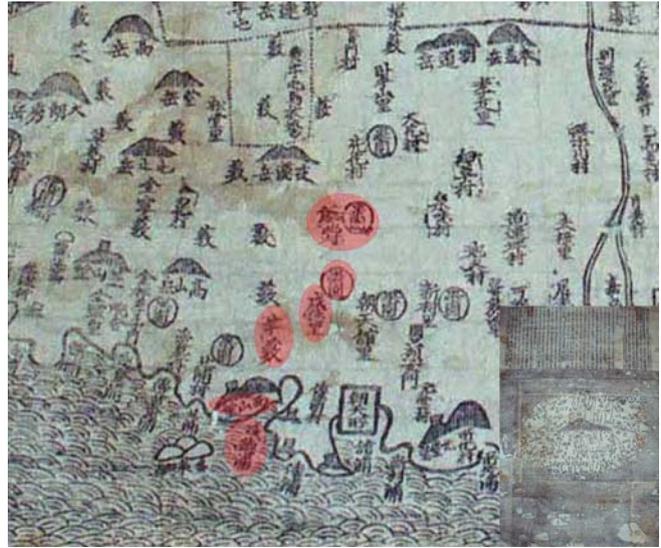
咸德縣 在州東三十里.

31) 『新增東國輿地勝覽』 「濟州牧 - 佛宇」 條,

江臨寺：在州東咸德浦口.

림사(康臨寺)이다. 절 앞에는 돌기둥[華表]이 있고, 그 아래 바위를 빙빙 돌아 자연적으로 못[塘]의 모양을 이루었다. 바닷물[海潮]은 못의 입구로 드나드니 돌로 쌓은 독[石堤]을 쌓아서 못을 갈라서 길을 열었다<sup>32)</sup>라는 기록이 나온다. 선조(宣祖) 34년(1601)에 함덕개는 병선(兵船)을 정박시켜 돌만 한 곳이였다<sup>33)</sup>.

또한, 효종(孝宗) 4년(1653)에 ‘제주성 동쪽 30리에는 권못[潑池]’이 있다. 이를 민간에서는 ‘고여못[古餘池]’이라 한다<sup>34)</sup>. 이 ‘권못’ 남쪽에 권못과원[潑池果園]<sup>35)</sup>의 형성되면서부터 ‘권못마을[潑池村]<sup>36)</sup>’이 설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678년 이후부터 1700



삽도 2.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난 과원(果園)· 권못촌[潑池村]· 과원(果園)· 함덕마을[咸德里]· 못[藪]· 우진못[芋藪]· 서산망(西山望)· 함덕개[咸德浦]

년 사이에 제작된 「탐라도(耽羅圖)」에는 과원(果園)· 권못촌[潑池村]· 과원(果園)· 함덕마을[咸德里]· 못[藪]· 우진못[芋藪]· 서산망(西山望)· 함덕개[咸德浦]로 표기되어 나오고 있다.

영조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 사이에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sup>37)</sup>』 권5 「제주(濟州) - 면촌(面村) 증(增)」에 ‘좌면(左面)의 소면(小面)에는 신촌면(新村面)· 조천관면(朝天館面)· 김녕면(金寧面)· 별방면(別防面)의 4개가 있다. 이 가운데에 조천관면에는 조천(朝天)· 함덕(咸德)· 고여못[古與池]· 선흘(先訖)· 뒷개[北浦]를 합하면 5개 마을<sup>38)</sup>’이 있다. 이 당시에 제주목의 대면(大面)에는 4개에 풍헌(風憲) 각 1인이 있다. 소면(小面)은 12개에 약정(約正) 각 1인이 있으며 81개 마을에는 마을마다 경민장(警民長)· 권농(勸農)· 기찰관(機察官)· 포도(捕盜)· 존위(尊位)· 동장(洞長)· 이임(里

32) 『南槎錄』 辛丑 十月 十二日,

中火後 到金寧廢縣 高麗時置驛 入我朝亦設防護所 今並廢 在州東六十五里 暫憩 中路有一村 臨道對村有廢寺 只草屋數間而已 乃元時所建康臨寺 寺前有華表 其下廻巖自成塘形 海潮自塘口相通 仍築石堤截塘開道.

33) 『南槎錄』 辛丑 十二月 二十日,

兵船可泊 … 中 略 … 咸德浦 東三十里 金方慶討三別抄時 中軍由此浦入.

34) 『耽羅志』 「濟州 - 山川」條,

潑池 俗稱古餘池 在州東三十里.

35) 『耽羅志』 「濟州 - 果園」條,

潑池：在潑池南 柚三十二根 柑三根 山橘青橘各四根 新栽各果二十四根 梔十七根 漆五十三根 楮六十根 冬栢十三根.

36) 「탐라도(耽羅圖)」에는 과원(果園)· 권못마을[潑池村]로 표기되어 있다.

37)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는 영조 41년(1765) 8월부터 영조 42년(1766) 6월 사이에 윤시동(尹著東) 제주목사가 편찬했다.

38) 『增補耽羅誌』 「濟州 - 面村(增)」條,

左面 小面四 新村面 朝天館面 金寧面 別防面  
朝天館面 朝天 咸德 古與池 先訖 北浦 合五里.

任)·색장(色掌)·지심(指審)·유사(有司)가 각 1인이 있어 모두 서무(庶務)를 담당했다<sup>39)</sup>.

정조 9년(1785) 2월 이후에 편찬한 『제주읍지(濟州邑誌)』 「방리(坊里) - 좌면(左面)」에 “함덕마을[咸德里]은 동쪽으로 35리에 떨어져 있다. 백성들이 사는 집은 110호이며 남자가 367명이고 여자는 432명이다<sup>40)</sup>”라고 했다. 이를 통하여 영조 41~42년(1765~1766) 사이에 나타났던 고여못마을이 이때에 이르러 함덕마을로 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순조(純祖) 26년(1826)에 작성된 『감시절목(減柴節目)<sup>41)</sup>』에도 함덕(咸德)<sup>42)</sup>마을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1872



삽도 3.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응종내[應從川]·과원(果)·함덕리(咸德里)·서산봉(西山烽)·함덕개[咸德浦]

년에 제작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제주지도(濟州地圖)」에도 응종내[應從川]·과원(果)·함덕리(咸德里)·서산봉(西山烽)·함덕개[咸德浦]가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고종(高宗) 27년(1890)에 함덕(咸德)마을의 인구는 1,063명<sup>43)</sup>이었다. 그러다가 14년 후인 광무(光武) 8년(1904)에 편찬한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신좌면(新左面) 9리(里)」에 ‘함덕(咸德)의 연기가 나는 집(煙戶)은 442호(戶)이며 남자가 587구(口)이고 여자는 618구인데 합계가 1,255구이다. 기와집[瓦家]은 15칸이며 초가집[草家]이 1,204칸인데 합계가 1,219칸이다<sup>44)</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1929년에 함덕(咸德)의 호수(戶數)는 682호이며 인구수(人口數)로는 남자가 1,359명이고 여자는 1,391명으로 합계가 2,750명이었다<sup>45)</sup>.

39) 『增補耽羅誌』 「濟州 - 面村(增)條」.

○凡州大面四 風憲各一人 小面十二 約正各一人 八十一里 每里 警民長 勸農 機察官 捕盜 尊位 洞長 里任 色掌 指審 有司 各一人 共掌庶務.

40) 『濟州邑誌』 「坊里條」.

面四 里七十九 民戶六千六百九十二 男一萬七千七十四 女二萬二千三百,

左面 咸德里 東距三十五里 民戶一百十 男三百六十七 女四百三十二.

41) 『감시절목(減柴節目)』은 순조 26년(1826)에 관(官)에서 받아들여던 땔감을 절감하는 절목이다.

42) 『減柴節目』 「各洞里所納炭草及減給眞荏戶鷄區別秩」.

下道 上道 細花 坪代 怪伊 魚等 無注 北浦 咸德 新村 道連 細刷 奉蓋 所屹 下無 上無 別羅 臥屹 右十八里 永減燒木 只捧青草.

43) 「庚寅十二月日 三邑還弊及庶癘革祛節目」 「本州 - 新左面」.

咸德人口 一千六十三 分米一百十六石三斗三升二合.

44) 「光武八年一月日 三郡戶口家間總冊」 「新左面 - 九里」.

咸德煙家 四百四十二戶 男五百八十七口 女六百十八口 合一千二百五十五口 瓦家十五間 草家一千二百四間 合一千二百十九間.

45) 善生永助, 1929, 『濟州島生活狀態調查』 「Ⅱ. 部落 - 新左面」.

현재 함덕리는 본동(本洞)과 평사동(平沙洞)이란 2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본동은 지금의 함덕마을 중앙 일대에 이루어진 마을이며 평사동은 ‘서모오름’ 서남쪽 기슭에 형성된 마을인 ‘왜막’ 일대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함덕중학교 남쪽에 새로 생긴 동네는 신사동(新沙洞)이라 한다. 마을에서는 알가름과 비석거리, 삼심미르 일대의 1구, 웃동네와 개두묵, 펼뭇, 수낭굴 일대의 2구, 웃두뭇과 정드남미르, 젓굴동네(절골) 일대의 3구, ‘왜막’과 평사동 일대의 4구, 상장머체와 택지조성지구 일대의 5구 등 5개 구로 나누고 있다.

### Ⅲ. 조사방법 및 층위

#### 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인 조천읍 함덕리 일대는 유적이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다.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 함덕리 유물산포지가 알려져 있으나 당대 유물은 극소량이며 주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기와와 백자 등의 유물을 포함하고 있다. 주변에 분포하는 함덕연대, 방사탑 등 대부분의 유적도 조선시대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 일대에 조선시대 ‘함덕현’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선사시대의 유적은 동쪽으로 5km 가량 떨어진 북촌리 일대와 서쪽으로 7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삼양동유적 등이 있다.

조사대상지 내에는 지표 상에 암반이 돌출되어 있는 곳이 많다. 특히 남편과 중앙부에는 지표보다 50cm 이상의 높이로 암반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또한 중앙의 암반 사이에는 현대의 분묘가 돌담을 두른 상태로 자리하고 있다. 암반 사이에 유구가 유존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매납과 관련된 유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노출하여 관찰하였다.

중장비를 이용하여 상부 경작층과 퇴적층을 제거하였는데 암반이 용기된 부분은 암반까지 제토하였고 암반사이에 확인되는 퇴적층은 돌무더기가 확인되는 층위까지 하강하였다. 돌무더기는 선사 및 역사시대의 적석유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부를 동원하여 노출작업과 탐색트렌치 설치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인위적인 적석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지의 동편에서는 평면 원형의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상부에서 인위적인 적석양상과 소량의 기와 및 자기편이 확인됨에 따라 수혈유구로 판단하였다. 수혈유구에 대한 조사는 우선 상부의 적석부분에 대한 노출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후 유구 내부 퇴적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유구의 절반에 대해 먼저 하강조사를 진행하였다. 하강조사 후 드러난 단면을 통해 유구 폐기 후 퇴적양상을 조사한 후 나머지 절반을 제거하여 유구 벽체와 바닥면의 굴착 양상을 파악하였다. 조사의 모든 과정은 사진과 도면으로 기록하였고 현상을 기술하여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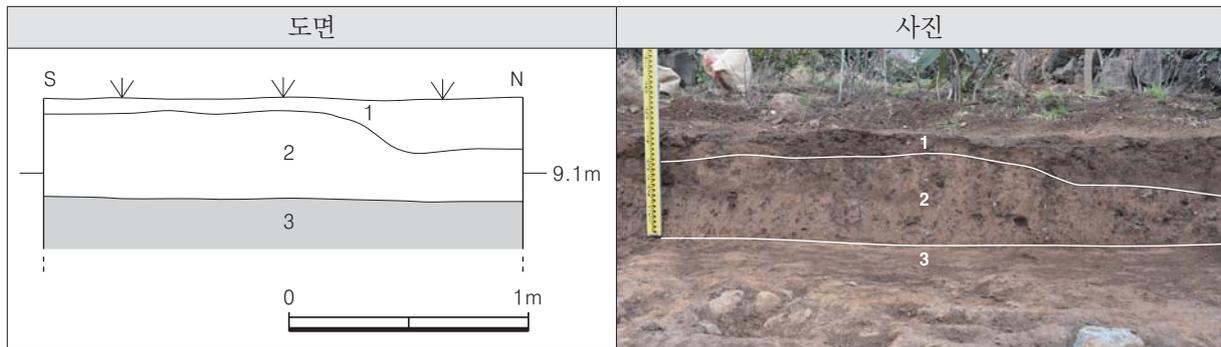
조사과정에서 비교적 잔존상태가 양호한 유물들을 수습하였는데 대부분 표토 및 제토면 정리 과정에서 확인된 것들이다.

#### 2. 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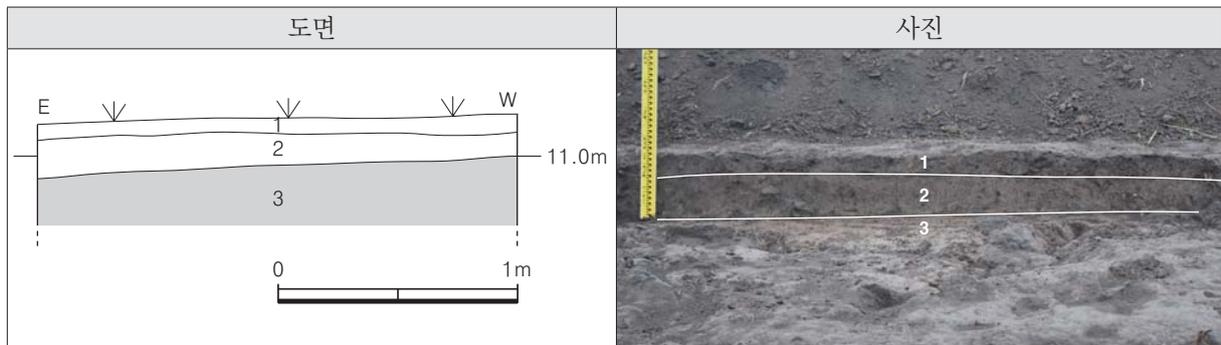
조사대상지의 지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낮아지고 있다. 동쪽과 북쪽 인접 지번으로 약간의 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경지정리과정에서 평탄하게 삭평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지 내에는 전반적으로 남동편에서 중앙으로 지표 보다 높게 암반이 솟아올라 있다. 지표 위로 형성된 암반층은 이외에도 곳곳에서 관찰된다. 조사대상지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현대 분묘 주변에서도 지표상에서 암반이 확인된다. 이렇듯 조사대상지 내에는 전반적으로 암반층이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그 틈새에 퇴적층이 얇게 퇴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암반층 상부에는 문화층이나 자

연퇴적층 없이 경작층이 10~20cm 가량의 두께로 얇게 표토층을 형성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지의 북편에는 보다 두터운 퇴적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일대에 퇴적층이 가장 잘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일대의 토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층 : 암갈색부식토층(Hue 10YR 3/3)으로 표토층이다. 두께는 10~20cm 내외이다.
- 2층 : 흑갈색사질토층(Hue 10YR 3/2)으로 복토층이다. 잔자갈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 두께는 30cm 내외이다.
- 3층 : 대체로 암반층이나 일부 황갈색점토층(Hue 10YR 5/6)이 형성되어 있는 생토층이다.



삼도 4. 조사대상지 북서편 토층



삼도 5. 조사대상지 남편 토층

## IV. 조사내용

조사방법과 층위내용 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사대상지는 부분적으로 암반이 노출되어 있으며 용기된 암반의 사이사이를 복토한 후 경작을 진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토과정에서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동편 암반 사이에서는 돌무더기를 확인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 및 선사시대의 적석유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출작업과 탐색트렌치 설치작업을 병행하여 유구확인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조사결과 정형성 있는 유구로 볼 수 있을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돌무더기는 경지정리과정에서 비교적 얇은 부분을 깨어진 암반을 이용해 채워 넣어서 경지를 수평으로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은 모두 제토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대부분 2층인 복토층에서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경지정리과정에서 조사대상지 주변의 토양과 함께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된 유물은 청자와 백자 저부편 및 기와편으로 온전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자 저부편은 고려말로 추정되며 백자는 비교적 높은 저부굽을 보이고 있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무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와편도 격자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백자편과 병행하는 시기의 유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일대는 고려말에서 조선 중기에 걸친 유적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사대상지 내에 자리하고 있는 현대 분묘를 둘러싼 돌담 내부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돌담 내부 표토 상에 대부분 암반이 노출되어 있어 이 지점에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에서 유구는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동편 경계에 인접하여 1기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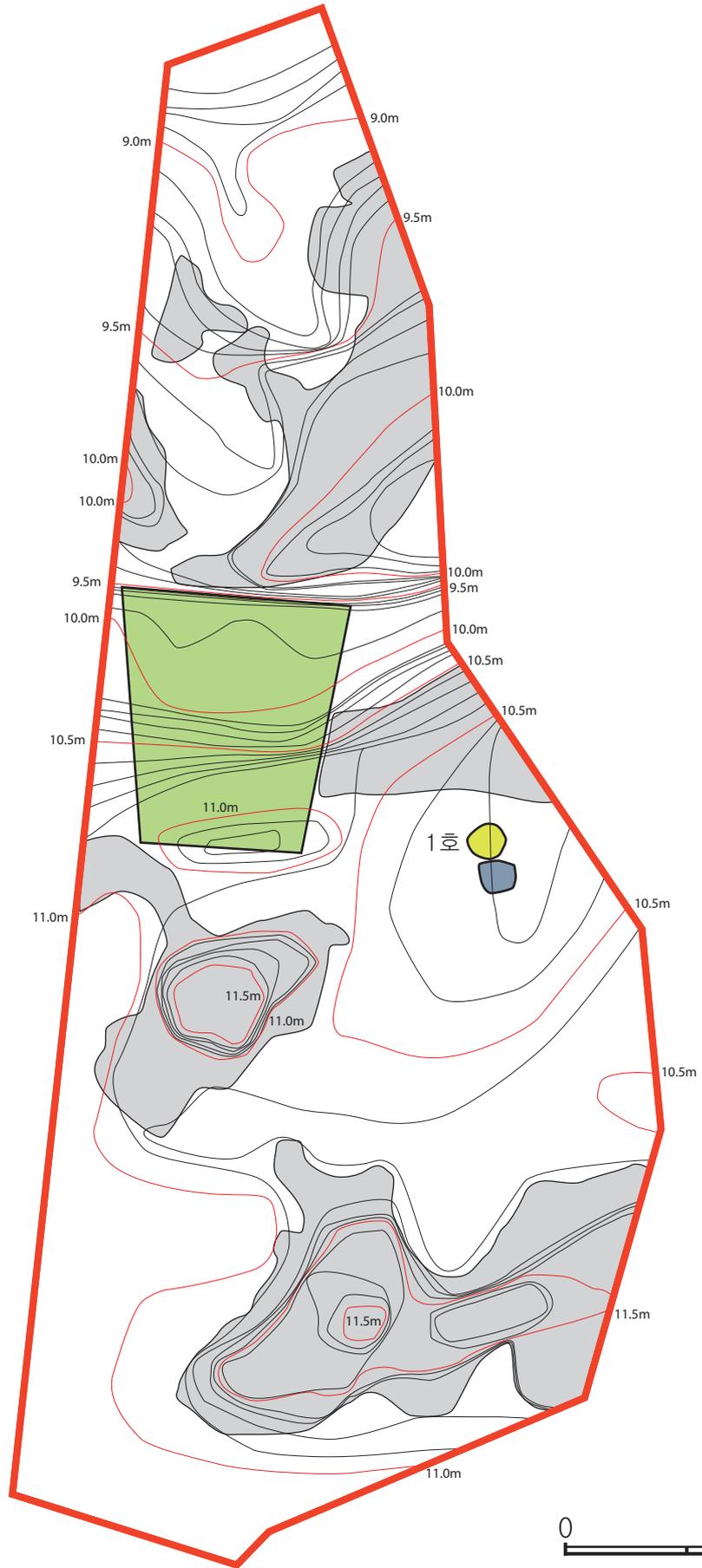
### 1) 1호 수혈유구

#### (1) 유구(도면 7, 도판 3~4)

1호 수혈유구는 조사대상지의 중앙부 동편 경계 가까이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유구의 굴광선은 경작층(암갈색부식토층, Hue 10YR 3/3)과 복토층(흑갈색사질토층, Hue 10YR 3/2) 하부인 암반층 상면에서 확인되었는데 주변에 문화층은 잔존하지 않는다. 표토에서 굴광선 확인 위치까지의 깊이는 40cm 정도이다.

유구의 조사는 상부에 적석양상이 확인됨에 따라 우선 적석부분 노출작업을 먼저 진행하였다. 그 후 유구의 절반을 남겨두고 하강조사를 진행하였고 남겨진 절반의 단면을 통해 내부로 퇴적양상을 파악하였다. 퇴적양상을 기록한 후 남은 부분을 제거하여 유구의 벽체와 바닥면의 굴착양상을 파악하여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조사의 모든 과정은 도면과 사진으로 기록하였고 현상에 대한 기술작업을 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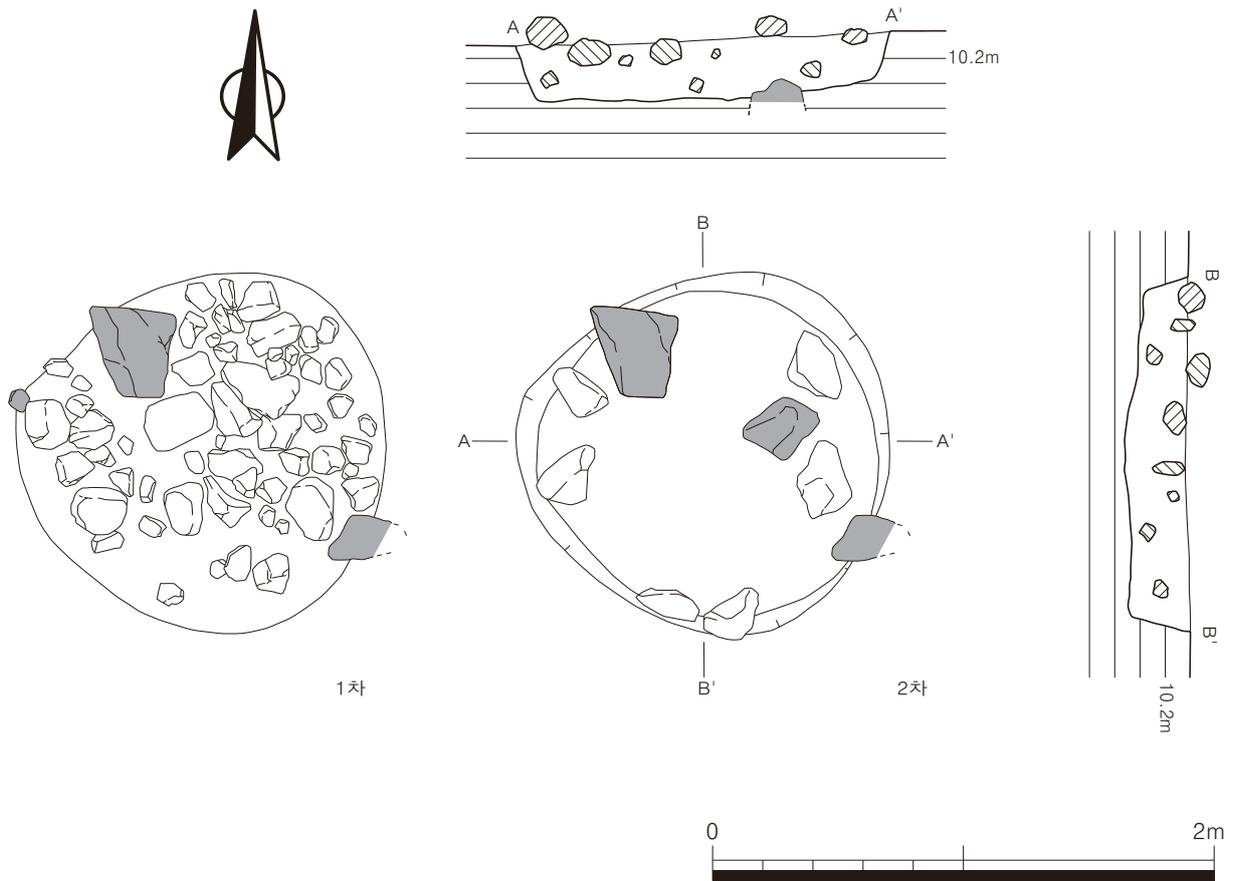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깝고 장축방향은 E-W이다. 규모는 장축 149cm, 단축 142cm, 깊이 26cm이다. 유구의 내부퇴적토는 단일토층으로 흑갈색사질점토층(Hue 7.5YR 3/1)에 해당한다. 퇴적토 내부에는 크고 작은 할석이 무질서하게 섞여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구의 벽체는 생토층(황갈색점토층, Hue 10YR 5/6)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는데 어깨선에서 바닥면까지 사선에 가깝고 바닥면은 일부 암반이 드러나 있어 요철면이 확인된다. 유구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범례	
	조사대상지
	수혈유구
	암반용기범위
	현대 분묘
	현대 교란

도면 6. 유구배치도





도면 7. 1호 수혈유구

## 2) 지표수습유물

### 1. 청자 저부편(도면 8-1, 도판 5-①-1)

청자 저부편으로 전체가 잔존한다. 제토과정 중 복토층에서 출토되었다. 남아있는 기벽은 사선으로 올라간다. 문양은 확인되지 않는다. 태토는 정선되었고 용융상태가 양호하다. 유는 청록색을 전면에 시유하였으나 굽에는 소성과정에서 유가 잘 녹지 않아 발색되었다. 굽은 낮은 수직굽이다. 그릇 안바닥에는 3개의 내화토비집을 받쳐 구어 깎아낸 흔적이 있다.

現高 3.0cm, 底徑 5.2cm, 厚 0.4cm

### 2. 백자 저부편(도면 8-2, 도판 5-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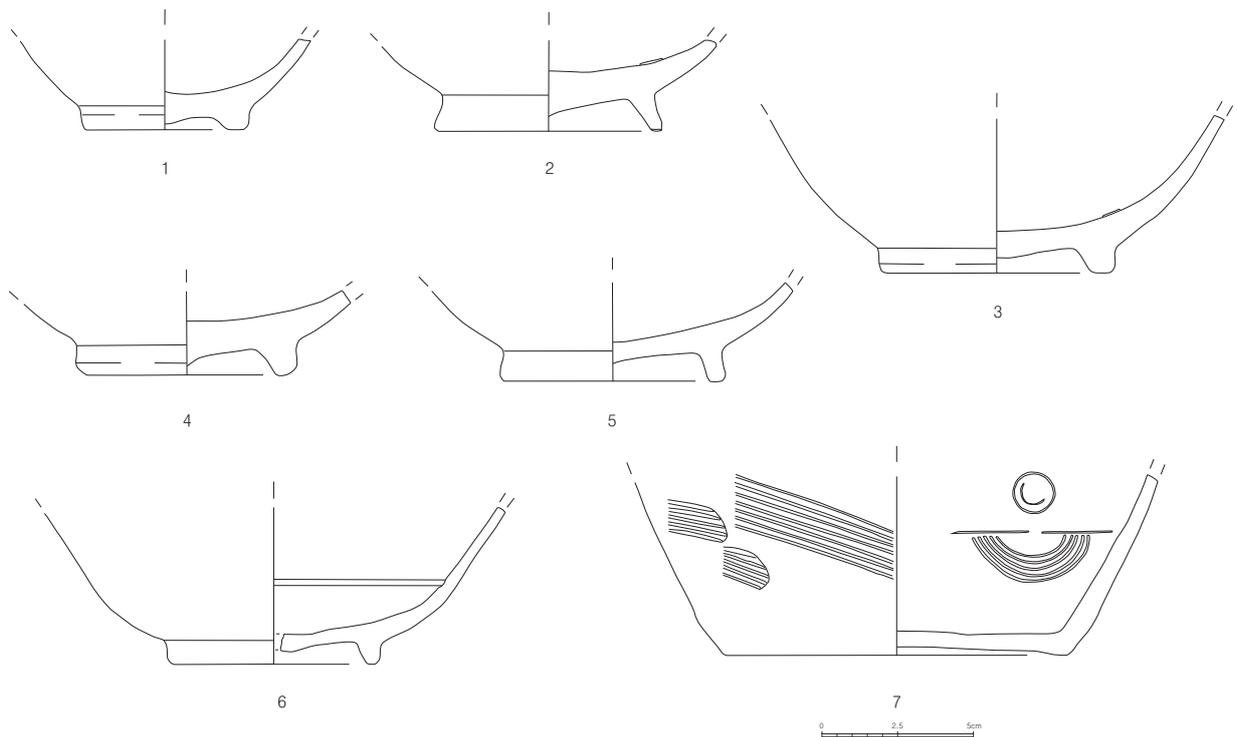
백자 저부편으로 전체가 잔존한다. 제토과정 중 복토층에서 출토되었다. 남아있는 기벽은 사선으로 올라간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였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고 용융상태가 양호하다. 굽은 깎음새가 단정하고 폭이 고르다. 굽의 접지면과 그릇 안바닥에는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0cm, 底徑 7.2cm, 厚 0.4cm

## 3. 백자 저부편(도면 8-3, 도판 5-①-3)

백자 저부편으로 일부가 훼손되었다. 제토과정 중 복토층에서 출토되었다. 남아있는 기벽은 곡선으로 올라간다. 유약은 광택이 있는 백자유를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였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으며 용융상태는 불량하고 외면에 기포가 있다. 굽은 각음새가 단정하고 폭이 고르다. 그릇 안바닥에는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5.2cm, 底徑 7.6cm, 厚 0.4cm



도면 8. 지표수습유물

## 4. 백자 저부편(도면 8-4, 도판 5-①-4)

백자 저부편으로 전체가 잔존한다. 제토과정 중 복토층에서 출토되었다. 남아있는 기벽은 사선으로 올라간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으며 용융상태가 불량하고 외면에 기포가 있다. 굽은 각음새가 단정하고 폭이 고르다. 굽의 접지면과 그릇 안바닥에는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2.8cm, 底徑 6.6cm, 厚 0.6cm

## 5. 백자 저부편(도면 8-5, 도판 5-①-5)

백자 저부편으로 절반정도 잔존한다. 제토과정 중 복토층에서 출토되었다. 남아있는 기벽은 사선으로 올라간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으며 용융상태가 불량하고 외면에 기포가 있다. 굽은 각음새가 단정하고 폭이 고르며 팔(八)자상으로 벌어진다. 그릇 안바닥에는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 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現高 3.3cm, 底徑 7.2cm, 厚 0.4cm

6. 백자 저부편(도면 8-6, 도판 5-①-6)

백자 저부편으로 절반정도 잔존한다. 제토과정 중 복토층에서 출토되었다. 남아있는 기벽은 곡선으로 올라간다. 유약은 백자유를 굽을 제외한 전면에 시유하였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으며 용융상태가 불량하고 외면에 기포가 있다. 굽은 각음새가 단정하고 폭이 고른 수직굽이다. 그릇 안바닥에는 굽은 모래를 받쳐 포개구운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내면에 1조의 횡침선이 시문되었다.

現高 5.2cm, 底徑 6.6cm, 厚 0.3cm

7. 백자 저부편(도면 8-7, 도판 5-①-7)

백자 저부편이다. 항아리로 추정되며 일부 훼손되었다. 제토과정 중 복토층에서 출토되었다. 남아있는 기벽은 사선으로 올라간다. 유약은 백자유를 부분적으로 시유하였다. 태토는 정선되어 있으며 용융상태는 다소 불량한 편이다. 굽이 없는 평저인데 저부 가운데가 살짝 들려 있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의 평행선이 여러 조 확인되며 내면에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관찰된다.

現高 6.0cm, 底徑 11.2cm, 厚 0.4cm

## IV. 조사성과

금번 조사는 윤연신 씨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363번지에 추진 중인 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이다. 조사면적은 1,025㎡이다.

조사대상지는 북동쪽 해안으로부터 350m 가량 떨어진 해발 15m 내외의 평탄대지 상에 자리하고 있다. 남쪽에는 200m 정도의 거리에 신촌과 북촌을 잇는 ‘신북로’가 동서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 다시 남쪽으로 750m 가량 가면 일주동로(지방도 1132호선)가 동서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조사대상지 주변부는 대부분 경작지이며, 이 경작지를 둘러싸고 임야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지는 함덕리의 북서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곳으로 서쪽으로 ‘신흥로’를 경계로 신흥리와 구분된다. ‘신흥로’와 ‘신북로’가 만나는 주변에 함덕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인 조천읍 함덕리 일대는 유적이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다. 선사시대 유적으로 함덕리 유물산포지가 알려져 있으나 선사시대의 유물은 극소량이며 주로 조선시대의 유물을 포함하고 있다. 주변에 분포하는 함덕연대, 방사탑 등 대부분의 유적도 조선시대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지 일대에 조선시대 ‘함덕현’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선사시대의 유적은 동쪽으로 5km 가량 떨어진 북촌리 일대와 서쪽으로 7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삼양동유적 등이 있다.

조사대상지의 층위는 크게 3개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층은 암갈색부식토층(Hue 10YR 3/3)으로 경작이 행해진 표토층이다. 두께는 10~20cm 내외이다. 2층은 흑갈색사질토층(Hue 10YR 3/2)으로 복토층이다. 잔자갈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다. 두께는 30cm 내외이다. 3층은 대체로 암반층이나 일부 황갈색점토층(Hue 10YR 5/6)이 형성되어 있는 생토층이다.

이번 조사에서 수습된 유물은 모두 제토과정에서 수습된 것이다. 청자와 백자 저부편 및 기와편으로 온전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자 저부편은 고려말로 추정되며 백자는 비교적 높은 저부굽을 보이고 있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무렵의 것으로 판단된다. 기와편도 격자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백자편과 병행하는 시기의 유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일대는 고려말에서 조선 중기에 걸친 유적이 존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구는 원형의 수혈유구가 1기 확인되었다. 내부에는 할석이 내부토와 혼재되어 폐기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구 내부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 도 판





도판 1. 유적(①:전경[공중촬영, 동에서], ②:전경[북에서])



도판 2. 유적(①:전경[공중촬영, 서에서], ②:북편 세부[동에서])



도판 3. 1호 수혈유구(①:1차조사 후 전경[북에서], ②:2차조사 후 전경[북에서])



도판 4. 1호 수혈유구(①:단면[남에서], ②:조사완료 후 전경[북에서])



도판 5. 1~7: 지표수습유물, ①: 학술자문회의



부  
록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명칭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363번지 비닐하우스 설치부지 내 소규모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제2017-1533호)		
유적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363번지		
조사면적	1,025m <sup>2</sup>	조사기관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조사기간	2017. 12. 04 ~ 2017. 12. 18.	회의 일시	2017. 12. 19.
유적현황 및 성격	본 조사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363번지 비닐하우스 설치 부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로 조사결과 수혈유구 1기, 유물포함공에서 청자 및 백자편이 확인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해야 함.		
조사기관 검토의견	조사관의 총위해석 및 유구, 유물에 대한 견해 등 조사방법과 해석은 대체로 타당하다.		
추가 의견	확인된 유구와 유물에 대한 기록 보존을 권유하고 계획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는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자 문 위 원			
소 속		성 명	
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김 중 찬 (인)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부장		박 근 태 (인)	
2017년 12월 19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귀하			

## 제주 함덕리 3363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 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533 -0001	청자 저부편	1	지표수습	토도	고려	3.0		5.2 (0.4)	8-1 5-①-1	
2017-1533 -0002	백자 저부편	1	지표수습	토도	조선	3.0		7.2 (0.4)	8-2 5-①-2	
2017-1533 -0003	백자 저부편	1	지표수습	토도	조선	2.2		7.6 (0.4)	8-3 5-①-3	
2017-1533 -0004	백자 저부편	1	지표수습	토도	조선	2.8		6.6 (0.6)	8-4 5-①-4	
2017-1533 -0005	백자 저부편	1	지표수습	토도	조선	3.3		7.2 (0.4)	8-5 5-①-5	
2017-1533 -0006	백자 저부편	1	지표수습	토도	조선	5.2		6.6 (0.3)	8-6 5-①-6	
2017-1533 -0007	백자 저부편	1	지표수습	토도	조선	6.0		11.2 (0.4)	8-7 5-①-7	



## 調查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제주 함덕리 3363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住所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2길 3		
	TEL	(064) 712-8362~3	FAX	(064) 712-8361
執筆·編輯者	고재원·김경주·나정욱·박경민·김현정			
調査緣由	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구제발굴조사			
發掘調査者	고재원·김경주·나정욱·박경민·김현정			
遺蹟調査地番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363번지			
調査面積	1,025m <sup>2</sup>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수혈유구	고려~조선	1	·	
지표수습			청자, 백자, 기와	



## 161. 경주 화곡리 22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 목 차

I. 조사개요 .....	161-11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	161-13
III. 조사내용 .....	161-19
1. 시굴조사 .....	161-19
2. 발굴조사 .....	161-21
〈삼국시대〉 .....	161-23
1) 구상유구 .....	161-23
(1) 구상유구 1호 .....	161-23
2) 수혈유구 .....	161-40
(1) 수혈유구 1호 .....	161-40
(2) 수혈유구 2호 .....	161-42
(3) 수혈유구 3호 .....	161-45
(4) 수혈유구 4호 .....	161-49
〈통일신라시대〉 .....	161-54
3) 도로유구 .....	161-57
4) 구상유구 .....	161-59
(1) 구상유구 2호 .....	161-59
(2) 구상유구 3호 .....	161-61
(3) 구상유구 4호 .....	161-68
(4) 구상유구 5호 .....	161-68
(5) 구상유구 6호 .....	161-68
5) 수혈유구 .....	161-70
(1) 수혈유구 6호 .....	161-70
(2) 수혈유구 5호 · 7~10호 .....	161-70
(3) 수혈유구 11호 .....	161-74
(4) 수혈유구 16호 .....	161-76
(5) 수혈유구 17호 .....	161-77
(6) 수혈유구 12~19호 .....	161-78
(7) 수혈유구 20호 .....	161-78
(8) 수혈유구 21호 .....	161-80

(9) 수혈유구 22호 .....	161- 83
(10) 수혈유구 28호 .....	161- 85
(11) 수혈유구 33호 .....	161- 85
(12) 수혈유구 23~53호 .....	161- 97
6) 주혈 .....	161-108
7) 매납유구 .....	161-123
(1) 매납유구 1호 .....	161-123
8) 고상식 건물지 .....	161-124
<조선시대> .....	161-126
1) 매납유구 .....	161-126
(1) 매납유구 2호.....	161-126
V. 조사성과 .....	161-128

##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	161-14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	161-15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161-18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	161-20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분포도 .....	161-22
도면	6. 구상유구 1호 .....	161-24
도면	7.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1 .....	161-27
도면	8.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2 .....	161-29
도면	9.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3 .....	161-31
도면	10.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4 .....	161-34
도면	11.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5 .....	161-35
도면	12. 구상유구 1-2호 출토유물1 .....	161-39
도면	13. 수혈유구 1호 .....	161-41
도면	14.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 .....	161-42
도면	15. 수혈유구 2호 및 출토유물 .....	161-44
도면	16. 수혈유구 3호 .....	161-45
도면	17. 수혈유구 3호 출토유물 .....	161-48
도면	18. 수혈유구 4호 .....	161-50
도면	19. 수혈유구 4호 출토유물 .....	161-53
도면	20. 도로유구 .....	161-55
도면	21. 도로유구 출토유물 .....	161-58
도면	22. 구상유구 2호 및 출토유물 .....	161-60
도면	23. 구상유구 3호 .....	161-63
도면	24. 구상유구 3호 출토유물 .....	161-65
도면	25. 구상유구 4·5호 .....	161-67
도면	26. 구상유구 6호 .....	161-69
도면	27. 수혈유구 5·6호 및 6호 출토유물 .....	161-71
도면	28. 수혈유구 7~9호 .....	161-72
도면	29. 수혈유구 10·11호 및 10호 출토유물 .....	161-73
도면	30. 수혈유구 11호 출토유물 .....	161-76
도면	31. 수혈유구 16·17호 .....	161-77
도면	32. 수혈유구 12~16·18호 .....	161-79

도면 33. 수혈유구 19·20호 및 출토유물(127:19호, 128:20호) .....	161- 81
도면 34. 수혈유구 21·22호 .....	161- 82
도면 35. 수혈유구 21호 출토유물(129), 수혈유구 22호 출토유물(130·131) .....	161- 84
도면 36. 수혈유구 28호 .....	161- 85
도면 37. 수혈유구 32·33호 .....	161- 86
도면 38. 수혈유구 33호 출토유물1 .....	161- 89
도면 39. 수혈유구 33호 출토유물2 .....	161- 91
도면 40. 수혈유구 33호 출토유물3 .....	161- 93
도면 41. 수혈유구 33호 출토유물4 .....	161- 94
도면 42. 수혈유구 33호 출토유물5 .....	161- 96
도면 43. 수혈유구 23~25호 .....	161- 98
도면 44. 수혈유구 27·29~31호 .....	161-100
도면 45. 수혈유구 34~36호 및 출토유물(162:34호, 163:36호) .....	161-101
도면 46. 수혈유구 37·38, 40~44호 .....	161-103
도면 47. 수혈유구 39호 및 출토유물1 .....	161-104
도면 48. 수혈유구 39호 출토유물2 .....	161-106
도면 49. 수혈유구 45·46호 및 46호 출토유물 .....	161-107
도면 50. 주혈 1~6·9·35·36·41~43 .....	161-109
도면 51. 주혈 7·8·10~34·37~40 .....	161-111
도면 52. 주혈 43~65 .....	161-115
도면 53. 주혈 66~94 .....	161-119
도면 54. 주혈 95~119 .....	161-121
도면 55. 매납유구 1호 및 출토유물 .....	161-124
도면 56. 고상식 건물지 .....	161-125
도면 57. 매납유구 2호 및 출토유물 .....	161-126
도면 58. 상부 수습유물 .....	161-127
도면 59. 본 유적 및 '화곡리 생산 유적' 유구 분포도 .....	161-128

##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원경(항공촬영), ②시굴조사 후 전경(항공촬영))	161-137
도판	2. 시굴조사 트렌치 1(①전경(S→N), ②토층, ③수혈유구 전경), 트렌치 2(④전경(S→N), ⑤토층, ⑥수혈유구전경))	161-138
도판	3. 시굴조사 트렌치 3(①전경(S→N), ②토층, ③수혈유구), 트렌치 4(④전경(S→N), ⑤토층, ⑥구상유구 전경))	161-139
도판	4. 시굴조사 트렌치 5(①전경(S→N), ②토층, ③수혈유구 전경), 트렌치 6(④전경(S→N), ⑤토층, ⑥구상유구 및 주혈 전경)	161-140
도판	5. 발굴조사 중 전경(①항공촬영, ②서편 세부 전경, ③동편 세부 전경)	161-141
도판	6. 구상유구 1호 조사중(①1차 조사(W→E), ②2차 조사(W→E))	161-142
도판	7. 구상유구 1호(①조사완료(W→E), ②토층, ③~⑥유물 출토상태)	161-143
도판	8.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1	161-144
도판	9.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2	161-145
도판	10.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3	161-146
도판	11. 구상유구 1-2호 출토유물4	161-147
도판	12. 수혈유구 1호(①조사중(W→E), ②토층, ③내부수혈 조사중, ④내부수혈 토층, ⑤내부수혈 조사완료(N→S), ⑥~⑧내부 주혈토층)	161-148
도판	13. 수혈유구 1호(①~⑥내부주혈 토층, ⑦조사완료(E→W), 54·55:출토유물)	161-149
도판	14. 수혈유구 2호(①조사중(N→S), ②토층, ③④유물 출토상태)	161-150
도판	15.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59~61), 수혈유구 3호 조사중(①S→N)	161-151
도판	16. 수혈유구 3호(①토층, ②~④유물 출토상태, ⑤조사완료(S→N))	161-152
도판	17. 수혈유구 3호 출토유물1	161-153
도판	18. 수혈유구 3호 출토유물2, 수혈유구 4호(①1차 조사중(S→N), ②토층, ③유물 출토상태)	161-154
도판	19. 수혈유구 4호(①②유물 출토상태, ③2차 조사중(E→W), ④⑤내부수혈)	161-155
도판	20. 수혈유구 4호(①②내부수혈 토층, ③조사완료(E→W), 출토유물1)	161-156
도판	21. 수혈유구 4호 출토유물2	161-157
도판	22. 도로유구 전경(①조사중(E→W), ②토층, ③동쪽세부, ④서쪽세부)	161-158
도판	23. 도로유구(①②수레바퀴흔 세부, ③유물 출토상태, ④조사완료(N→S))	161-159
도판	24. 도로유구 출토유물(97~103), 구상유구 2·3호 조사전 전경(①항공촬영)	161-160
도판	25. 구상유구 2호(①조사완료(S→N), ②토층, ③유물 출토상태, 104:출토유물)	161-161
도판	26. 구상유구 3호(①조사완료(항공촬영), ②토층, ③내부주혈(E→W), ④내부주혈 토층)	161-162

도판 27. 구상유구 3호 출토유물 .....	161-163
도판 28. 구상유구 4호(①조사완료(S→N), ②토층), 구상유구 5호(③토층, ④조사완료(SE→NW)) .....	161-164
도판 29. 구상유구 6호(①조사완료, ②토층, 117:출토유물), 수혈유구 5호(③조사완료(SW→NE), ④토층) .....	161-165
도판 30. 수혈유구 6호(①조사중(S→N), ②조사완료(S→N), ③토층, 118:출토유물), 수혈유구 7호(④조사완료(S→N), ⑤토층), 수혈유구 8호(⑥조사완료(E→W), ⑦토층) .....	161-166
도판 31. 수혈유구 9호(①조사중(W→E), ②토층, ③④내부주혈 토층, ⑤목탄세부, ⑥조사완료(W→E)) .....	161-167
도판 32. 수혈유구 10호(①조사완료(SE→NW), ②토층, ③유물 출토상태, 119:출토유물), 수혈유구 11호 조사중(④NW→SE) .....	161-168
도판 33. 수혈유구 11호(①토층, ②~⑧내부주혈 토층) .....	161-169
도판 34. 수혈유구 11호(①~④유물 출토상태, ⑤조사완료(NW→SE)) .....	161-170
도판 35. 수혈유구 11호 출토유물(120~126), 수혈유구 12호(①토층, ②조사완료(W→E)) .....	161-171
도판 36. 수혈유구 13호(①토층(W→E), ②조사완료(W→E)), 수혈유구 14호(③토층, ④조사완료(E→W)), 수혈유구 15호(⑤토층, ⑥조사완료(E→W)), 수혈유구 16호 토층(⑦) .....	161-172
도판 37. 수혈유구 16호(①조사중(E→W), ②아궁이 조사중, ③아궁이 토층, ④아궁이 조사완료, ⑤소토 세부) .....	161-173
도판 38. 수혈유구 16호 조사완료(①E→W), 수혈유구 17호(②조사전(N→S), ③토층, ④조사중(N→S)) .....	161-174
도판 39. 수혈유구 17호(①토층, ②내부수혈 토층 ③조사완료(N→S)), 수혈유구 18호(④토층, ⑤조사완료(S→N)) .....	161-175
도판 40. 수혈유구 19호(①조사전(E→W), ②토층, ③조사중(E→W), ④유물 출토상태, ⑤조사완료(W→E), 127:출토유물), 수혈유구 20호(⑥조사전(S→N), ⑦토층) .....	161-176
도판 41. 수혈유구 20호(①조사중(SW→NE), ②유물 출토상태, ③내부주혈 토층, ④내부주혈, ⑤조사완료(SW→NE), 128:출토유물) .....	161-177
도판 42. 수혈유구 21호(①조사중(SE→NW), ②토층, ③내부구, ④내부구 토층) .....	161-178
도판 43. 수혈유구 21호(①내부구 세부, ②유물 출토상태, ③조사완료(SE→NW), 129:출토유물) .....	161-179
도판 44. 수혈유구 22호(①조사중(SE→NW), ②토층 ③④내부주혈 토층) .....	161-180
도판 45. 수혈유구 22호(①~④내부주혈 토층, ⑤⑦내부수혈, ⑥⑧내부수혈 토층) .....	161-181
도판 46. 수혈유구 22호(①②유물 출토상태, ③조사완료(SE→NW), 130·131:출토유물) .....	161-182
도판 47. 수혈유구 23호(①토층, ②조사완료(W→E)) 수혈유구 24호(③조사중(S→N), ④토층) .....	161-183

도판 48. 수혈유구 24호(①내부주혈, ②내부주혈 토층, ③조사완료(S→N)), 수혈유구 25 · 26호 토층(④) .....	161-184
도판 49. 수혈유구 25 · 26호(①조사완료(NE→SW), ②수혈유구 25호 내부주혈), 수혈 유구 27호(③조사중(E→W), ④토층) .....	161-185
도판 50. 수혈유구 27호(①③내부수혈, ②④내부수혈 토층, ⑤조사완료(W→E)) .....	161-186
도판 51. 수혈유구 28호(①조사전(N→S), ②토층, ③조사중(N→S), ④세부, ⑤~⑦해체후 세부, ⑧조사완료(N→S)) .....	161-187
도판 52. 수혈유구 29호(①토층, ②조사완료(W→E), 수혈유구 30호(③토층, ④조사완료 (W→E)), 수혈유구 31호(⑤토층, ⑥⑦내부주혈 토층, ⑧조사완료(E→W)) .....	161-188
도판 53. 수혈유구 32호(①토층, ②조사완료(E→W)), 수혈유구 33호(③조사중(S→N), ④ 토층, ⑤유물 출토상태) .....	161-189
도판 54. 수혈유구 33호(①②유물 출토상태, ③조사완료(SW→NE), 출토유물1) .....	161-190
도판 55. 수혈유구 33호 출토유물2 .....	161-191
도판 56. 수혈유구 33호 출토유물3 .....	161-192
도판 57. 수혈유구 33호 출토유물4 .....	161-193
도판 58. 수혈유구 33호 출토유물5, 수혈유구 34호(①조사중(N→S), ②토층, ③유물 출토 상태, 162:출토유물) .....	161-194
도판 59. 수혈유구 34호 조사완료(①N→S), 수혈유구 35호(②토층, ③조사완료(S→N)) ..	161-195
도판 60. 수혈유구 36호(①토층, ②유물 출토상태, ③조사중(NW→SE), 163:출토유물), 수 혈유구 37호(④토층, ⑤조사완료(W→E)), 수혈유구 38호(⑥토층, ⑦조사완료(N→ S)) .....	161-196
도판 61. 수혈유구 39호(①조사중(N→S), ②토층, ③유물 출토상태, ④조사완료(N→S)) ..	161-197
도판 62. 수혈유구 39호 출토유물1 .....	161-198
도판 63. 수혈유구 39호 출토유물2, 수혈유구 40호(①토층, ②조사완료(W→E)), 수혈유구 41호(③토층, ④조사완료(E→W)), 수혈유구 42호(⑤토층, ⑥조사완료(S→N)) ..	161-199
도판 64. 수혈 43호(①토층, ②조사완료(E→W)), 수혈유구 44호(③토층, ④조사완료(S→ N)), 수혈유구 45호(⑤토층, ⑥조사완료(SW→NE)), 수혈유구 46호(⑦토층, ⑧조 사완료(W→E)) .....	161-200
도판 65. 수혈유구 46호(①유물 출토상태, 176:출토유물), 미조사 수혈 유구(②47호, ③48 호, ④49호, ⑤50호, ⑥51호, ⑦52호, ⑧53호) .....	161-201
도판 66. 동편 주혈(①조사후(항공촬영), ②~⑩주혈 1~9 토층) .....	161-202
도판 67. 동편 주혈 토층(①~⑱주혈 10~27) .....	161-203
도판 68. 동편 주혈 토층(①~⑱주혈 28~45) .....	161-204
도판 69. 동편 주혈 토층(①~⑱주혈 46~63) .....	161-205
도판 70. 동편 주혈 토층(①~⑱주혈 64~81) .....	161-206

도판 71. 동편 주혈 토층(①~⑬주혈 82~94) .....	161-207
도판 72. 서편 주혈(①전경(항공촬영), ②~⑦주혈 95~101 토층) .....	161-208
도판 73. 서편 주혈 토층(①~⑱주혈 102~119) .....	161-209
도판 74. 매납유구 1호(①토층, ②조사후(W→E), 177:출토유물), 고상식 건물지(③조사후 (N→S), ④~⑥주혈 토층) .....	161-210
도판 75. 고상식 건물지 주혈 토층(①②), 매납유구 2호(③토층, ④조사전(W→E), 178:출토 유물), 상부 수습유물(179·180) .....	161-211
도판 76. 전문가검토회의(①2017.11.30.), 복토 및 보존처리 완료 전경(②③) .....	161-212

## I. 조사개요

본 보고서는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2번지 이흥재씨의 농어업시설 신축부지(1,921㎡) 발굴조사에 대한 것이다. 조사 경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농어업시설(버섯재배사) 신축(사업대상지 면적:2,274㎡)을 위하여 경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경주시는 신청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경주 화곡리 서당곡토기요지)에 해당하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매장문화재 조사(시·발굴)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가 국비지원 대상임을 경주시를 통해 확인하여 2017년 8월 9일에 문화재청 문화재행정 협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 재단에 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시굴조사 세부계획서는 9월 5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9월 11일에 현장조사일수 4일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제 2017-1186호)를 받았다.

시굴조사는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현장조사일수 4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 중앙부와 남쪽에서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구상유구, 주혈 등이 다수 확인되었다. 다만, 원지형이 삭평된 조사대상지 북서쪽(323㎡)과 도로 및 배수로가 조성되어 조사가 불가능한 서쪽 경계부(30㎡)을 제외한 1,921㎡에 대해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1)</sup>

정밀발굴조사에 대한 세부계획서는 9월 28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10월 11일에 현장조사일수 30일에 대한 문화재청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2017년 10월 18일에 착수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구상유구 1기·수혈유구 6기와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1기·구상유구 5기·수혈유구 47기·매납유구 1기·고상식 건물지 1기·주혈 119개, 조선시대 매납유구 1기 등 총 18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11월 21일에 개최한 학술자문회의<sup>2)</sup>에서는 유적의 동·서쪽 경계부의 유구는 화곡리 생산유적<sup>3)</sup>에서 확인된 유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일 성격으로 판단되어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문가검토회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하여 11월 30일에 개최된 전문가검토회의<sup>4)</sup>에서는 조사기관은 조사 중인 구상유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하도록 하며, 본 유적은 현지보존된 화곡리 생산유적과 연장선상에 있는 유적으로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사업대상지 전체(2,274㎡)는 복토 보존

1) 한국문화재단, 2017, 「경주 화곡리 22번지 농어업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 학술자문회의 위원 : 강봉원(경주대학교 교수), 박광열(성림문화재연구원 원장)

3) 聖林文化財研究院, 2012,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지구내 慶州 花谷里 生産遺蹟』.

조사결과, 삼국~통일신라시대 공방지 녹로축혈, 수비시설, 집수시설, 태토저장시설, 폐기수혈, 고상식건물지, 건물지, 삼가마, 우물, 폐기장으로 이용된 자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이는 신라왕경에 공급한 대단위 생산 관련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전체 지역이 원형 보존조치 되었다.

4) 전문가검토회의 위원 : 박홍국(위덕대학교 박물관장), 강현숙(동국대학교경주캠퍼스 교수), 권택장(신라왕경복원정비 사업추진단 학예연구원)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유구 보존방안 등 보존계획을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되 복토 및 건축기초공사 시에는 조사기관의 입회 하에 실시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조사단에서는 전문가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일수 15일에 대한 연장 신고를 하여, 구상유구와 도로유구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쪽 경계에서 일부만 확인되어 내부조사가 불가능한 수혈유구 7기(47~53호)는 잔존양상만 확인하였다. 이후 2017년 12월 18일(현장조사일수 45일)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유구에 대한 보호를 위해 노출된 유구 상부에 모래 등으로 복토하였다.

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굴조사	발굴조사
조 사 단 장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박 종 섭(문화재조사연구단장)
책임조사원	박 강 민(조사연구1팀 부팀장)	박 강 민(조사연구1팀 부팀장)
조 사 원	최 진 녕(조사연구1팀 연구원)	남 효 정(조사연구1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윤 태 웅(조사연구1팀 연구원)	윤 태 웅(조사연구1팀 연구원)
보 조 원	오 현 민(조사연구1팀 연구원)	오 현 민(조사연구1팀 연구원)

\*( )는 조사당시의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강성귀 책임 하에 하혜진·김유정·백아림·박아림·이영호·윤영경·김은희·김정애·이정숙 등 본 재단 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강성귀, 윤태웅, 황도담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의 사진촬영은 이재영(스카이뷰)이 하였다.

원고는 박강민 책임 하에 I~II장 남효정, III장 남효정(조사내용 및 유구)·강성귀(유물), IV장 남효정, V장 남효정이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박강민이 하였다.

##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2번지이며, 경·위도 상으로는 동경 129° 10'46", 북위 35° 46'42"에 해당한다. 경주 내남면에 위치한 오리밭저수지에서 화곡저수지 방면으로 내남로를 따라 800m 정도 진행한 다음 우측 소로를 따라 북쪽으로 진행하면 나타나는 공지이다. 조사대상지의 서쪽은 도로와 콘크리트 배수로, 동쪽 경계 일부는 옹벽이 조성되어 있었으며, 남쪽 경계부에는 감나무 등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다.

자연·지리적<sup>5)</sup>으로 조사대상지는 금실산(해발 191m)에서 동남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남사면부(해발 86.5~88.5m 정도)에 위치하며, 주변으로 설산, 오갯산, 성부산 등으로 둘러싼 분지로 남쪽으로 120m 정도 떨어져 화곡지가 위치한다. 화곡지는 1963년 물막이 독으로 설치하여 건설되었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내남면은 경주시의 서남쪽에 위치하며, 동으로는 외동읍, 남으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북으로는 산내면과 건천읍이 맞닿아 있다. 또한, 금오산과 고위산을 잇는 금오산맥과 단석산, 고현산을 잇는 주사산맥이 남쪽으로 뻗어 있어 각각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이루고 이들 산맥 사이로 형산강 상류인 인천이 흐르고 있다.

역사적<sup>6)</sup>으로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내남면은 조선시대에 경주부에 속하였고, 경주의 남쪽에 있다는 뜻으로 경주군 부남면으로 부르다가 일제가 1906년 군·구역 조정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그 지명을 경주부의 남쪽 안에 있다 하여 경주 내남면으로 불리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명계, 노곡, 월산, 이조, 용장, 배리, 울동, 망성, 화곡, 부지, 덕천, 상신, 안심, 박달, 비지, 탑리의 16개 법정리로 개편하였고, 1955년에는 경주시제 개편으로 경주군 내남면에서 월성군 내남면으로 바뀌었으며, 탑리가 경주시로 편입되어 15개 리, 40개 분동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7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울동과 배리가 경주시로 편입되어 법정동은 13개, 행정동은 34개로 분동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9년 군 명칭 환원으로 월성군 내남면을 경주군 내남면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고, 1995년 시·군 통합으로 경주시 내남면으로 바뀌었다. 화곡리는 조선영조 때 화계라는 호를 가진 유의건 선비가 정자를 짓고 제자들을 양성한 곳인데, 선비의 호를 따서 '화실'이라 불렀고, 이곳 산의 생긴 모양이 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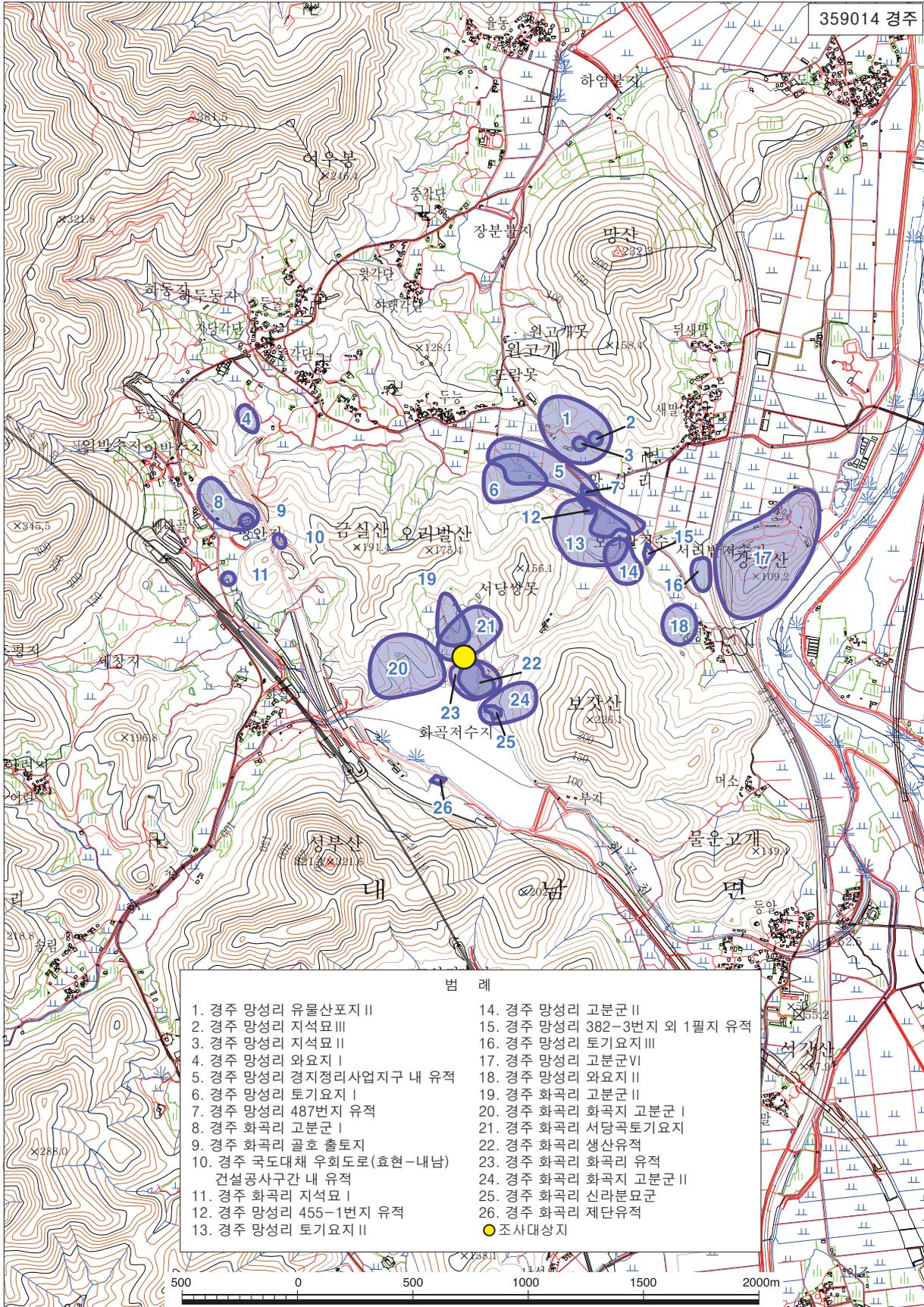
고고학적 환경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지는 문화유적분포지도상 경주 화곡리 서당곡토기요지<sup>7)</sup> 분포범위 내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으로는 경주 화곡리 화곡지고분군I, 경주 화곡리 화곡지고분군II, 경

5) 자연·지리적 환경은 『慶州市史I』(慶州市史編纂委員會, 2006, 慶州市)를 참고하여 수정·가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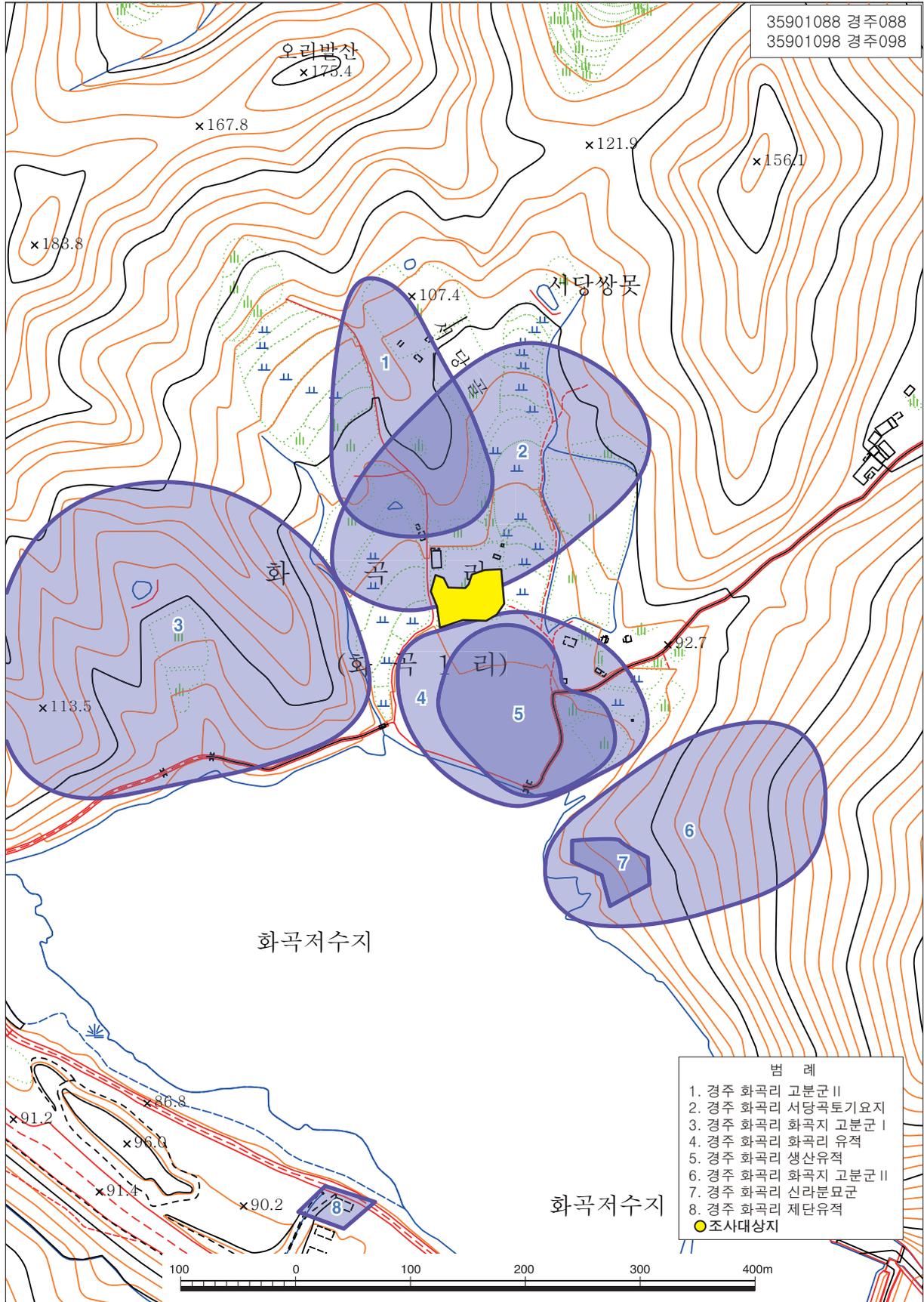
6) 역사적 환경은 『慶州風物地理誌』(김기문 편저, 2006, 경주시·경주문화원)를 참고하여 수정·가필하였다.

7)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화곡1리 화곡지 북쪽 서당골 좌우 구릉부에 위치한다. 구릉부를 중심으로 'U'자형으로 요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토, 슬래그편, 인화문토기편 등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주 화곡리 화곡지유적, 경주 화곡리 고분군Ⅱ 등이 분포하고 있다.<sup>8)</sup> 발굴조사된 유적으로는 남쪽에 연결하여 삼국~통일신라시대 생산유적 등이 확인되어 현지 보존조치된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sup>9)</sup> 남동쪽으로 230m 정도 거리에 삼국과 근·현대 분묘유적이 확인된 경주 화곡리 신라분묘군,<sup>10)</sup> 남쪽 460m 정도 거리에는 제단유적이 확인된 경주 화곡리 제단유적<sup>11)</sup> 등이 위치한다.

【표 1】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경주 망성리 유물산포지Ⅱ	북동쪽 980m	통일신라시대 기와편, 자기편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2	경주 망성리 지석묘Ⅲ	북동쪽 980m	청동기시대 지석묘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3	경주 망성리 지석묘Ⅱ	북동쪽 980m	청동기시대 지석묘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4	경주 망성리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유적	북동쪽 850m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폐기장	영남문화재연구원, 2001, 『2000년도 지표·시굴조사 종합보고서』	
5	경주 망성리 토기요지Ⅰ	북동쪽 700m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요지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6	경주 망성리 487번지 유적	북동쪽 850m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구상유구	한국문화재단, 2016,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경북2- 경주 망성리 487번지 유적』	
7	경주 화곡리 고분군Ⅰ	북서쪽 1000m	삼국~통일신라시대 고분군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8	경주 화곡리 골호출토지	북서쪽 900m	통일신라시대 십이지골호, 석함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8)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9) 聖林文化財研究院, 2012,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지구내 慶州 花谷里 生産遺蹟』.

조사결과, 삼국~통일신라시대 공방지 녹로축출, 수비시설, 집수시설, 태토저장시설, 폐기수혈, 고상식건물지, 건물지, 삼가마, 우물, 폐기장으로 이용된 자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이는 신라왕정에 공급한 대단위 생산 관련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전체 지역이 보존조치 되었다.

10) 聖林文化財研究院, 2007, 『慶州 花谷里 新羅墳墓群』.

조사결과, 삼국시대 석곽묘 47기와 근·현대 토광묘 5기, 암거시설 1기 등이 확인되었다.

11) 聖林文化財研究院, 2007, 『慶州 花谷里 祭壇遺蹟』.

조사결과, 석군이 확인되어 제단유적으로 보고되었다.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9	경주 국도대체 우회도로(효현-내남) 건설공사구간 내 유적	북서쪽 850m	청동기~조선시대 유물산포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0, 『경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효현-내 남간)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0	경주 화곡리 지석묘 I	북서쪽 1000m	청동기시대 지석묘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1	경주 망성리 455-1번지 유적	북동쪽 850m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가마 관련 퇴적층, 수레바퀴흔	한국문화재단, 2017,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경북3-경주 망성리 455-1번지 유적』	
12	경주 망성리 토기요지 II	북동쪽 700m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요지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3	경주 망성리 고분군 II	북동쪽 800m	삼국시대 고분군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4	경주 망성리 382-3번지 외 1필지 유적	북동쪽 900m	고려시대 기와가마 등 조선시대 석렬유구 등	한국문화재단, 2019,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X-57. 경주 망성리 383-3번지 유적 (진흥문화재단연구원)』	
15	경주 망성리 토기요지 III	북동쪽 750m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요지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6	경주 망성리 와요지 II	동쪽 950m	삼국~통일신라시대 와요지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7	경주 화곡리 고분군 II	북쪽 100m	삼국시대 고분군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8	경주 화곡리 화곡지구고분군 I	서쪽 200m	삼국~통일신라시대 고분군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9	경주 화곡리 서당곡토기요지	조사대상지 포함	삼국~통일신라시대 토기요지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20	경주 화곡리 생산유적	남쪽 20m	삼국~통일신라시대 공방지, 폐기장 등	聖林文化財研究院, 2012, 『경주 화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지구내 慶州 花谷里 生産遺蹟』.	
21	경주 화곡리 화곡지구유적	남동쪽 100m	통일신라시대 고분군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22	경주 화곡리 화곡지고분군Ⅱ	남동쪽 250m	삼국~통일신라시대 고분군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23	경주 화곡리 신라분묘군	남동쪽 250m	삼국~근·현대 석곽묘, 토광묘	聖林文化財研究院, 2007, 『慶州 花谷里 新羅墳墓群』	
24	경주 화곡리 제단유적	남서쪽 500m	삼국시대 제단유적	聖林文化財研究院, 2007, 『慶州 花谷里 祭壇遺蹟』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 Ⅲ. 조사내용

#### 1. 시굴조사

시굴조사를 위한 트렌치는 조사대상지의 지형이 북고남저를 이루고 있어 남-북 방향으로 트렌치 5개소를 1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중 조사대상지 북동쪽에서 표토층(복토층)이 깊게 확인됨에 따라 원지형 확인을 위해 동-서 방향으로 트렌치 1개소(트렌치 5)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따라서 시굴조사는 남-북 방향 트렌치 5개소, 동-서 방향 트렌치 1개소를 설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트렌치 제토는 굴삭기를 이용하였으며, 트렌치 5·6은 제토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벽면 일부는 안전을 고려하여 안정경사도를 주어 제토하였다. 유구확인은 전체적인 층위를 파악하면서 실시하였으며, 유구가 확인되지 않으면 생토층까지 제토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토층퇴적양상 확인 및 유구확인 은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원지형이 삭평되어 표토하 10cm 정도에서 황갈색 사질점토층(생토층)이 드러난 트렌치 2·3의 북쪽은 동-서 방향으로 서로 연결하는 길이 800cm, 너비 200cm 정도로 확장하여 유구나 유물의 유존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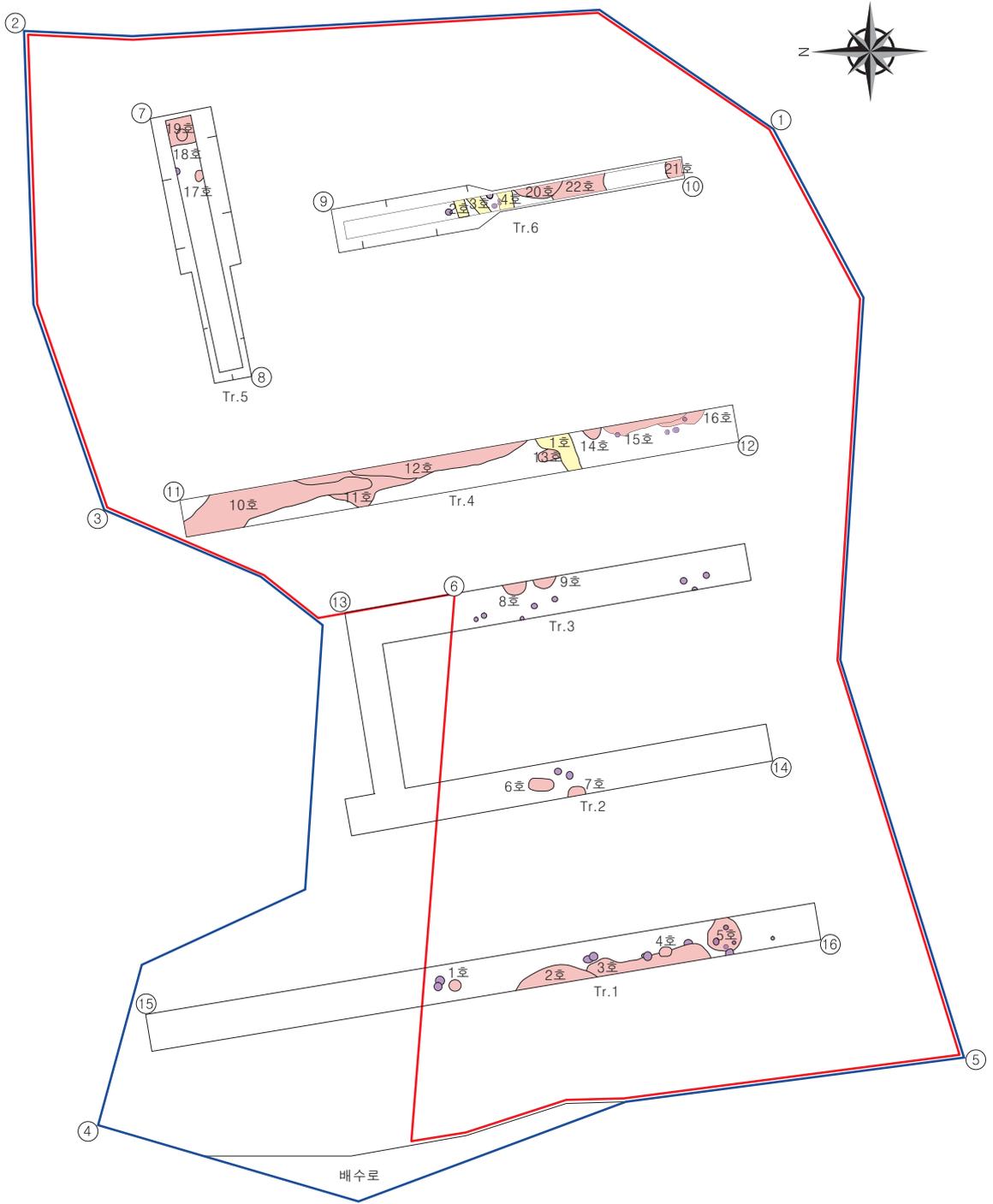
조사대상지의 전반적인 토층 퇴적양상은 상부에서부터 표토층(1층)→현대 경작층(2층)→유물포함층(3층)→유구확인층(4층, 생토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 중앙부와 남쪽에서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구상유구, 주혈 등과 경질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밀발굴조사는 전체 사업부지(2,274㎡) 중 원지형이 삭평된 북서쪽(323㎡)과 도로 및 배수로가 조성된 서쪽 경계부(30㎡)를 제외한, 1,921㎡(도면4 참조)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표 2】 시굴조사 트렌치 속성표

트렌치 번호	크기(cm)			장축 방향	조사내용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3,700	200	30~50	남-북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5기, 주혈 13기	
2	2,100	200	30~50	남-북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2기, 주혈 2기	
북쪽 확장부	800	200	20~30	동-서	유구·유물 없음	
3	2,200	200	20~40	남-북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2기, 주혈 8기	
4	3,000	200	10~90	남-북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8기, 구상유구 1기, 주혈 4기	
5	1,600	110~320	60~180	동-서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3기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①	X 353457.84m	⑤	X 353447.1842m	⑨	X 353481.3734m	⑬	X 353480.7399m
	Y 216258.5769m		Y 216208.2795m		Y 216253.9292m		Y 216231.9206m
	Z 86.97m		Z 86.60m		Z 87.96m		Z 87.85m
②	X 353497.8872m	⑥	X 353475.2822m	⑩	X 353462.4672m	⑭	X 353459.5287m
	Y 216262.2376m		Y 216233.4168m		Y 216255.8263m		Y 216224.154m
	Z 88.49m		Z 87.81m		Z 87.01m		Z 87.24m
③	X 353493.2868m	⑦	X 353490.9719m	⑪	X 353489.2794m	⑮	X 353491.90m
	Y 216237.1935m		Y 216259.0472m		Y 216238.0257m		Y 216209.899m
	Z 88.32m		Z 87.98m		Z 88.10m		Z 88.08m
④	X 353493.8111m	⑧	X 353485.8987m	⑫	X 353460.2633m	⑯	X 353456.3288m
	Y 216204.2565m		Y 216245.1095m		Y 216242.1923m		Y 216214.5947m
	Z 88.46m		Z 88.14m		Z 86.82m		Z 86.80m

- : 수혈유구
- : 구상유구
- : 주혈
- : 발굴조사대상지
- : 사업대상지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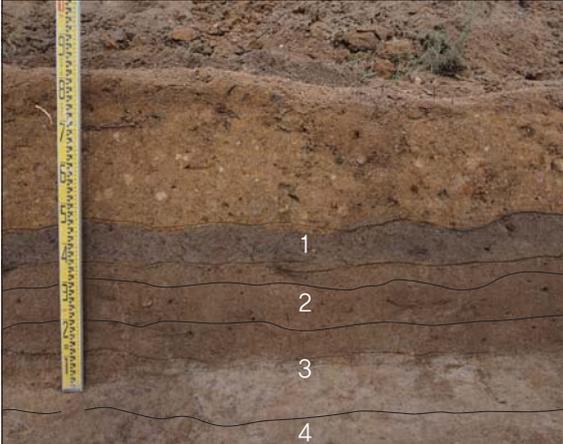
트렌치 번호	크기(cm)			장축 방향	조사내용	비고
	길이	너비	깊이			
6	1,900	110~250	70~140	남-북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3기, 구상유구 3기, 주혈 5기	

## 2.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표토하 30~100cm 정도의 황갈색 사질토(생토층) 상면을 중심으로 전면제토하여 실시하였다. 제토 범위는 서쪽은 도로와 콘크리트 배수로, 동쪽은 콘크리트 옹벽, 감나무 등이 잔존하고 있어 경계에서 50~300cm 정도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토 깊이가 깊은 남동쪽 경계 벽면은 안정경사도를 주어 제토하였다.

조사대상지의 전반적인 토층 퇴적양상은 상부에서부터 표토층(1층)→현대 경작층(2층)→퇴적층(3층)→삼국~통일신라시대 문화층(4층, 생토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조사대상지 기준토층(남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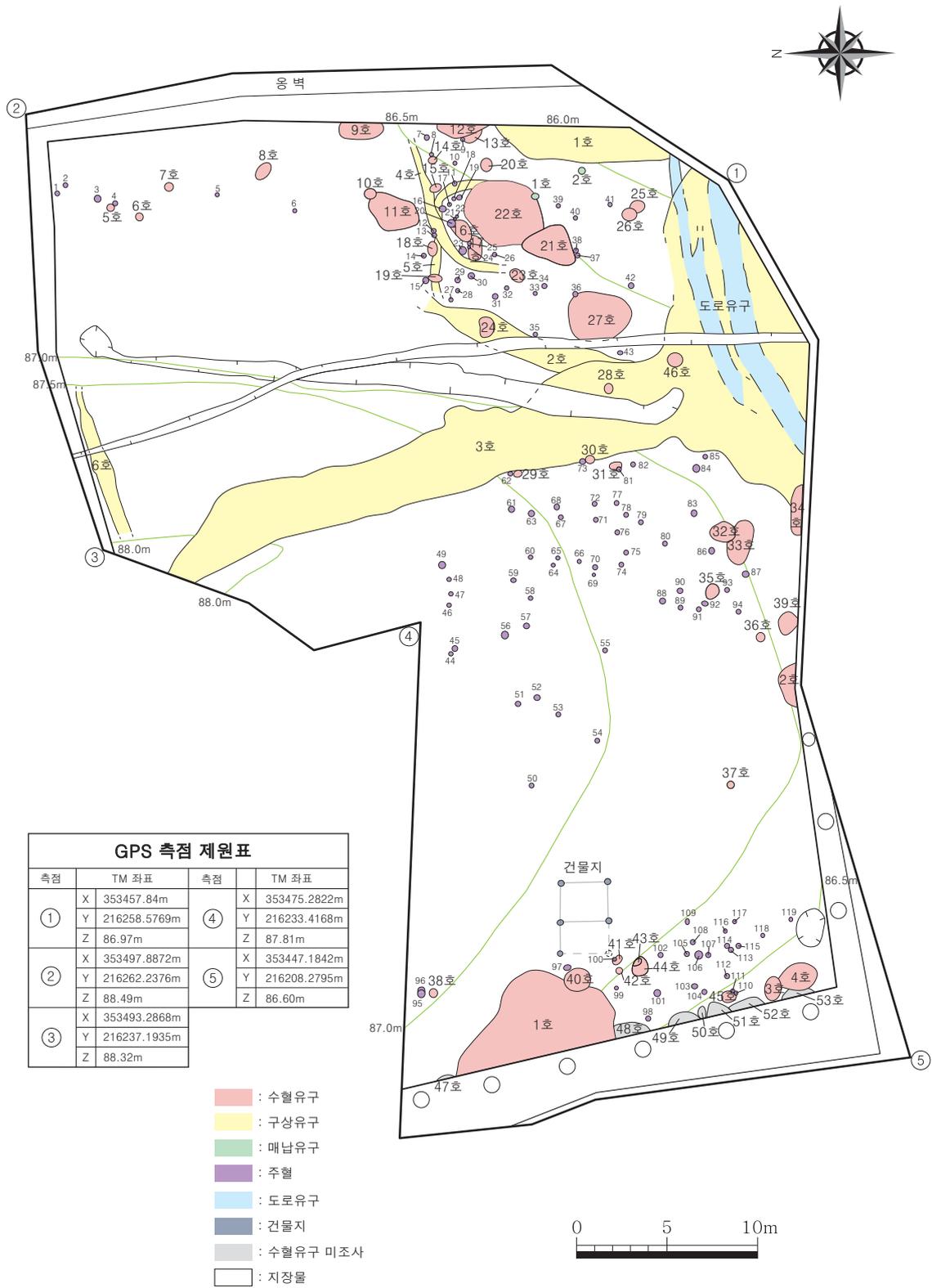
	1층: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표토층 (두께 30cm 정도)
	2층: 회황갈색(2.5YR 4/2) 사질점토 - 비닐 등 포함	현대 경작층 (두께 10cm 정도)
	3층: 갈색(10YR 4/4) 사질점토 - 목탄알갱이, 토기편 다량 포함	퇴적층 (두께 30cm 정도)
	4층: 황갈색(10YR 5/8) 사질토	삼국~통일신라시대 문화층 (표토하 70cm 정도)

표토층은 황갈색 사질점토로 두께 30cm 정도이며, 조사대상지의 북동쪽은 두께 80cm 정도로 확인되었다.

현대 경작층은 어두운 회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표토하 30cm 정도에서 두께 10cm 정도로 확인되었다. 폐비닐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

퇴적층은 표토하 40cm 정도에서 확인된 갈색 사질점토로 두께는 30cm 정도이다. 조사대상지 남동쪽에서만 확인되었고 세립의 목탄알갱이가 소량 포함되어 있었으며, 통일신라시대 경질토기편 등이 다량 포함되었다.

삼국~통일신라시대 문화층은 표토하 70cm 정도에서 확인된 황갈색 사질토로 생토층이다. 지형적으로 비교적 높은 조사대상지 북쪽은 표토층 바로 아래에서 확인되었고 남쪽은 표토하 70cm 정도, 북동쪽은 표토하 100~110c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삼국~통일신라시대 문화층(해발 85.8~87.8m)에서



도면 5. 발굴조사 유구분포도

는 수혈유구, 구상유구, 주혈 등의 유구가 다수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의 전반적인 지형은 북고남저이지만, 평탄한 중앙부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낮아지면 서 경계부에 자연 곡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동쪽이 급격히 낮아지는 양상이다.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구상유구 1기·수혈유구 6기와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1기·구상유구 5기·수혈유구 47기·매납유구 1기·고상식 건물지 1기·주혈 119개와 조선시대 매납유구 1기 등 총 182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 〈삼국시대〉

조사대상지 남쪽 경계부에서 구상유구 1기와 수혈유구 4기, 북서쪽 경계부에 수혈유구 2기 등이 확인되었다. 구상유구와 수혈유구 내부에는 다량의 유물이 파쇄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구상유구 1호는 유구의 중앙에 피트를 설치하고, 층위별로 유물의 퇴적양상을 확인하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남쪽 및 북서쪽 경계부에 위치한 수혈유구 48·53호는 경계부에서 일부만 확인되어 내부조사가 불가능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47·49~52호와 함께 미조사 수혈유구로 분류하여 유구번호를 연속적으로 지정하였다.

### 1) 구상유구

#### (1) 구상유구 1호

##### 가. 유구(도면 6, 도판 6·7)

조사대상지 남동쪽 경계부, 해발 85.7~87.2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동쪽과 남쪽 경계 밖으로 진행하고 있고, 유구의 일부만 확인되어 전체적인 양상이나 진행방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남쪽 일부는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에 의해 파괴되었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1,100cm, 너비 140~270cm, 깊이 20~45cm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히 조성되었으며, 바닥면은 고르지 않고, 북고남저의 지형에 따라 남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이다. 토층양상은 상부에서부터 회황갈색 사질점토(소토·목탄 알갱이 다량 포함), 갈흑색 사질점토(소토·목탄 알갱이 소량 포함), 암갈색 사질점토(소토·목탄 알갱이 소량 포함), 갈흑색 사질점토(소토·목탄 알갱이 소량+고운 점토 혼입) 순으로 퇴적되었다.

유물은 주로 상부 2개층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상유구 중앙부로 갈수록 다량의 유물이 깔린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파쇄된 편으로 출토되었으며, 각 층위에 따라 기형과 기종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선별 수습하였으며, 고식 도질단계의 고배, 광구소호, 파수부배 등 총 48점을 수습하였다.

1. 회황갈색(10YR 4/2) 사질점토 - 소토, 목탄 다량 포함
2. 갈흑색(10YR 3/2) 사질점토 - 목탄알갱이 소량 포함
3.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 - 소토 및 목탄알갱이 소량 포함
4. 갈흑색(10YR 3/1) 사질점토 - 소토 및 목탄알갱이 소량 포함
5. 갈흑색(10YR 2/3) 사질점토 + 황갈색(10YR 5/6) 점토 포함
6. 갈흑색(10YR 2/3) 사질점토 - 점성 강함



도면 6. 구상유구 1호

## 나. 유물

## 〈1-1층〉

## 1. 개(도면 7-1, 도판 8-1)

신부 및 구연부의 1/3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암회색(N 3/)이고, 속심은 회적색(2.5YR 4/2)이다. 내면은 자연유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중위에 2조의 침선을 돌려 2단 구획하였다. 상단에는 1조의 침선을 나선형으로 돌린 후 1조의 종선문을 등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4.6cm, 복원구경 17.8cm

## 2~12. 고배

대각만 잔존하는 것 4점, 신부만 잔존하는 것 6점을 포함하여 모두 11점이 출토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세부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 징
2	7-2	8-2	기고 19.1 구경 17.8 대각고 13.7 저경 15.6	통형고배로 구연부 및 신부의 1/2 정도, 대각 하부의 1/3 정도 결실. 색조는 내외면 암회색(N 4/), 속심 회적색(2.5YR 4/2). 신부 내면과 뚜껑받이턱 자연유 점상으로 산화박리. 대각 상부는 통형, 상하 1열 4~5개의 장방형 투공 등간격으로 3곳에 반투공됨. 대각 하부 나팔상으로 벌어짐. 1조의 돌대 3열 돌림. 대각단 짚흔 등의 소성흔 확인.
3	7-3	8-3	잔존기고 14.2 구경 16.8	통형고배로 구연부 및 신부의 2/3 정도, 대각 하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암회색(N 4/), 속심 회적색(10R 4/2). 신부 내면과 화구 방향의 대각 황녹색 자연유 흡착,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박리. 대각 상부는 통형, 상하 1열로 배치된 4개의 장방형 투공 등간격으로 4곳에 투공 및 반투공됨.
4	7-4	8-4	잔존기고 10.0 저경 13.9	통형고배의 대각 잔존. 색조는 내면 암청회색(5PB 4/1), 외면 암회색(N 3/), 속심 흑갈색(10YR 3/1). 하부 1조 돌대 2열 돌림. 돌대 상부에 상하 1열 3개의 장방형 투공 등간격으로 4곳에 투공 또는 반투공됨.
5	7-5	8-5	잔존기고 4.0 복원구경 14.7	구연부 및 신부의 1/5 정도 잔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 암회색(N 4/), 속심 회적색(2.5YR 5/2). 신부 내면과 뚜껑받이턱은 흑녹색 자연유 흡착, 대부분 산화박리. 신부 외면 회전목리흔 확인.
6	7-6	8-6	잔존기고 6.0 복원구경 19.0	구연부 및 신부의 1/3 정도 잔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 암회색(N 4/), 속심 회적색(2.5YR 4/2). 신부 내면은 흑녹색 자연유 흡착, 소성시 재(灰) 등의 이물질 흡착. 신부 외면 일부는 자연유 산화박리, 회색(N 6/)을 띤.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 징
7	7-7	8-7	잔존기고 6.4 복원구경 14.9	구연부 1/4 정도, 신부 1/3 정도 잔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 회백색(2.5Y 7/1), 속심 탁한 황등색(10YR 7/2). 신부 내면과 구연부는 황녹색 자연유 흡착, 부분 산화박리. 신부 내면은 이기재 또는 요벽체로 추정되는 점토덩어리 흡착. 잔존하는 대각에 3개의 투창흔 확인.
8	7-8	8-8	잔존기고 5.9 복원구경 14.0	구연부 일부, 신부의 1/3 정도 잔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 갈회색(7.5YR 5/1), 속심 회적색(10R 4/2). 기면의 대부분은 자연유 흡착되었다가 산화박리. 잔존하는 대각의 투창흔으로 보아 투창은 4개로 추정.
9	7-9	8-9	잔존기고 6.9 구경 13.3	구연부와 신부의 2/3 정도 잔존.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속심 회색(N 4/). 잔존하는 대각에 4개의 투창흔 확인.
10	7-10	8-10	잔존기고 13.8 대각고 11.7 저경 15.0	신부 일부와 대각의 1/2 정도 잔존.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속심 회적색(10R 4/2). 신부 내면과 대각은 흑녹색 자연유 흡착 또는 점상 산화 박리. 신부 내면에 소성시 점토덩어리 흡착, 대각단에 짙은 및 암회색(N 3/)을 띠는 소성흔 확인. 대각은 2조의 돌대 2열 돌려 3단 구획, 상위 2개의 단에 장방형 투창 4개씩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음.
11	8-11	8-11	잔존기고 12.8 복원저경 13.7	신부 일부와 대각의 2/3 정도 잔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 대각단 회색(5Y 6/1)을 띠는 소성흔 확인. 신부 내면은 자연유 점상 산화 박리. 대각은 2조의 돌대 2열 돌려 3단 구획, 상위 2개의 단에 장방형 투창 3개씩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음.
12	8-12	8-12	잔존기고 12.2 복원저경 13.3	대각의 1/3 정도 잔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 회황색(2.5Y 6/2), 속심 회색(N 6/). 대각은 2조 1열, 1조 2열의 돌대를 돌려 3단 구획, 상위 2개의 단에 장방형 투창 3개씩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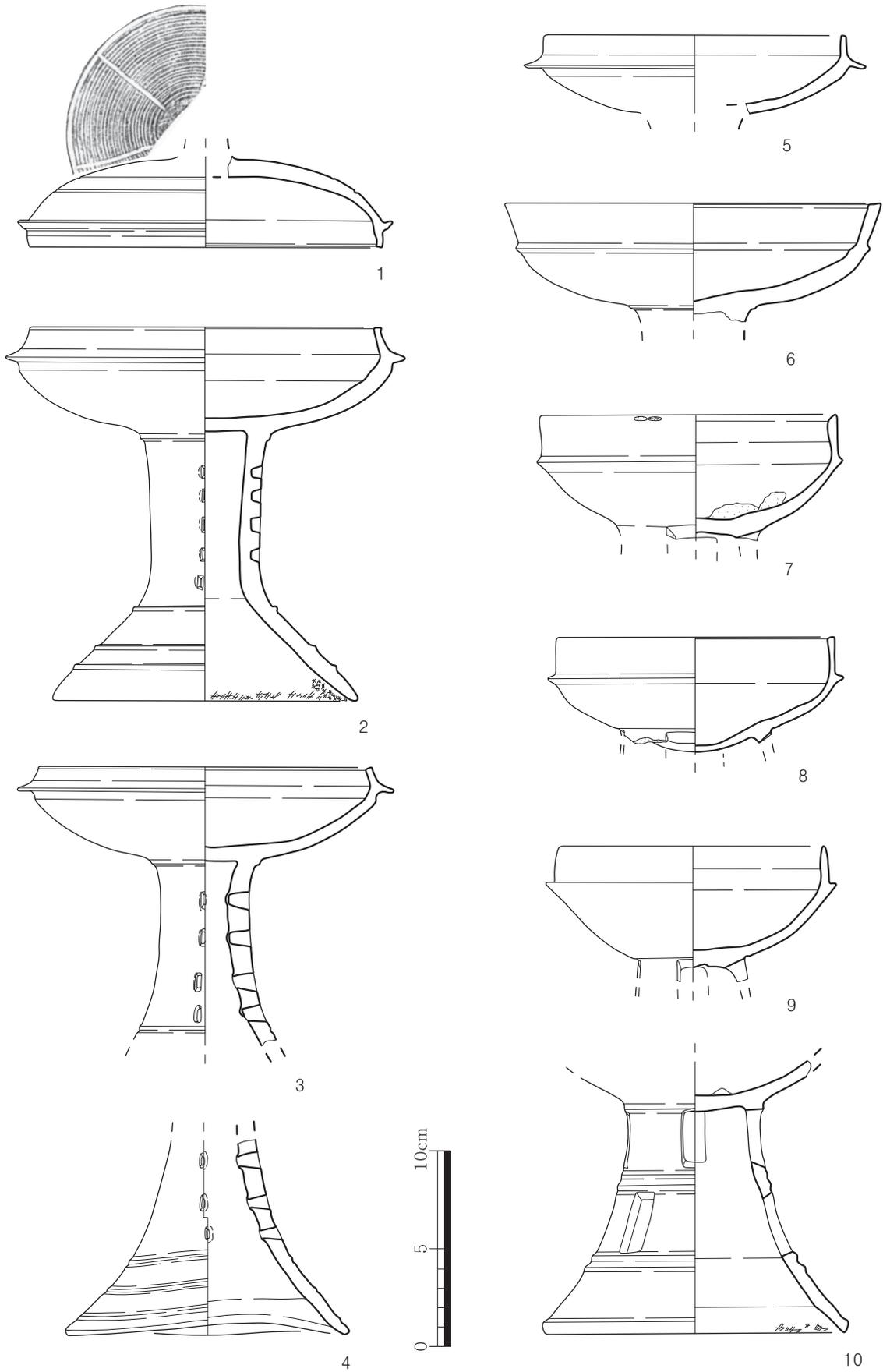
### 13. 완(도면 8-13, 도판 8-13)

유개식으로 구연부 및 신부의 1/3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청회색(5PB 5/1)이고, 속심은 암회색(N 3/)이다. 신부 내면은 자연유가 산화 박리되어 회색(N 4/)을 띤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신부 하위는 회전깎기 정면하였다.

기고 4.4cm, 복원구경 9.4cm, 저경 6.3cm

### 14. 광구소호(도면 8-14, 도판 8-14)

경부의 1/4 정도, 동체부의 1/2 정도 잔존하여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5Y 5/1)이다.



도면 7.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1

경부와 동체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저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경부와 구연부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고, 동체부는 편구형이다. 저부는 짙은 등 소성흔이 확인된다.

기고 7.7cm, 복원구경 9.1cm, 저경 4.5cm

15. 파수부광구소호(도면 8-15, 도판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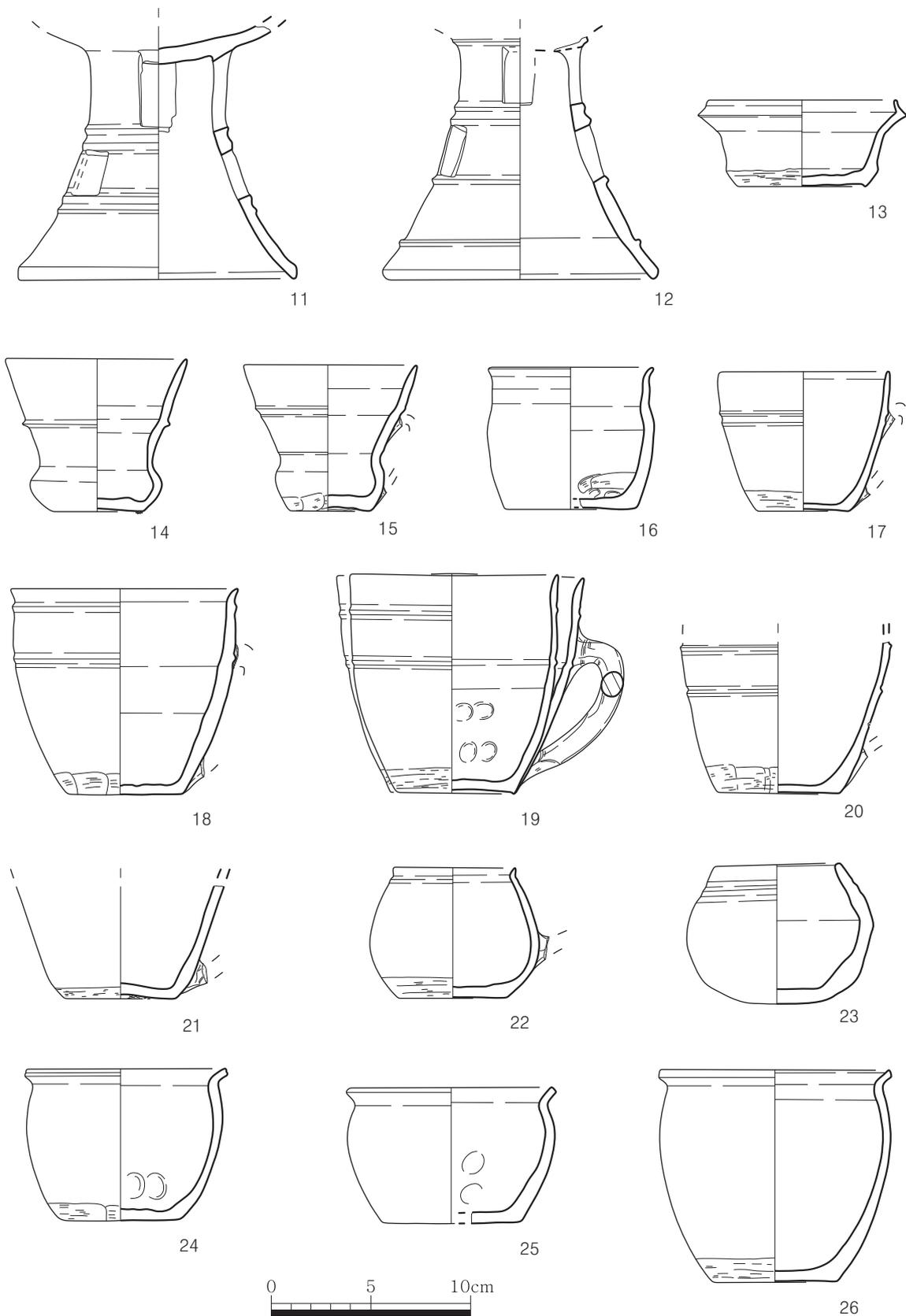
경부의 1/3 정도와 파수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이 대체로 회색(N 6/)인데 저부는 회황색(2.5Y 7/2)을 띤다. 경부와 동체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하위는 회전정면, 저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경부와 구연부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고, 동체부는 편구형이다. 파수는 경부에서 저부까지 'C'자형으로 부착하였다.

기고 7.4cm, 복원구경 8.6cm, 저경 4.0cm

16~21. 파수부배

모두 6점으로 일부 결실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16번을 제외한 5점은 신부 상위에서 하위까지 이어지는 파수를 'C'자 형태로 부착하였다. 저부는 모두 평저이다. 세부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 징
16	8-16	9-16	기고 7.2 복원구경 8.0 저경 6.6	구연부 극히 일부, 동체부 1/3 정도, 저부 잔존, 도면 복원. 색조는 내외면 암회색(N 3/), 속심 회적색(2.5YR 4/2). 저부 외면 황회색(2.5Y 5/1) 소성흔. 내면은 산화 박리, 회색(N 6/)을 띤다.
17	8-17	9-17	기고 7.0 복원구경 8.4 저경 4.6	구연부 4/5 정도, 신부 2/3 정도, 파수 결실,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 회색(N 4/), 속심 회적색(2.5YR 4/2). 내면은 황녹색 자연유 흡착, 대부분 산화 박리. 저부는 짙은 등 소성흔 확인. 신부 상위에는 2조의 돌대 돌림, 돌대에서 신부 하위까지 'C'자형으로 부착한 파수편 잔존.
18	8-18	9-18	기고 10.4 복원구경 11.4 저경 5.6	구연부 1/3 정도, 신부 및 저부 1/2 정도 잔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 저부는 회색(N 6/)을 띤 소성흔. 신부 상위에 1조의 돌대 2열 돌림, 하위 돌대에서 신부 하위까지 'C'자형으로 부착하였던 파수흔 확인.
19	8-19	9-19	기고 10.9 구경 10.5~12.3 저경 6.3	구연부 및 신부 상부의 1/2 정도 결실. 신부는 타원형으로 찌그러짐. 색조는 내외면 암회색(N 3/), 속심 갈회색(10YR 5/1). 화구방향으로 놓였던 기면 자연유 산화 박리, 갈회색을 띤. 신부 상위 1조 돌대 2열 돌림. 파수는 단면형태 원형, 신부 상위에서 하위까지 'C'자형으로 부착.
20	8-20	9-20	잔존기고 7.7 저경 6.2	신부 하부와 저부 잔존. 색조는 내외면 대체로 회색(N 4/), 속심 흑색(7.5YR 2/1). 저부 황회색(2.5Y 5/1)을 띤 소성흔. 내면 점상 산화 박리. 신부 하위에 단면형태 장방형인 파수편 잔존.



도면 8.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2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 징
21	8-21	9-21	잔존기고 5.7 저경 5.5	신부 하부 1/3 정도와 저부 잔존. 색조는 내외면 회색(N 4/), 속심 적회색(2.5YR 4/1). 내면 암녹색 자연유 흡착, 일부 점상 산화박리. 신부 하위 회전깎기 정면흔. 신부 하위에 단면형태 원형인 파수편 잔존. 저부 깊흔 확인.

22. 파수부소호(도면 8-22, 도판 9-22)

구연부 3/4 정도, 동체부 1/2 정도 결실되어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암회색(N 4/)이고, 속심은 암적갈색(2.5YR 3/2)이다. 저부 내면과 화구방향으로 놓였던 견부는 자연유가 점상으로 산화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하위는 회전깎기 정면, 저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구연부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동최대경부는 단면형태 원형의 파수를 부착하였던 흔적이 확인된다.

기고 6.6cm, 복원구경 6.1cm, 저경 5.4cm

23. 소호(도면 8-23, 도판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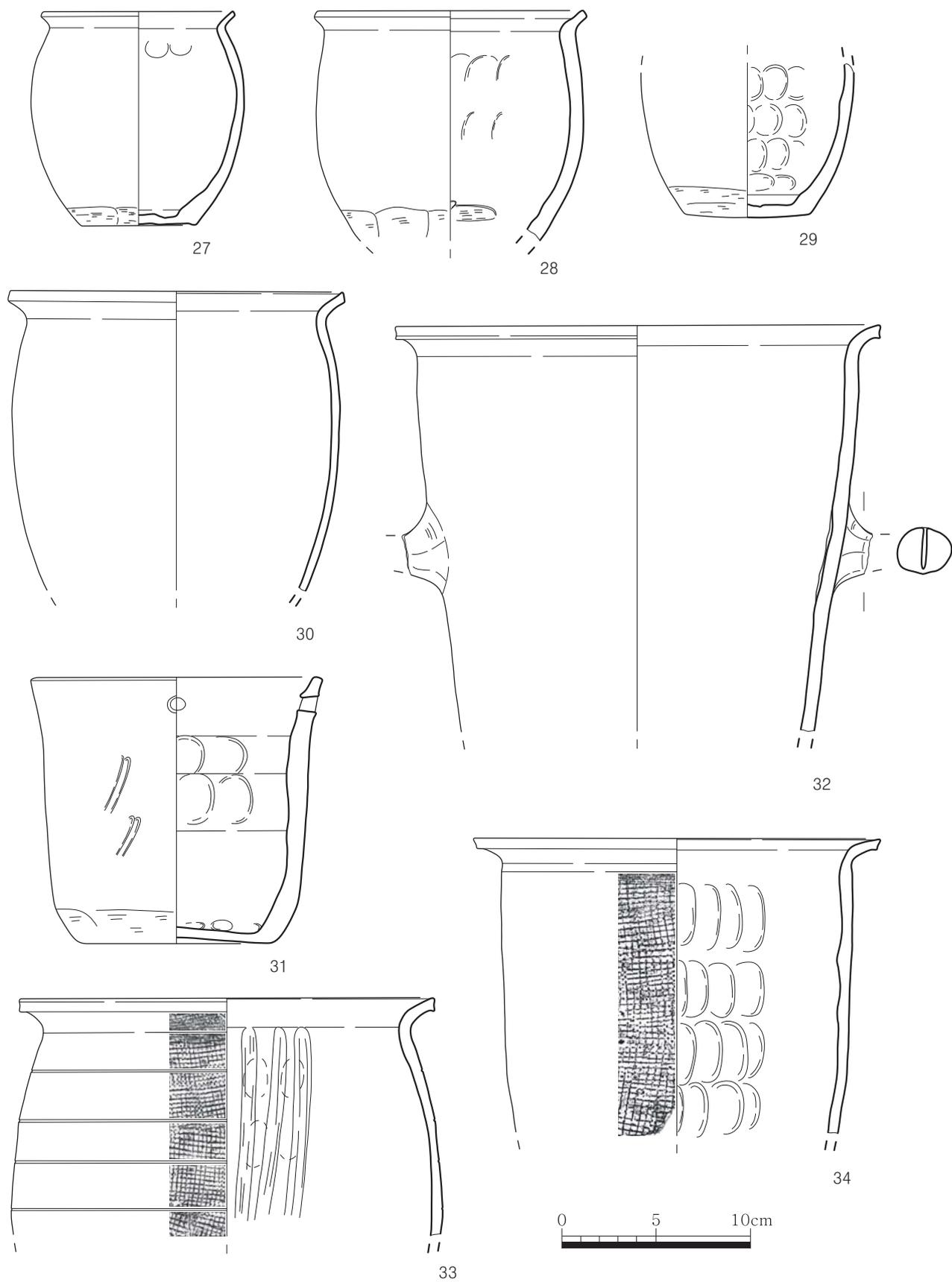
구연부 및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이고, 속심은 회적색(10R 4/2)이다. 내면 전체와 견부는 황녹색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거나 산화 박리되어 갈회색(7.5YR 5/1)을 띤다. 저부는 갈회색을 띠는 소성흔이 확인된다. 구연부 및 동체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고, 저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구연부는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기고 7.0cm, 구경 6.2cm, 저경 3.5cm

24~28. 연질발

연질토기로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 징
24	8-24	9-24	기고 7.7 복원구경 9.9 저경 6.0	구연부 2/3 정도, 동체부 상부 1/2 정도 결실,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 등색(7.5YR 6/6), 속심 흑갈색(10YR 3/1)과 등색(7.5YR 6/6). 동체부 하위 깎기 정면흔.
25	8-25	9-25	기고 6.9 복원구경 10.1 복원저경 6.9	구연부 대부분, 동체부의 1/3, 저부의 1/2 정도 잔존, 도면복원. 색조는 내면 명적갈색(5YR 5/6), 외면은 회갈색(5YR 4/2).



도면 9.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3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 징
26	8-26	9-26	기고 10.8 복원구경 11.4 저경 6.2	구연부, 동체부 및 저부의 1/3 정도 잔존, 도면복원. 색조는 내면과 외면 일부 등색(5YR 6/6), 외면은 회갈색(7.5YR 5/2). 동체부 하위 깎기 정면흔.
27	9-27	9-27	기고 11.4 복원구경 10.0 저경 6.1	구연부 대부분, 동체부 상부의 1/2 정도 결실,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등색(5YR 6/6)과 탁한 등색(7.5YR 5/3). 동체부 하위 깎기 정면흔.
28	9-28	9-28	잔존기고 12.3 복원구경 13.5	구연부 및 동체부의 1/3 정도 잔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 대체로 명적갈색(5YR 5/6), 외면 상위는 탁한 황등색(10YR 6/4). 동체부 하위 깎기 정면흔, 동체부 내면 지두흔 희미하게 잔존.

### 29. 발편(도면 9-29, 도판 9-29)

동체부 하부 및 저부의 1/3 정도만 잔존하여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이다. 동체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 동체부 하위는 회전깎기 정면, 저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8.2cm, 복원저경 6.5cm

### 30. 장동옹편(도면 9-30, 도판 9-30)

구연부 및 동체부의 1/3 정도가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이 탁한 등색(7.5YR 6/4)이고, 외면과 속심은 갈색(7.5YR 4/3)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5.9cm, 복원구경 17.6cm

### 31. 발형토기(도면 9-31, 도판 10-31)

구연부 및 동체부의 2/3 정도가 결실되어 도면 복원하였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명적갈색(5YR 5/6)이다. 저부 외면은 흑색을 띠며 가장자리는 명황갈색(10YR 7/6)을 띠는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나 내면은 동체부에 내박자흔, 저부에 지두흔이 잔존하고, 외면은 동체부에 타날흔이 희미하게 잔존한다. 구연단에서 1.0cm 아래에는 직경 0.9cm의 원형구멍 1개가 확인되며, 대칭으로 뚫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고 14.2cm, 복원구경 14.5cm, 저경 10.3cm

### 32. 파수부장동옹편(도면 9-32, 도판 10-32)

구연부 및 동체부 상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암회색(N 3/)이다. 외면의 화구방향으로 놓였던 기면은 자연유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잔존하는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중위에는 우각형파수를 부착하였으며, 상면에는 흠을 낸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1.7cm, 복원구경 25.6cm

### 33. 장동옹편(도면 9-33, 도판 10-33)

구연부 및 동체부 상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은 격자문 타날 후 횡침선을 돌렸다.

잔존기고 12.6cm, 복원구경 21.8cm

### 34. 장동옹편(도면 9-34, 도판 10-34)

구연부 및 동체부 상부의 일부만 잔존하여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면은 내박자 조정 후 물손질 정면하였고, 외면은 격자문 타날하였다.

잔존기고 15.7cm, 복원구경 21.5cm

### 35. 단경호편(도면 10-35, 도판 10-35)

구경부 및 경부의 3/4 정도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경부는 1조의 돌대를 2열 돌렸다.

잔존기고 12.8cm, 구경 22.7cm

### 36. 기대편(도면 10-36, 도판 1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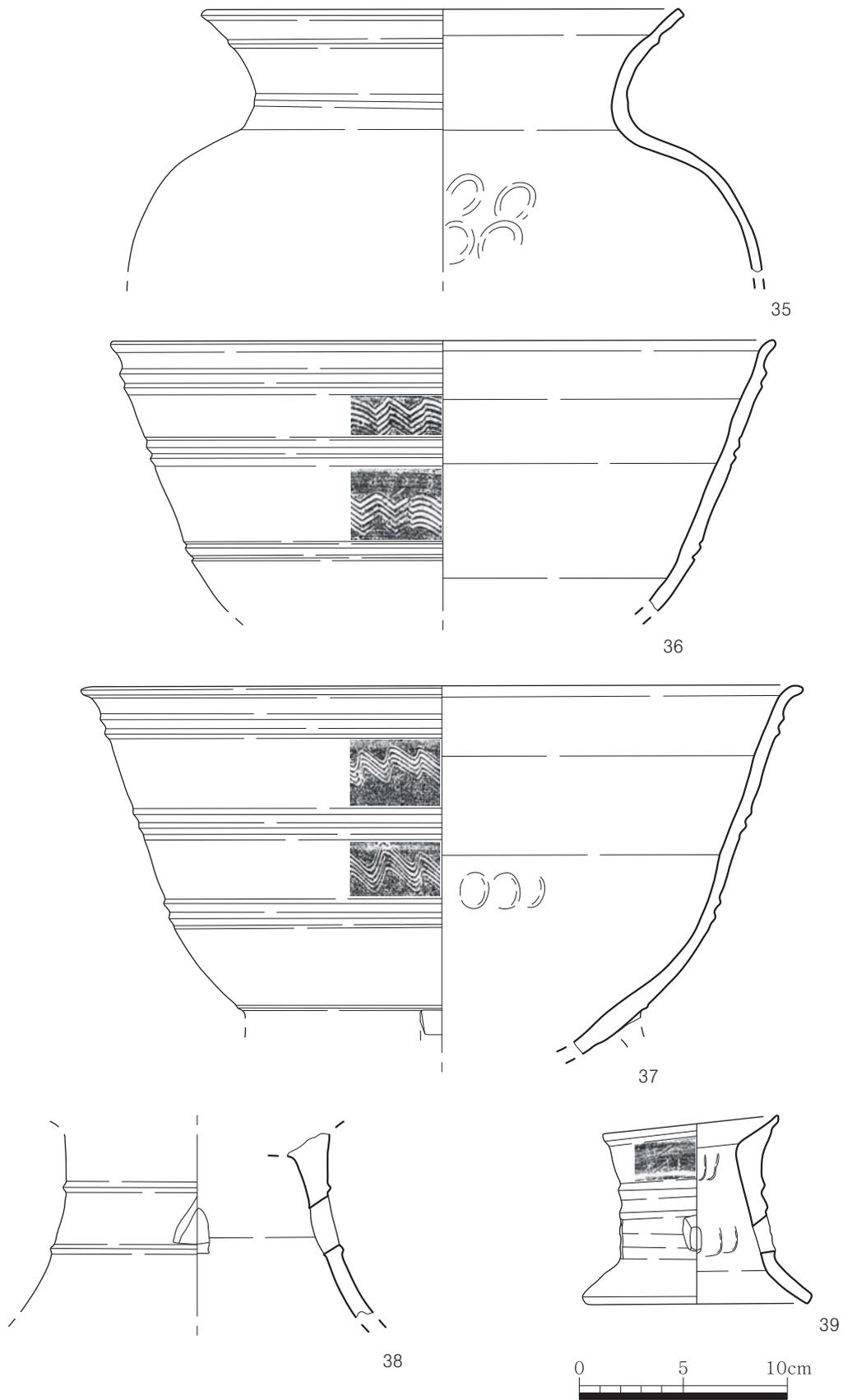
수발부의 1/4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이고, 속심은 암적회색(2.5YR 3/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외면은 구연단 아래 2조의 돌대를 돌려 구연부와 구분하였다. 중위와 하위에는 각 2조의 돌대를 돌려 3단 구획하였으며, 상위 2개의 단에는 6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13.2cm, 복원구경 3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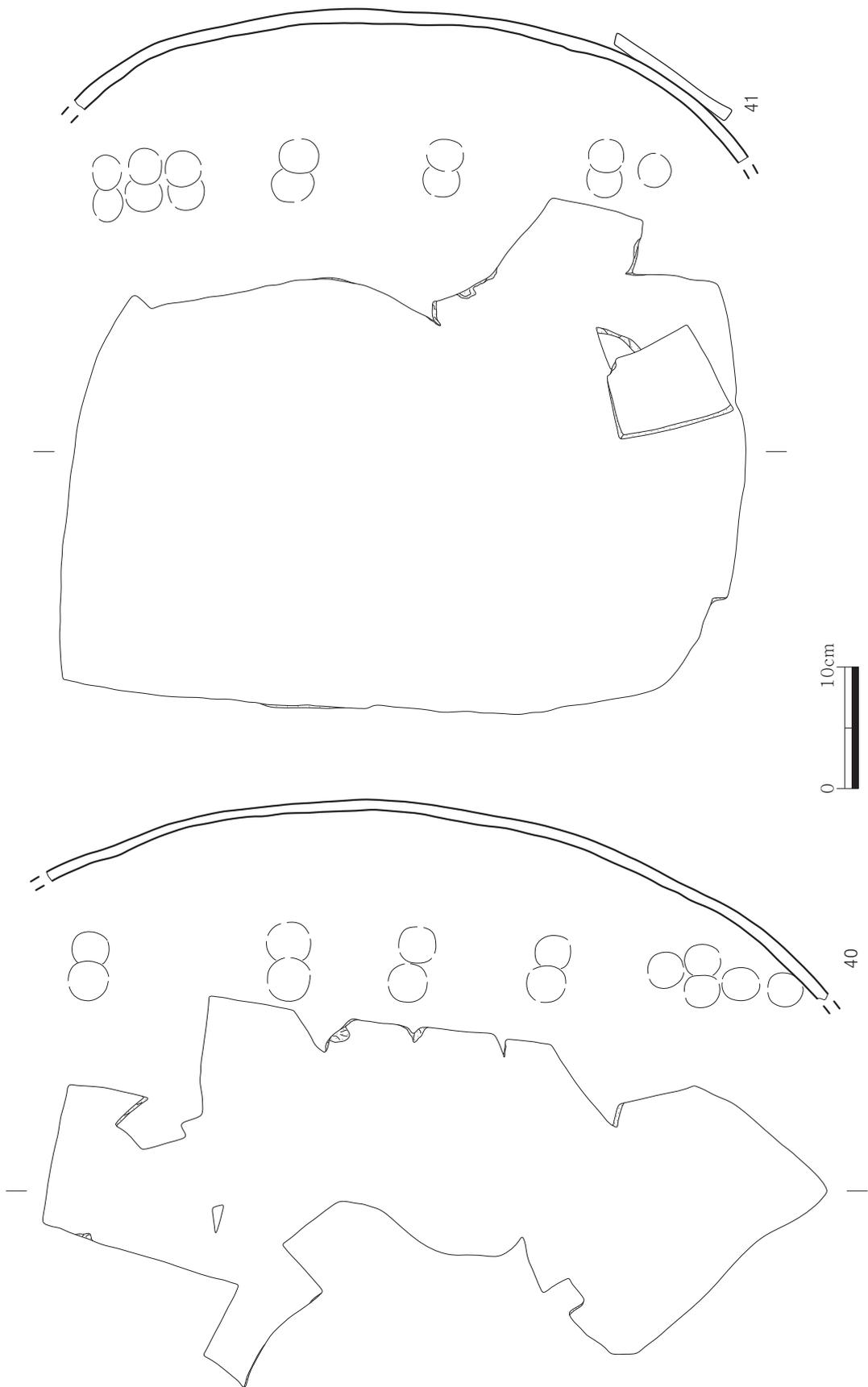
### 37. 기대편(도면 10-37, 도판 10-37)

수발부의 1/4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이고, 속심은 회색(N 6/)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외면은 구연단 아래 2조의 돌대를 돌려 구연부와 구분하였으며, 하위에 1조의 돌대를 돌려 대각부와 구분하였다. 수발부 중위에는 2조의 돌대를 2열 돌려 3단 구획하였으며, 상위 2개의 단에는 7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17.8cm, 복원구경 34.6cm



도면 10.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4



도면 11. 구상유구 1-1호 출토유물5

38. 기대편(도면 10-38, 도판 10-38)

대각부의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이고, 속심은 갈회색(7.5YR 4/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하는 대각에 1조의 돌대를 2열 돌려 3단 구획하였으며 가운데 단에 삼각형 투창을 뚫었다.

잔존기고 8.8cm

39. 기대(도면 10-39, 도판 10-39)

소형기대로 수발부 및 대각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수발부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명적갈색(5YR 5/6)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수발부는 짧으며, 대각은 상부가 통형이고, 하부는 나팔상으로 벌어졌다. 통형 대각에는 1조의 돌대를 3열 돌렸으며, 하위 2개의 돌대 사이에 장방형에 가까운 투창을 등간격으로 4개 뚫었다. 수발부 1곳에는 격자문을 시문하였다.

기고 8.3~9.2cm, 구경 8.4cm, 저경 10.5cm

40. 대호 동체부편(도면 11-40, 도판 11-40)

동체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이 회색(N 6/), 외면은 회색(N 4/)이고, 속심은 회갈색(5YR 4/2)이다. 전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는데 내면에는 내박자 조정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63.5cm

41. 대호 동체부편(도면 11-41, 도판 11-41)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이 자회색(5P 6/1), 외면은 회색(N 6/)이고, 속심은 갈회색(10YR 6/1)이다. 내면의 하부와 외면의 상부는 자연유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외면의 하위에는 이기재로 추정되는 토기의 동체부편이 부착되어 있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는데 내박자 조정흔이 확인되고,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55.0cm

<1-2층>

42. 고배(도면 12-42, 도판 11-42)

무개식 고배로 신부의 1/4 정도만 잔존하여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이고, 속심은 회갈색(5YR 5/2)이다. 신부 내면은 흑녹색 자연유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잔존기고 7.4cm, 복원구경 22.2cm

## 43. 고배(도면 12-43, 도판 11-43)

구연 및 신부의 1/5 정도와 대각의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이고, 속심은 갈회색(7.5YR 5/1)이다. 신부 내외면에는 녹흑색 자연유가 흡착되어 일부 흘러내린 흔적이 확인되며, 일부는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9.3cm, 복원구경 16.2cm

## 44. 고배 대각편(도면 12-44, 도판 11-44)

통형고배의 대각 하부 1/3 정도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과 속심이 회색(N 6/)이고, 외면은 회색(N 4/)이다. 대각단에는 흑녹색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거나 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는데 외면은 회전목리흔이 확인된다. 잔존하는 기면에는 1조의 돌대를 3열 돌려 상위 2개의 단에 장방형 투창을 상하단 엇갈리게 뚫었다.

잔존기고 8.0cm, 복원저경 13.6cm

## 45~48. (파수부)배

파수가 부착된 2점을 포함하여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신부 하위는 회전깍기 정면하였다. 세부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 징
45	12-45	11-45	기고 6.5 복원구경 11.4 저경 5.5	신부의 1/3 정도, 저부의 1/2 정도 잔존, 도면 복원.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암회색(N 3/), 저부는 갈회색(7.5YR 5/1). 신부 하위 회전깍기흔 확인. 신부 중위 2조 돌대 돌려 구연부와 구분.
46	12-46	11-46	기고 4.4 복원구경 9.5 저경 6.2	구연부 및 신부의 일부, 저부 1/2 정도 잔존, 도면 복원. 색조는 내외면 회색(5Y 6/2), 속심 회황색(2.5Y 6/2). 저부 내면에 황녹색 자연유 흡착, 재(灰) 일부 부착. 신부 하위 회전깍기 후 물손질 정면.
47	12-47	11-47	기고 4.5 복원구경 11.5 저경 5.2	구연부, 신부 및 저부의 1/3 정도 잔존, 도면 복원. 색조는 내외면 흑색(N 2/), 속심 흑갈색(5YR 3/1). 저부 내면에 자연유 산화 박리, 회색(N 5/)을 띠. 신부 하위와 저부 회전깍기 정면. 외면은 돌대 1열 돌려 구연부와 구분. 돌대 상위에서 저부까지 이어지는 파수 'C' 자형으로 부착, 파수 단면형태 장방형.
48	12-48	11-48	기고 7.4 복원구경 8.7 저경 4.5	구연부 2/3 정도, 신부의 1/2 정도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속심 회갈색(7.5YR 5/2). 저부 짙은 등 암회색(N 4/)을 띠는 소성흔 확인. 신부 하위 회전깍기 정면. 신부 1조 돌대 돌려 구연부와 구분. 돌대에서 저부까지 이어지는 파수 'C' 자형으로 부착, 파수 단면형태 장방형.

49. 호 저부편(도면 12-49, 도판 11-49)

동체부 하부와 저부가 잔존한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이 대체로 등색(7.5YR 7/6)이고, 외면 일부는 탁한 적갈색(5YR 5/4)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고, 동체부 하위는 회전짜기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4.6cm, 저경 8.2cm

50. 호 저부편(도면 12-50, 도판 11-50)

동체부 하부 및 저부의 1/3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이 등색(7.5YR 7/6)이고, 외면과 속심은 등색(5YR 6/6)이다. 동체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는데, 내면에는 내박자흔이 확인된다. 저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8.0cm, 복원저경 15.4cm

51. 기대편(도면 12-51, 도판 11-51)

대각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면이 회색(N 4/), 외면이 흑색(N 2/)이며, 속심은 회색(N 6/)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하는 기면은 2조의 돌대를 2열 돌려 2단 구획되었으며, 상단에는 반원점문의 반원문이 상하 엇갈리게 마주보게 시문하였고, 하단에는 사선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8.4cm

52. 기대편(도면 12-52, 도판 1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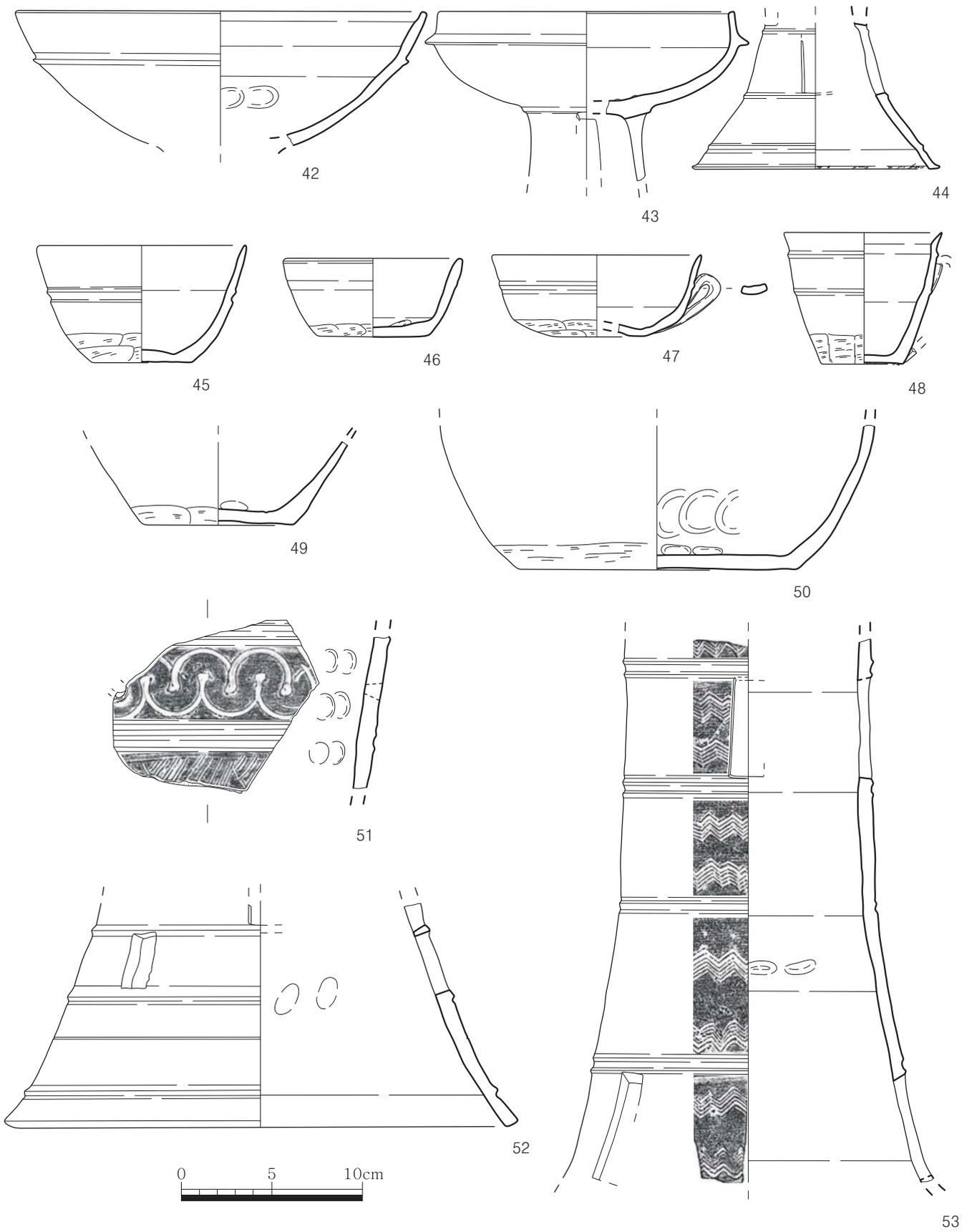
대각 하부의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이고, 속심은 회색(N 6/)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단 외면은 자연유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잔존하는 기면에는 1조의 돌대를 3열 돌려 4단 구획되었으며, 상위 2개의 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상하단 엇갈리게 뚫었다.

잔존기고 12.5cm, 복원저경 26.9cm

53. 기대편(도면 12-53, 도판 11-53)

통형 기대의 대각부 1/3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암청회색(5PB 4/1)이고, 속심은 회적색(10R 4/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외면은 자연유가 산화 박리되었다. 잔존하는 기면에는 2조의 돌대를 3열 돌려 5단 구획되었으며, 각 단에는 6치구의 파상문을 2열 시문하였고, 상위 2번째 단과 최하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상하단 엇갈리게 뚫었다.

잔존기고 30.2cm



도면 12. 구상유구 1-2호 출토유물1

## 2) 수혈유구

조사대상지 남쪽 경계부에서 총 4기, 북서쪽 경계부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수혈유구 2~4호 내부에는 다량의 유물이 파쇄되어 확인되었다.

### (1) 수혈유구 1호

#### 가. 유구(도면 13, 도판 12·13)

조사대상지 북서쪽 경계부, 해발 87.3m 정도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서쪽 경계 밖으로 이어져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수혈유구 48호의 일부를 파괴하였고, 수혈유구 40호에 의해 북동쪽 벽면 일부가 파괴되었다. 동쪽으로 고상식 건물지와 북쪽으로 수혈유구 47호가 인접해 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810cm, 잔존너비 440cm, 깊이 33~55cm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조성되었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갈색 사질점토,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회황갈색 사질점토, 갈색+황갈색 사질점토, 올리브갈색 사질점토, 암갈색+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시설은 수혈 1기와 주혈 11개가 확인되었다. 수혈은 유구 중앙부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방형이며, 벽면은 비스듬히 조성하였고, 바닥은 평평하다. 크기는 남-북 길이 95cm, 동-서 길이 80cm, 깊이 7cm 정도이다. 내부에서 크기 10~20cm 정도의 할석균과 반응 및 고배가 확인되었으며, 암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주혈은 북벽에서 동-서 방향으로 각각 5개(주혈①②⑥⑦⑪), 중앙부에서 동-서 방향으로 5개(주혈③④⑧⑨⑩)가 확인되었으며, 주혈⑤는 수혈 벽면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U'자형이다. 크기는 직경 30~48cm, 깊이 5~50cm 정도이다. 내부에 암갈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유물은 수혈 내부에서 반응과 고배 등 2점이 확인되었다.

####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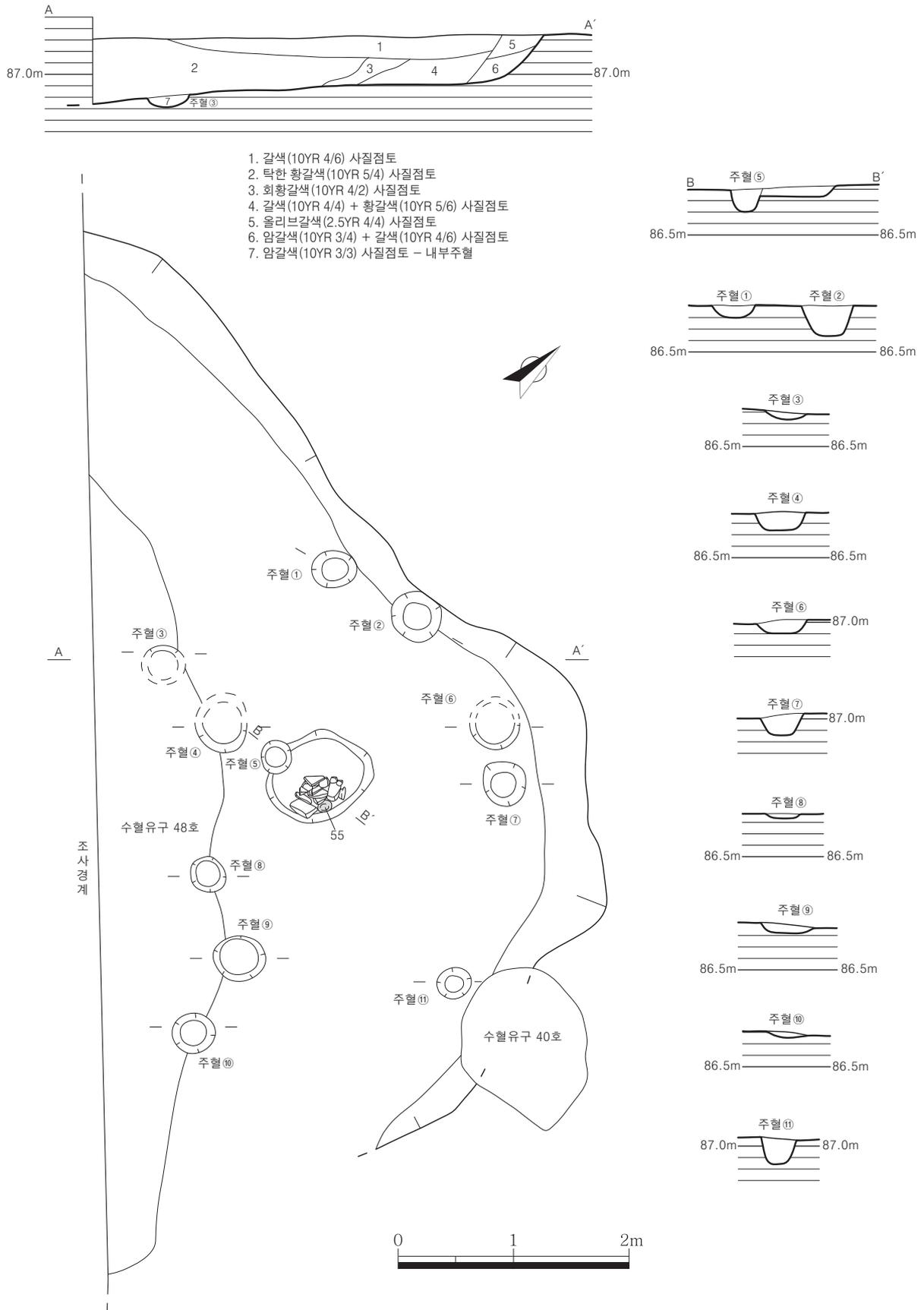
##### 54. 고배(도면 14-54, 도판 13-54)

구연부 및 신부의 3/4 정도가 결실되어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였으며, 상단에는 장방형 투창을 대칭으로 뚫었다.

기고 8.8cm, 복원구경 10.8cm, 대각고 4.5cm, 저경 8.3cm

##### 55. 반응(도면 14-55, 도판 1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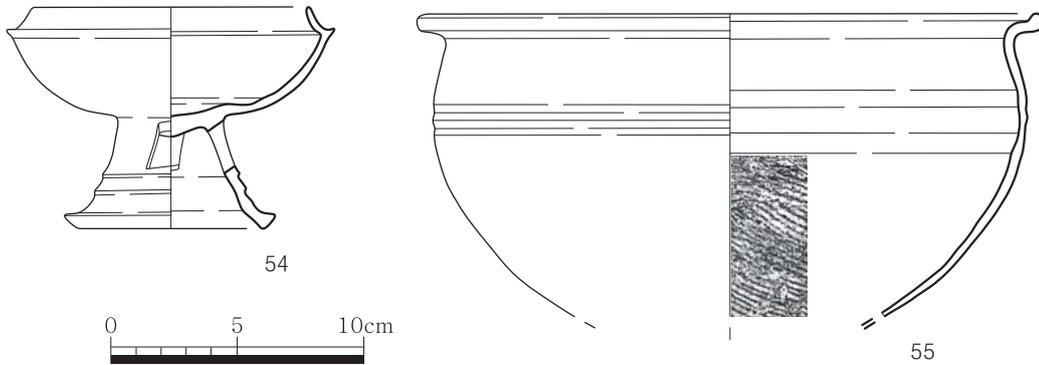
구연부 1/3 정도와 동체부의 1/4 정도가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원래 회색(N 5/)인데



도면 13. 수혈유구 1호

일부 표면은 마모 및 박리되어 속심과 동일한 회백색(5Y 7/1)을 띤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고, 동체부는 내면에 선문 내박자 조정, 외면은 선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2.0cm, 복원구경 24.6cm



도면 14.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

(2) 수혈유구 2호

가. 유구(도면 15, 도판 14)

조사대상지 남쪽 경계 중앙부, 해발 87.3m 정도에서 확인되었으며, 남쪽 경계 밖으로 이어져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었다. 동쪽에는 수혈유구 1·36·39호가 인접해 있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250cm, 너비 130cm, 깊이 40cm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하게 조성되었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토기편이 불규칙하게 파쇄되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기대, 파수부배, 대부완, 고배, 단경호 등이며, 기형과 기종을 파악할 수 있는 토기 위주로 총 5점을 수습하였다.

나. 유물

56. 고배(도면 15-56, 도판 15-56)

대각의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이고, 속심은 회적색(2.5YR 5/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하는 대각에는 등간격으로 뚫은 4개의 투창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6.4cm, 구경 10.6cm

57. 대부완(도면 15-57, 도판 15-57)

구연부 1/3 정도, 신부 일부와 대각이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이고, 속심은 암적회색(2.5YR 3/1)이다. 내면은 녹흑색 자연유로 흡착되었으며, 일부는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

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는 1조의 돌대를 돌렸다. 잔존하는 대각은 등간격으로 뚫은 4개의 투창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5cm, 구경 10.4cm

#### 58. 대부완편(도면 15-58, 도판 15-58)

구연부 및 신부의 1/2 정도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신부는 타원형으로 찌그러졌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이고, 속심은 회적색(10R 4/2)이다. 내면은 황녹색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는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저부는 큰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신부는 2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잔존하는 대각에는 등간격으로 뚫은 투창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9~6.6cm, 복원구경 10.0~11.6cm

#### 59. 대부완편(도면 15-59, 도판 15-59)

신부의 1/3 정도와 대각 상부의 1/2 정도가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청회색(5PB 4/1)이고, 속심은 적회색(10R 4/2)이다. 신부 내면과 화구방향으로 놓였던 기면은 황흑색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는 2조와 1조의 돌대를 돌렸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였고, 각 단에는 장방형 투창 7개씩을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었다.

잔존기고 10.4cm

#### 60. 파수부배(도면 15-60, 도판 1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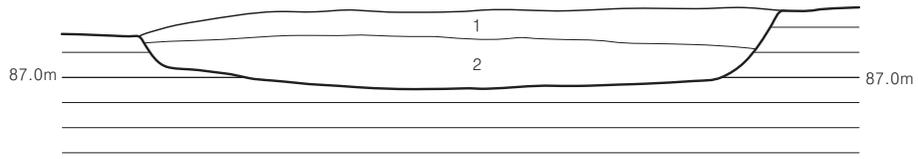
구연부 3/4 정도와 동체부의 1/3 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6/)이고, 속심은 회백색(N 7/)이다. 외면은 자연유가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하위는 회전깍기 정면하였다. 구연부와 동체부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고, 동체부 중위와 하위에는 각 1조의 돌대를 돌렸다. 돌대와 돌대 사이에는 'C'자형으로 부착한 파수흔이 확인된다. 동체부 하위 1곳에는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기고 10.7cm, 복원구경 9.3cm, 저경 5.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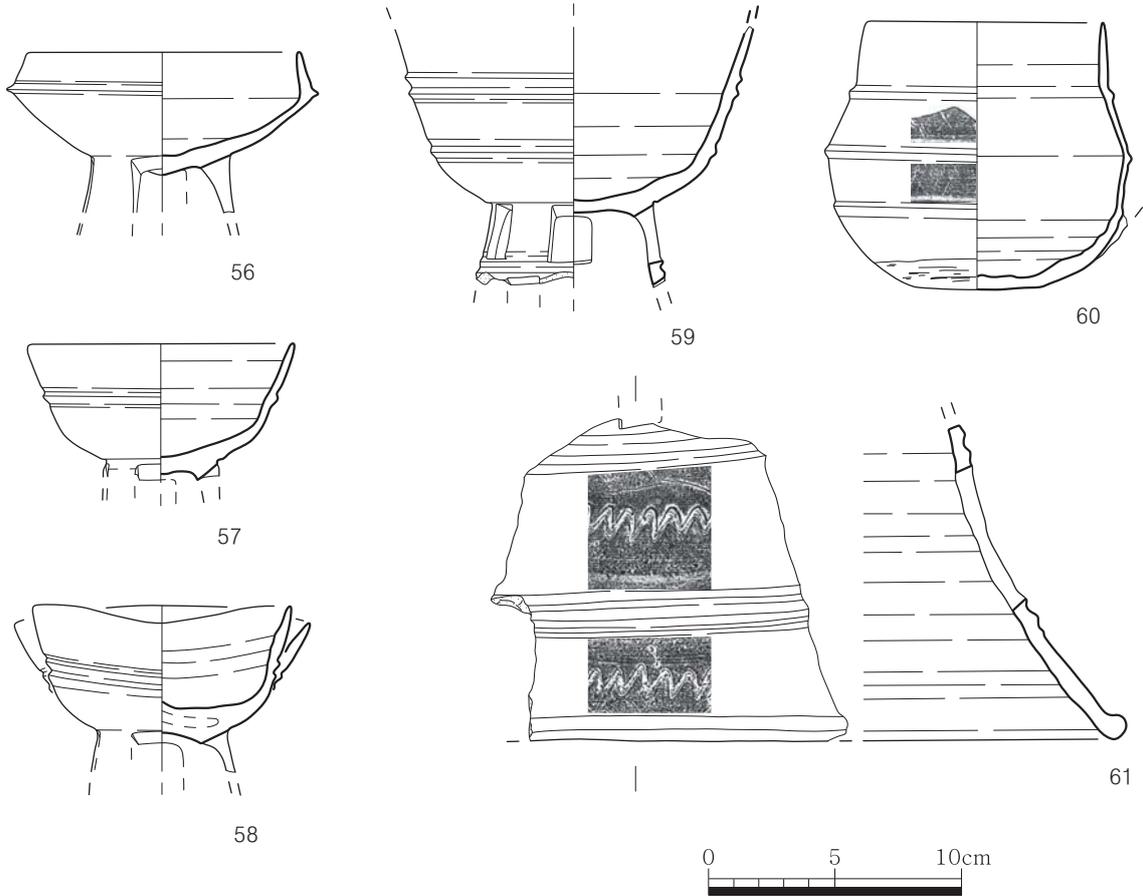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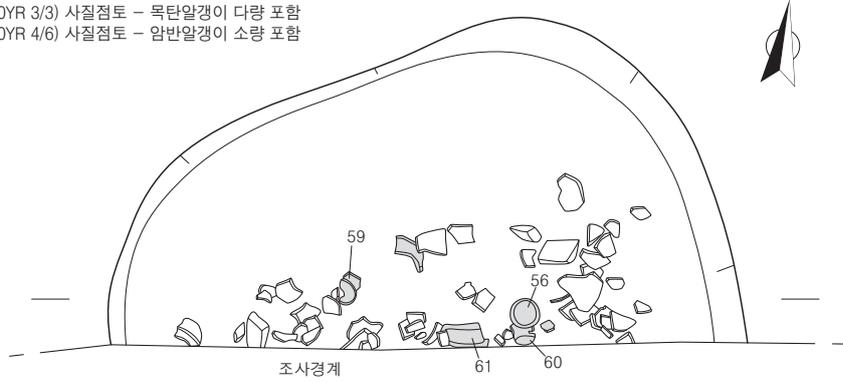
#### 61. 기대 대각편(도면 15-61, 도판 15-61)

대각의 하부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이고, 속심은 회황색(2.5Y 7/2)이다. 외면은 황녹색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거나 부분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하는 대각에는 2조의 돌대를 2열 돌려 3단 구획되었고, 상위 2개의 단에는 상하단 엇갈리게 뚫은 투창흔이 확인되며, 하위 2개의 단에는 6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12.5cm



- 1. 갈색(10YR 3/3) 사질점토 - 목탄알갱이 다량 포함
- 2. 갈색(10YR 4/6) 사질점토 - 암반알갱이 소량 포함



도면 15. 수혈유구 2호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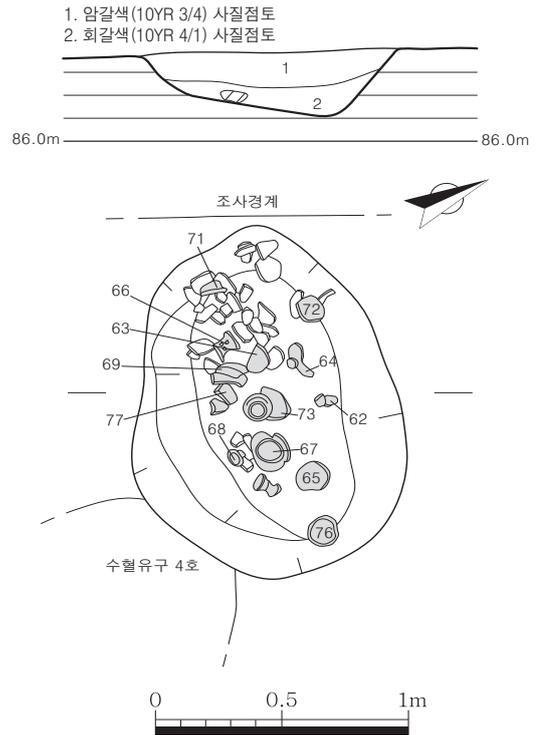
## (3) 수혈유구 3호

## 가. 유구(도면 16, 도판 15·16)

조사대상지 남서쪽 경계부, 해발 86.4m 정도에서 확인되었으며, 수혈유구 4호의 남쪽 벽면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148cm, 너비 110cm, 깊이 30cm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히 조성되었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 암갈색 사질점토와 회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토기편이 불규칙하게 파쇄되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개, 고배, 대부완 등이며, 기형과 기종을 파악할 수 있는 토기 위주로 총 16점을 수습하였다.



도면 16. 수혈유구 3호

## 나. 유물

## 62. 개편(도면 17-62, 도판 17-62)

꼭지, 구연부 및 신부의 1/4 정도가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6/)이고, 속심은 갈회색(7.5YR 5/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내면은 흑녹색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일부는 산화 박리되었다.

기고 4.5cm, 복원구경 10.2cm, 꼭지고 0.8cm, 꼭지경 2.8cm

## 63. 개(도면 17-63, 도판 17-63)

구연부 및 신부의 1/3 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이고, 속심은 회적색(2.5YR 5/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내면의 중앙부는 짙은 등 원형의 중첩소성흔이 확인되며, 가장 자리는 흑녹색 및 황녹색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기고 5.7cm, 구경 11.6cm, 꼭지고 1.0cm, 꼭지경 3.0cm

## 64. 개편(도면 17-64, 도판 17-64)

꼭지 2/3 정도, 구연부 극히 일부와 신부의 1/3 정도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외면의 중앙부는 회백색(2.5Y 7/1)을 띠는 원형의 중첩소성흔이 확인된다. 꼭지는 장방형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7.0cm, 복원구경 12.4cm, 꼭지고 1.5cm, 꼭지경 3.8cm

65. 고배(도면 17-65, 도판 17-65)

구연부, 신부 및 대각의 1/3 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장방형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9.5cm, 구경 11.0cm, 대각고 4.9cm, 저경 7.9cm

66. 고배(도면 17-66, 도판 17-66)

구연부 1/3과 신부의 1/4 정도가 결실되었으며, 신부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이고, 속심은 갈회색(5YR 4/1)이다. 신부 내면의 중앙부는 탁한 적갈색(5YR 5/3)을 띠는 원형의 중첩소성흔이 확인되며, 화구방향으로 놓였던 기면은 자연유가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였으며, 상단에는 장방형, 하단에는 방형 투창 각 3개씩을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10.2~10.7cm, 복원구경 10.4cm, 대각고 6.0cm, 저경 8.6cm

67. 고배(도면 17-67, 도판 17-67)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5Y 5/1)이고, 속심은 회백색(2.5Y 7/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 하위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그 상단에 방형 투창 5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7.9cm, 구경 12.1cm, 대각고 2.9cm, 저경 8.6cm

68. 대부완(도면 17-68, 도판 17-68)

구연부 및 신부 상부의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였으며, 상단에는 장방형, 하단에는 제형 투창 각 3개씩을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9.1cm, 구경 10.6cm, 대각고 4.2cm, 저경 7.0cm

69. 대부완편(도면 17-69, 도판 17-69)

신부 하부 및 대각의 1/3 정도가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이고, 속심은 갈회색(7.5YR 4/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내면은 자연유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대각은 1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였으며, 하단에는 대칭으로 뚫은 투창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5.8cm, 대각고 3.7cm, 복원저경 6.3cm

## 70. 배(도면 17-70, 도판 17-70)

뚜껑받이턱 및 신부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신부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이고, 속심은 회적색(10R 4/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2.3~2.8cm, 구경 9.2cm

## 71. 연질발(도면 17-71, 도판 17-71)

접합부의 표면 일부가 박락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동체부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황갈색(10YR 6/2)과 갈회색(10YR 6/1)이다. 내외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는데, 동체부 하위와 저부는 횡방향 깎기 정면하였다. 동체부 내면은 회전성형흔이 확인된다.

기고 6.1~6.9cm, 구경 9.2cm, 저경 4.5cm

## 72. 연질발편(도면 17-72, 도판 17-72)

구연부 1/3 정도와 동체부 하부 및 저부로 분리되어 잔존하며, 도면 복원하였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등색(5YR 6/6)이다. 내외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는데, 동체부 하위는 횡방향 깎기 정면하였다. 동체부 내면에는 회전성형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9/6.3cm, 복원구경 10.1cm, 저경 5.4cm

## 73. (파수부)배(도면 17-73, 도판 17-73)

(파수부)배로 추정되며 구연부 1/4 정도 및 동체부 1/3 정도가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6/)이고, 속심은 회색(N 4/)이다. 내외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하위는 회전깎기 정면하였다. 동체부 상부에는 횡침선을 촘촘히 돌렸다.

기고 9.0cm, 복원구경 9.5cm, 저경 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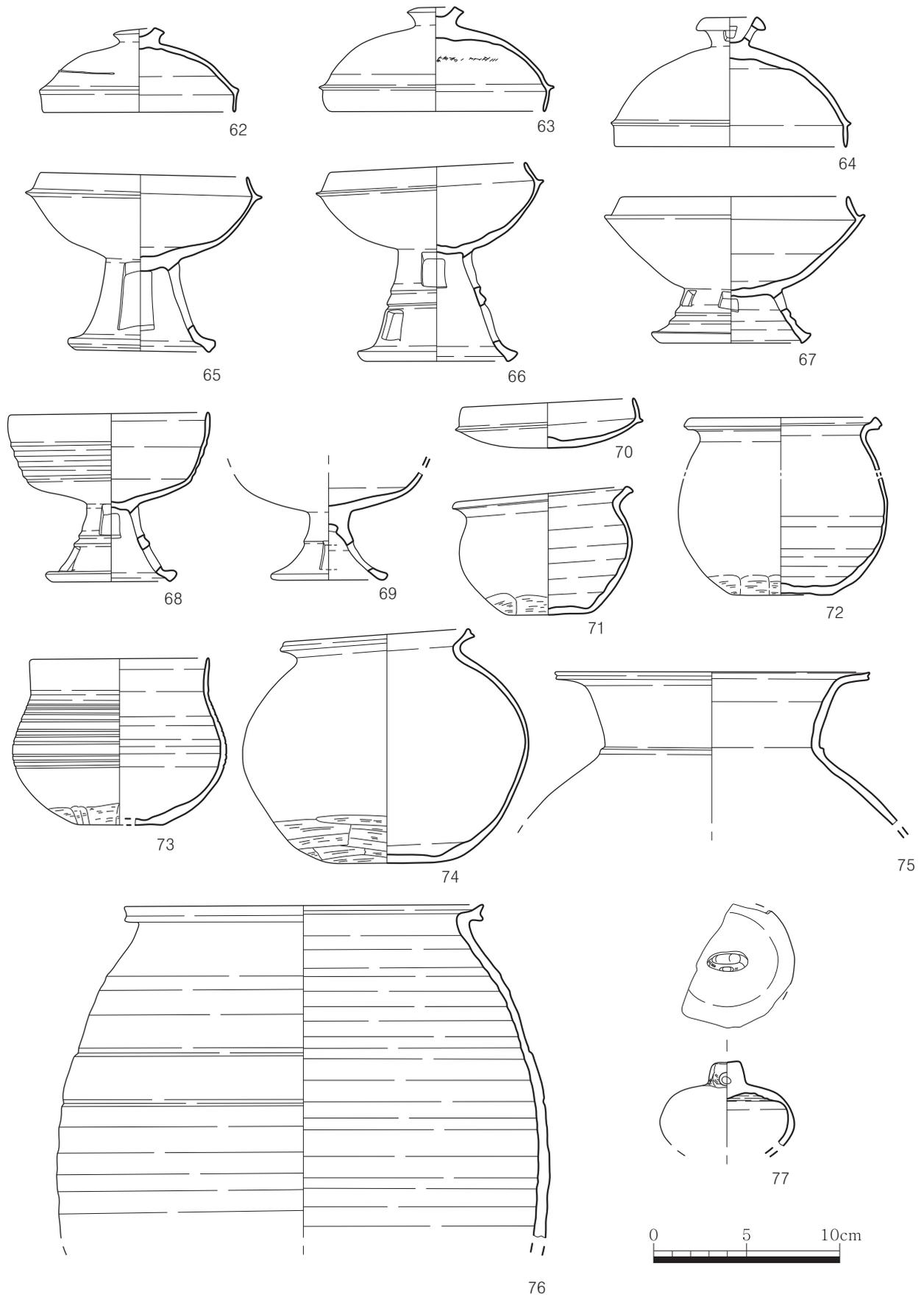
## 74. 단경호(도면 17-74, 도판 17-74)

구경부, 동체부 및 저부의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외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는데 동체부 하위와 저부는 횡방향 깎기 정면하였다.

기고 12.0~12.7cm, 구경 9.8cm, 동최대경 15.6cm, 저경 6.8cm

## 75. 단경호편(도면 17-75, 도판 18-75)

구경부 및 동체부 상부의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



도면 17. 수혈유구 3호 출토유물

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6/)이고, 속심은 회적색(10R 4/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외면에는 녹흑색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거나 일부는 녹황색으로 산화되었다.

잔존기고 8.2cm, 복원구경 16.8cm

#### 76. 장옹호편(도면 17-76, 도판 18-76)

구연부 및 동체부 상부의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는데, 동체부에는 회전성형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7.9cm, 복원구경 19.2cm

#### 77. 토제 방울편(도면 17-77, 도판 18-77)

기형의 1/4 정도 잔존한다. 도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외면은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상부 외면은 손잡이 부착후 물손질하였다. 평면형태 원형에 가깝고, 상부에는 원형의 구멍이 뚫린 방형의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잔존기고 4.5cm, 복원직경 7.2cm

#### (4) 수혈유구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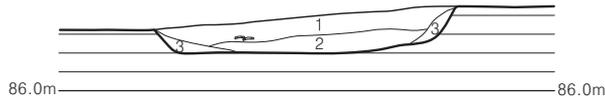
##### 가. 유구(도면 18, 도판 18~20)

조사대상지 남서쪽 경계부, 해발 86.4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수혈유구 3호에 의해 남쪽 벽면 일부가 파괴되었으며, 수혈유구 53호의 동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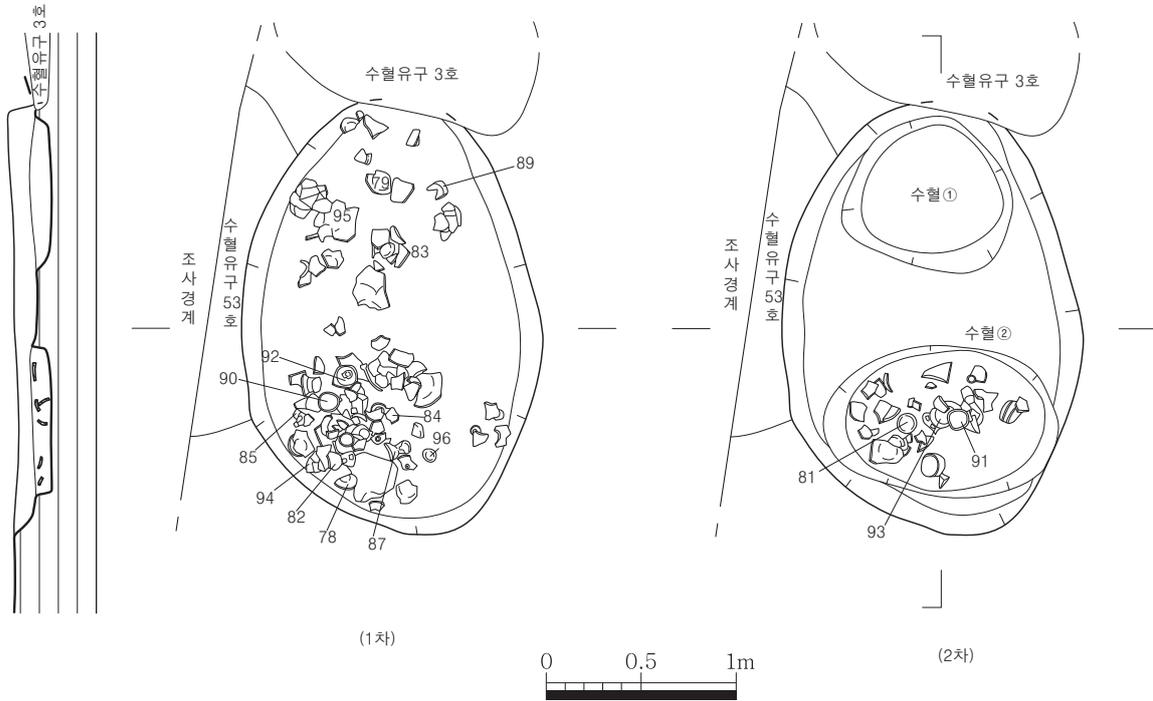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230cm, 너비 160cm, 깊이 10cm 정도이다. 벽면은 비스듬히 조성되었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내부에 암갈색 사질점토, 황갈색 사질점토와 회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으며, 상부에는 다수의 토기편이 불규칙하게 확인되었다.

내부시설로는 수혈 2기가 확인되었으며, 수혈①은 북쪽, 수혈②는 남쪽에 위치한다. 수혈①은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90cm, 깊이 10cm 정도이다. 내부에는 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다. 수혈②는 평면형태 부정형이며, 크기는 길이 120cm, 너비 80cm, 깊이 8cm 정도이다. 내부에는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토기편이 불규칙하게 파쇄되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기형과 기종을 파악할 수 있는 토기 위주로 선별수습하였으며, 수혈② 내부에서 개, 배, 대부장경호 등 5점, 수혈 바닥면에서 고배, 대부완, 배 등 18점 등 총 23점을 수습하였다.



1.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2.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
3. 회갈색(10YR 4/1) 사질점토



도면 18. 수혈유구 4호

#### 나. 유물

78~81. 개

도질토기로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세부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징
78	19-78	20-78	기고 4.7 구경 9.6 꼭지고 1.1 꼭지경 2.9	구연부 및 신부의 1/2 정도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속심은 탁한 황등색(10YR 7/2). 신부 내면의 중앙부는 회갈색(5YR 5/2)을 띠는 중첩소성흔 확인. 신부 외면 상위는 1조 침선 2열 돌림, 침선 사이에 삼각침선문 등간격으로 시문. 꼭지는 타원형 투공 대칭으로 뚫음.
79	19-79	20-79	잔존기고 4.3 꼭지고 1.0 꼭지경 3.6	구연부 및 신부의 하위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4/), 속심은 갈회색(5YR 6/1). 신부 내면은 흑녹색 자연유 두껍게 흡착. 신부 외면은 삼각침선문 등간격으로 시문.
80	19-80	20-80	기고 3.9 복원구경 8.9 꼭지고 1.1 꼭지경 1.5	구연부 및 신부의 1/2 정도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속심은 흑색(N 3/). 신부 외면은 자연유 산화 박리됨. 신부 외면 하위는 1조 침선 8열 돌림. 외구연과 내구연 사이에 깊은 및 흑색을 띠는 받침흔 확인.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 징
81	19-81	20-81	기고 3.1 구경 7.5 꼭지고 0.6 꼭지경 2.4	구연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6/), 속심은 회색(N 4/). 신부 외면은 암녹색 자연유 흡착, 부분 산화 박리.

## 82~86. 고배

도질토기로 신부 일부와 대각만 잔존하는 3점을 포함하여 모두 5점이 출토되었다. 소성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세부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 징
82	19-82	20-82	기고 10.8 복원구경 12.0 대각고 6.5 저경 9.2	구연부 및 신부의 2/3 정도, 대각의 1/4 정도 결실, 도면 복원. 소성상태 양호하지 못함.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 대각은 2조 돌대 돌려 2단 구획, 상단 장방형, 하단 방형 투창 각 3개씩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음.
83	19-83	20-83	기고 9.7 구경 12.6 대각고 5.0 저경 9.5	구연부 및 신부의 2/3 정도 결실, 도면 복원.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속심 암회색(N 4/). 신부 내면은 중앙부 자연유 산화 박리. 대각은 2조 돌대 돌려 2단 구획, 각 단에 제형 투창 각 4개씩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음.
84	19-84	21-84	잔존기고 6.0 대각고 4.6 저경 7.4	신부 하부와 대각의 1/2 정도 잔존, 도면 복원. 색조는 신부 내외면 회색(N 5/), 대각 하부와 속심 회백색(2.5Y 7/1). 대각은 2조 돌대 돌려 2단 구획, 상단 장방형, 하단 방형 투창 각 4개씩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음.
85	19-85	21-85	잔존기고 5.3 대각고 4.5 저경 8.0	신부 일부와 대각 1/2 정도 잔존. 색조는 내외면 회색(N 4/), 속심 회적색(10R 4/2). 화구방향으로 놓였던 기면은 자연유 산화 박리. 신부에 잔 기포 형성. 대각은 2조 돌대 돌려 2단 구획, 각 단 장방형 투창 각 4개씩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음.
86	19-86	21-86	잔존기고 6.4 대각고 5.8 저경 8.2	신부 일부와 대각 잔존.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 대각은 2조 돌대 돌려 2단 구획, 상단 장방형, 하단 제형 투창 각 4개씩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음.

## 87. 대부완(도면 19-87, 도면 21-87)

구연부와 신부의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6/)이고, 속심은 회적색(2.5YR 5/2)이다. 내외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내면은 자연유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고, 대각단은 깊은 등 회색(N 4/)을 띠는 소성흔이 확인된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 구획하였으며, 각 단

에는 장방형 투창 4개씩을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었다.

잔존기고 7.2cm, 대각고 4.0cm, 저경 6.5cm

88. 대부소호(도면 19-88, 도판 21-88)

구연부 및 대각단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이고, 속심은 회백색(2.5Y 7/1)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전면은 암녹색 자연유가 흡착되었고, 일부는 자연유가 산화 박리되었다.

기고 4.0~4.4cm, 구경 3.5cm, 대각고 1.0cm, 저경 2.2cm

89. 파수부배(도면 19-89, 도판 21-89)

구연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이고, 속심은 암회색(N 3/1)이다. 내외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하위는 회전깎기 정면하였다. 동체부 하위에는 파수 부착흔이 확인된다.

기고 5.7cm, 구경 4.9cm, 저경 2.6cm

90. 배(도면 19-90, 도판 21-90)

구연부의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6/)이고, 속심은 회백색(5Y 7/1)이다. 내외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저부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3.1cm, 구경 7.5cm

91. 배(도면 19-91, 도판 2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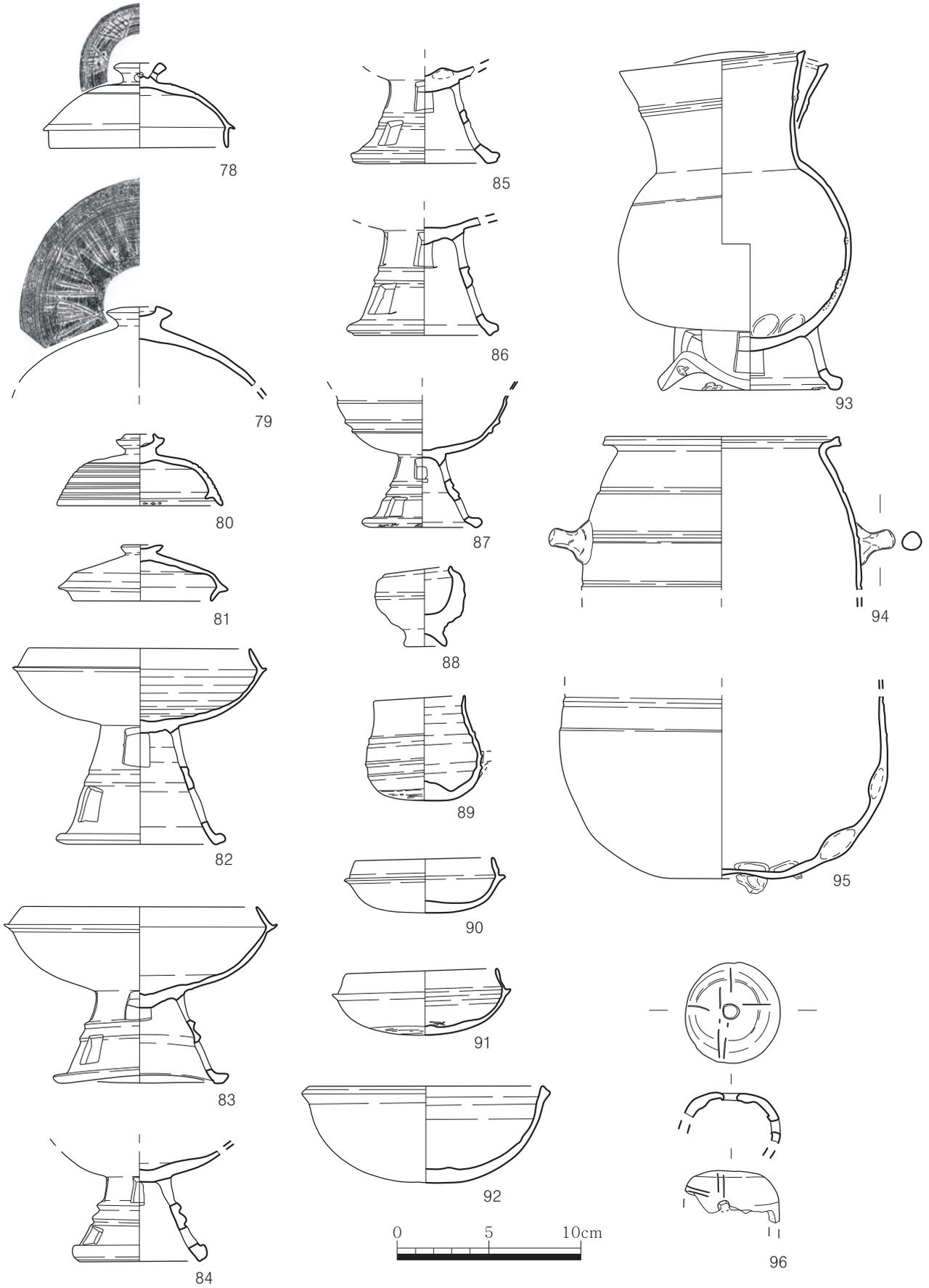
구연부 1/3 정도와 신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6/)이고, 속심은 회색(N 4/)이다. 내외면은 대체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신부 하위는 회전깎기 정면하였다.

기고 3.5cm, 구경 8.2cm

92. 배(도면 19-92, 도판 21-92)

구연부 및 신부의 일부 1/3 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5Y 7/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5.3cm, 구경 12.7cm



도면 19. 수혈유구 4호 출토유물

93. 대부장경호(도면 19-93, 도판 21-93)

구경부 및 동체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구경부는 타원형으로 찌그러졌고, 대각은 한쪽이 위로 들린 상태 등 기형이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6/)이고, 속심은 회색(N 4/)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부분의 기면에는 암녹색의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일부는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동체부에는 잔기포가 다수 형성되어 있고, 대각단에는 이상재로 추정되는 모래받침흔이 잔존한다. 대각은 장방형 투창 7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17.5~18.5cm, 구경 10.1~12.2cm, 대각고 3.5cm, 저경 10.0cm

94. 파수부호(도면 19-94, 도판 21-94)

구연부 및 동체부 상부의 1/3 정도가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소량의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하는 동체부에는 1조의 돌대를 3열 돌렸으며, 가운데 돌대에는 대칭으로 부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파수가 부착되어 있다.

잔존기고 8.5cm, 복원구경 12.8cm

95. 호 동체부(도면 19-95, 도판 21-95)

동체부 하부의 1/2 정도와 저부가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전면에는 크고 작은 기포가 다수 형성되어 있다.

잔존기고 10.1cm, 동최대경 17.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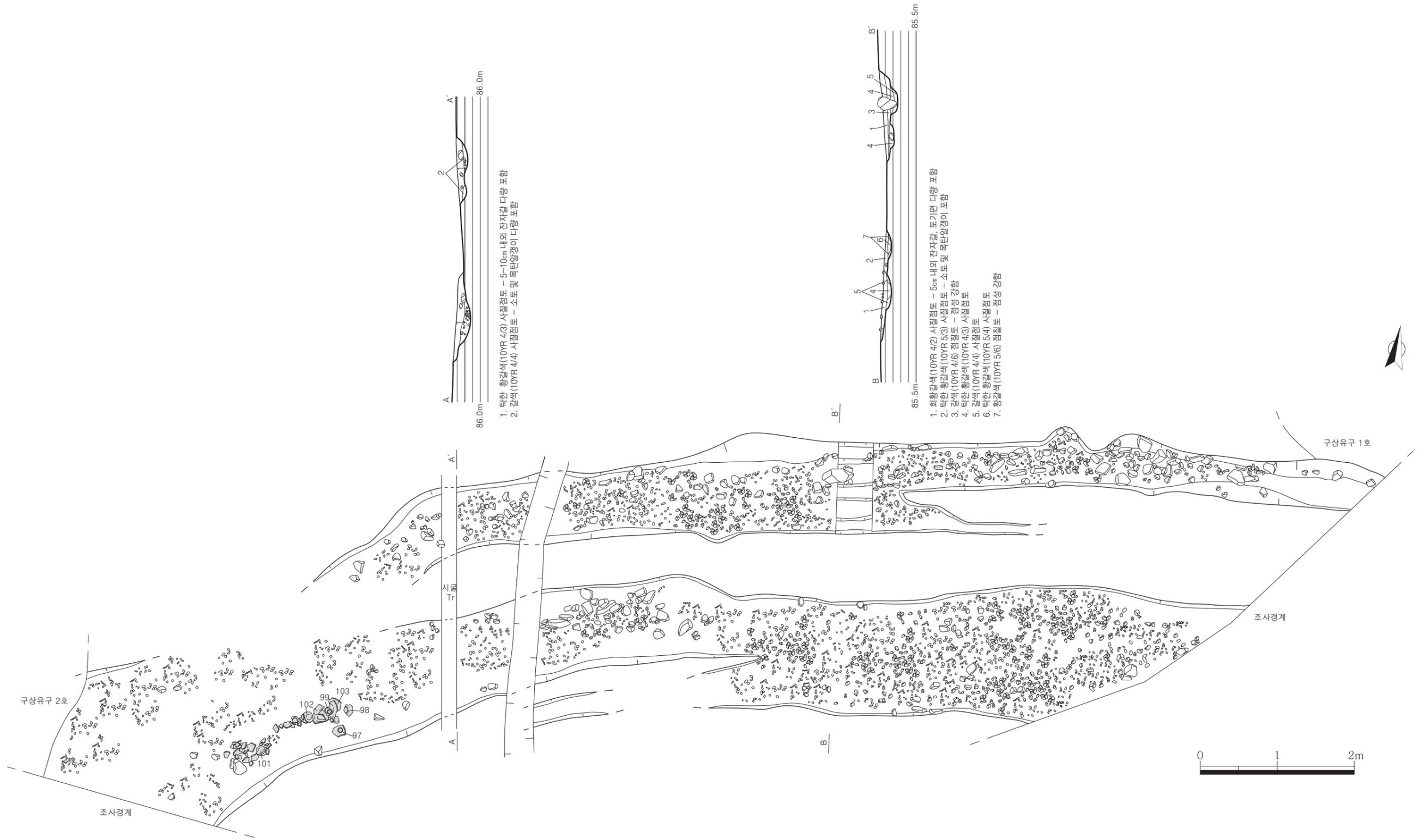
96. 토제 방울편(도면 19-96, 도판 21-96)

기형의 1/3 정도 잔존한다. 도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6/)이고, 속심은 회갈색(5YR 4/2)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상면에는 원형의 구멍을 뚫었고, 4측면에는 각 1개씩 구멍을 뚫어 대칭을 이루었다. 상면의 원형 구멍과 측면의 구멍 사이는 침선으로 연결하였다.

잔존직경 5.1cm

###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유구는 도로유구 1기·구상유구 5기·수혈유구 47기·매납유구 1기·고상식 건물지 1기와 주혈 119개가 확인되었다. 수혈유구와 주혈은 조사대상지 전면에서 확인되었으며, 구상유구와 도로유구는 조사대상지 동편에서 확인되었다. 구상유구 주변으로는 다수의 수혈유구와 주혈 등이 중복 또는 인접하여 확인되었다. 또한, 유구 간의 중복된 양상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중복된 구상유구 1



도면 20. 도로유구

